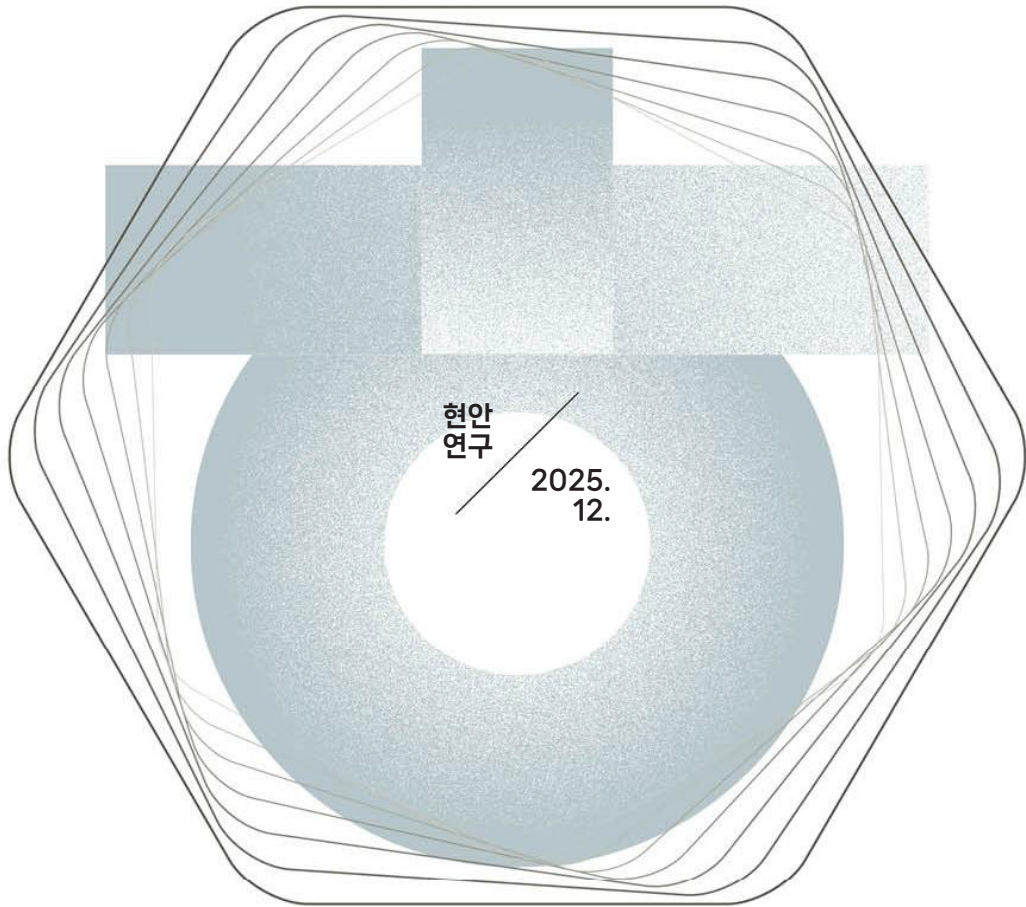


●●● 현안연구 2025-06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

-도시구조 진단 및 도시대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송기욱·이연정·강순경·강길주·최나리·최진훈·전현진·강지윤·배경완



연구진 profile

송기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위원
이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강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강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최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진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문화관광복지연구부 연구위원
전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도시교통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강지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도시교통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배경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도시교통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함의 |

■ 연구 배경 및 목적

- 김해는 난개발·불균형·저출생·고령화·청년유출 등 구조적 문제 누적
- 2024년 3대 메가이벤트 성공과 글로벌대학30 선정으로 도시 도약의 전환점 마련
- ‘김해 VISION 2050’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단계로 도시구조 진단 및 기초자료·정책논리 등 마련

■ 연구 개요

- 범위: 김해시 전역(4개 생활권), 2024년 기준 → 2050년 목표
- 방법: 통계분석, 인구추계, 시민 설문조사(1,500명), 상위계획 검토
- 체계: 4단계 추진(기초진단→시민수요→계획연계→전략도출)

■ 주요 연구결과

- 시군 통합 30년간 인구·경제·도시기반의 양적 성장, 2050년 장래 인구추계 50.7만 명 전망
- 남부·서부 성장, 중부·동부 정체 및 감소의 공간 양극화 구조 형성
- 시민핵심요구: 일자리·인구·교통+경제·정주·문화·환경 통합 복합비전
- 김해위상: 부울경 교통·물류·정주허브, 첨단산업·역사문화 국제도시

■ 정책 제언

- 트라이포트 연계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및 전략산업 고도화
- 가야역사문화·생태관광 연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확립
-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 및 스마트 농촌공간 혁신
- 탄소중립·그린인프라·재난대응 통합관계 기반 지속가능 도시 구현
- AI·디지털 기반 평생학습·행정혁신 및 생활체육 활성화
- 글로벌대학·RISE·김해인재양성재단 연계 인재양성 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본 사전 연구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김해 VISION 2050’ 수립
- ‘글로벌시티 김해’ 브랜드 확립 및 스마트도시 선도도시 위상 강화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연구 흐름 및 추진 체계	3
II	김해 도시인구 구조 진단	5
	1. 김해시 도시 발전 과정과 광역권 속 위상	5
	2. 공간구조 분석	7
	3. 인구구조 분석	10
	4. 종합 및 시사점	12
III	시민 의식조사 및 미래상	13
	1. 조사 개요	13
	2. 현재 김해에 대한 시민 인식	14
	3. 김해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 인식	16
	4. 정주복지 분야에 대한 인식	18
	5. 세대·지역별 인식 차이	19
IV	부문별 관련계획 및 정책 환경 검토	20
	1. 관련계획 검토의 기본 방향	20
	2. 총괄 부문 관련계획	21
	3. 산업·경제·일자리 부문 관련계획	25
	4. 문화·관광·복지 부문 관련계획	28
	5. 도시·교통·물류 부문 관련계획	31
	6. 환경·안전·녹지 부문 관련계획	34
	7. 교육·체육·행정 부문 관련계획	36
	8. 종합 및 전략적 시사점	38

V 김해 도시대전환 방향	42
1. 도시대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42
2. 세계 주요 도시의 전환 사례 및 시사점	43
3. 김해시 도시대전환 비전 및 목표	45
4. 핵심 전환 방향	46
5. '김해 비전 2050' 본 보고서를 위한 제언	51
부록 1 김해 공간 및 인구 분석	53
1. 공간구조 분석	53
2. 인구구조 분석	62
부록 2 김해 시민 설문 조사	69
1. 설문조사 개요	69
2. 설문조사 결과분석	71
부록 3 부문별 관련계획 검토	85
1. 총괄 부문 관련계획	85
2. 산업·경제·일자리 부문 관련계획	112
3. 문화·관광·복지 부문 관련계획	121
4. 지역균형발전부문 관련계획	128
5. 안전·환경·녹지 부문 관련계획	145
6. 교육·체육·행정 부문 관련계획	149
부록 4 김해 도시대전환	155
1. 도시대전환(City Transformation) 3.0	155
2. 김해 시군 통합 30년과 미래 김해 전망	161
부록 5 국내 대도시 비교	177

| 표 차례 |

<표 부록1-1> 생활권 설정방법 및 기준	56
<표 부록1-2> 김해시 생활권 설정	56
<표 부록1-3> 생활권별 인구 추이	57
<표 부록1-4> 생활권별 토지이용 현황	57
<표 부록1-5>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67
<표 부록2-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70
<표 부록3-1>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성과지표	103
<표 부록4-1> 경제·산업·일자리부문 SWOT 분석	167
<표 부록4-2> 문화·관광·복지부문 SWOT 분석	169
<표 부록4-3> 도시·교통·물류부문 SWOT 분석	171
<표 부록4-4> 환경·안전·녹지부문 SWOT 분석	173
<표 부록4-5> 교육·체육·행정부문 SWOT 분석	175
<표 부록5-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수 및 실질GRDP 비교	177
<표 부록5-2> 수도권 및 부울창(BUC) 대비 GYM 인구·면적 비교	178
<표 부록5-3> 수도권 및 부울창(BUC) 대비 GYM GRDP·제조업 종사자수 비교 ..	179

| 그림 차례 |

(그림 1-1) 공간적 범위: 김해시 4개 생활권	2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3
(그림 1-3)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의 위상	4
(그림 2-1)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	5
(그림 2-2) 김해시 위상: 계란 노른자 역할	6
(그림 4-1) '김해 VISION 2050' 부문별 관련 계획	20
(그림 4-2) '김해 VISION 2050' 수립 대비 전략적 시사점	41
(그림 5-1) '도시시대전환' 개념 및 필요성	42
(그림 부록1-1) 김해시 도시공간구조	55
(그림 부록1-2)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구조	59
(그림 부록1-3) 창원특례시 도시공간구조	61
(그림 부록1-4) 김해시 총인구(2015~2024년)	62
(그림 부록1-5) 김해시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 추세	62
(그림 부록1-6) 김해시 인구분포 변화(2015~2024년)	63
(그림 부록1-7) 김해시 공간적 범위	65
(그림 부록1-8)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66
(그림 부록1-9)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68
(그림 부록2-1) 향후 변화될 김해시 생활여건	71
(그림 부록2-2) 김해시 현재 도시발전 수준	71
(그림 부록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72
(그림 부록2-4)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권역	72
(그림 부록2-5) 205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73
(그림 부록2-6)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통정책	73
(그림 부록2-7) 김해시 교통문제 원인	74
(그림 부록2-8) 교통편의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74
(그림 부록2-9)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75
(그림 부록2-10) 중점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	75
(그림 부록2-1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76
(그림 부록2-12)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76
(그림 부록2-13) 관광객 유인의 장애요인	77
(그림 부록2-14) 문화예술도시 도약을 위한 중점 요소	77

(그림 부록2-15) 지역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78
(그림 부록2-16) 김해시 추천 관광지	78
(그림 부록2-17)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79
(그림 부록2-18)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79
(그림 부록2-19) 사회복지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80
(그림 부록2-20)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80
(그림 부록2-21)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81
(그림 부록2-22) 도시경관 저해 요인	81
(그림 부록2-23)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82
(그림 부록2-2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82
(그림 부록2-25) 체육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책	83
(그림 부록2-26) 재난에 대한 안전	83
(그림 부록2-27) 재난안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재난관리 분야	84
(그림 부록3-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	87
(그림 부록3-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도별 발전 비전	88
(그림 부록3-3)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91
(그림 부록3-4)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공간 구상도	94
(그림 부록3-5)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교통망 구상도	94
(그림 부록3-6)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구상도	96
(그림 부록3-7)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101
(그림 부록3-8)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공간발전구상	104
(그림 부록3-9)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106
(그림 부록3-10)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 계획	107
(그림 부록3-11)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 미래상 및 전략	128
(그림 부록3-12)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129
(그림 부록3-13)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및 4대 계획목표	132
(그림 부록3-14)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44
(그림 부록3-15)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146
(그림 부록3-16)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비전 및 전략	152
(그림 부록3-17)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54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김해시의 도시 구조적 난제 누적과 인구 전환기 도래

- 김해시는 비도시지역 난개발, 생활권 간 불균형,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청년 유출)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임. 2019년을 정점으로 내국인 인구는 정체·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등록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임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95명에서 2023년 0.83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출생아 수도 5,182명에서 2,513명으로 51.5% 감소함.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구 정체·감소와 초고령사회(2043년 예상) 진입이 예상됨

■ 3대 메가이벤트 성공과 글로벌대학30 선정으로 김해 도약의 전환점 마련

- 한편, 2024년은 김해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됨. 양대 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등 3대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산 유발효과 11,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204억원, 고용유발효과 13,204명을 달성함
-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으로 도시와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대전환을 견인할 토대가 마련됨. 김해시와 인제대는 ‘올시티캠퍼스’를 목표로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가야대·김해대·상공회의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김해인재양성재단’ 출범을 계획 중임

2) 연구 목적

-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김해시는 단순 성장·확장 중심이 아닌, 공간구조 재편·인구구조 대응·시민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하는 중장기 도시대전환 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김해시의 도시공간·인구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2050년을 지향점으로 하는 ‘김해 VISION 205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논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24년 기준의 각종 통계와 2025~2050년 인구추계를 중심으로, 205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함
-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중부·남부·서부·동부 4개 생활권 등을 중점 분석단위로 설정함
- 내용적 범위는 ①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구조 진단, ②인구구조 및 장래 인구추계, ③시민 인식·수요 조사, ④국가·광역·부문별 상위계획 검토, ⑤도시대전환 방향 도출로 구성됨



(그림 1-1) 공간적 범위: 김해시 4개 생활권

2) 연구 방법

- 통계분석, 기존 계획 및 문헌 검토, 코호트요인법을 활용한 인구추계, 1,500명 표본의 시민 설문조사(2024.11.14.~12.01,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 이를 통해 김해시의 도시공간·인구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2050년을 지향점으로 하는 '김해 VISION 2050'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논리 등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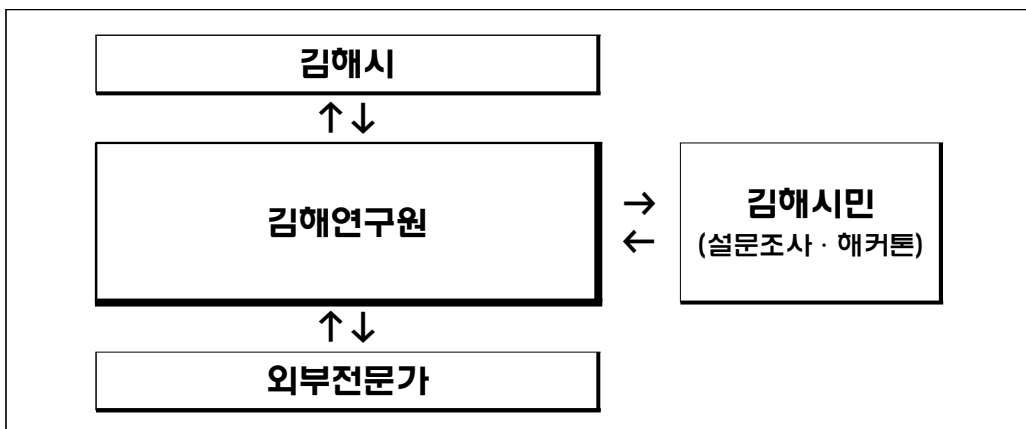
3 | 연구 흐름 및 추진 체계

1) 연구 흐름

- 4단계 추진(기초여건진단→시민정책수요→상위계획연계→전략방향도출)**
 - 1단계에서는 김해시 공간·인구·경제·환경 등 기초여건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대전환이 요구되는 구조적 원인을 도출함
 - 2단계에서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의 미래상, 부문별 정책수요(교통·산업·복지·환경·교육·체육 등)를 파악하고, 이를 정량·정성적으로 정리함
 - 3단계에서는 국토·관광·문화·콘텐츠·중소기업·소상공인·고용·사회적기업 등의 국가 및 광역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김해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 정책 방향과의 연계·정합성을 점검함
 - 4단계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김해 VISION 2050’의 도시 비전, 핵심 전략축, 공간구조 재편 방향, 인구·정주·산업·생활환경 전환 방향을 도출함

2)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는 김해시 정책연구기관인 김해연구원을 중심으로,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부문별 외부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설문조사·해커톤 등)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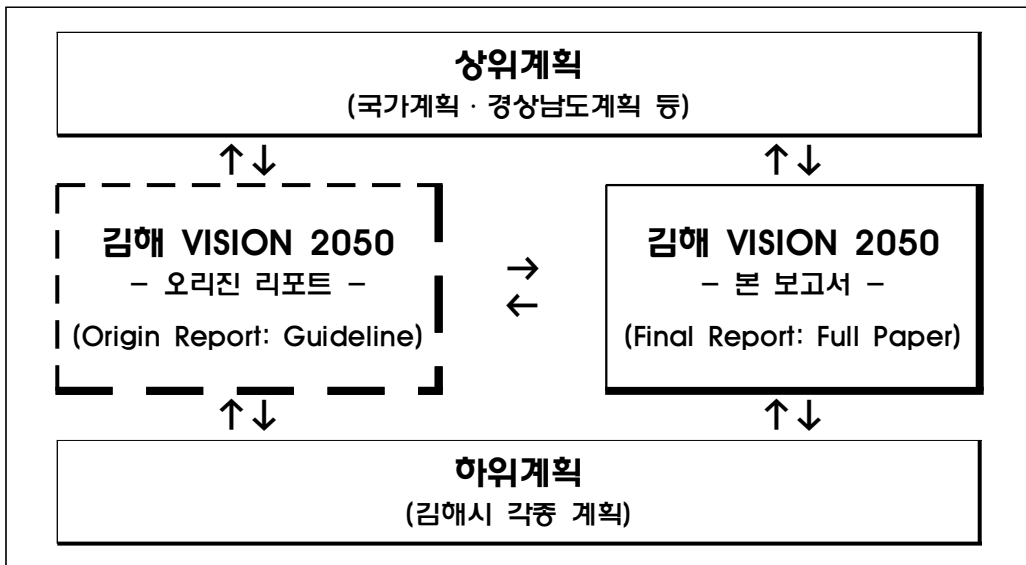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3)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의 위상과 역할

▣ '김해 VISION 2050' 본 보고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자 출발점

- 본 오리진 리포트는 김해시가 향후 수립·조정하게 될 각종 계획(도시기본계획, 인구정책, 산업·복지·교통·환경·교육·체육 계획 등)의 상위·기초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반 연구로서의 위상을 가짐
- 김해시 공간·인구 구조에 대한 중장기 진단과 2050년까지의 전망, 시민 요구와 국가·광역 정책 방향을 한 프레임 안에서 통합 제시함으로써, 개별 부문계획들이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하는 공통 기준점을 제공함
- 특히 장유·진영 등 생활권별 위상, 스마트산업·문화관광·물류 등 전략 산업 방향, 고령사회·다문화사회 대응 방향 등을 장기 시계에서 제시함으로써, 김해형 도시대전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요약하면,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는 향후 김해시 정책과 사업이 개별적 혹은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넘어, 2050년을 향한 일관된 비전과 전략 아래 체계적으로 정렬되도록 이끄는 출발점이자 기준 가이드의 역할을 함



(그림 1-3)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의 위상

II 김해 도시·인구 구조 진단

1 | 김해시 도시 발전 과정과 광역권 속 위상

1) 도시 발전 과정

■ 김해 시군 통합 30년, 인구·경제·도시기반의 양적 성장과 외연적 확장

- 김해시는 부산과 창원 사이에 위치한 동남권 핵심 배후도시로, 전통도시(원도심)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후 2000년대 장유·진영 등 신도시 개발과 진례·주촌·한림·대동 등 산업단지 확충으로 인구·산업이 외곽으로 분산됨
- 인구는 1995년 26만명에서 2025년 56만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세대수는 7만 8천 세대에서 23만4천 세대로 증가함
- GRDP는 1998년 3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15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기업체 수는 1995년 347개소에서 2025년 1만 86개소로 확대됨
- 문화기반시설은 2003년 14개소에서 2025년 34개소로, 박물관은 2개소에서 15개소로, 공공 체육시설은 2005년 15개소에서 2025년 184개소로 확충됨
- 주택 보급은 1996년 6만 6천 호에서 2023년 20만 호로 확대되었으며, 상수도 98.6%, 하수도 98.1% 보급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이 고도화됨



(그림 2-1)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

2) 광역권 속 김해시의 위상

▣ 동남권 광역 네트워크의 육상 교통·물류·정주 허브로서 위상 재정립 필요

- 김해시는 공항·항만·고속도로·철도 등 광역 인프라와 인접해 제조·물류·교통 거점 기능을 수행해 온 도시로 평가됨
- 트라이포트(Tri-port)로서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연계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부산과는 강서·대저 축을 통해 신산업·공항 연계 주거·물류 기능이 연결되며, 이 축이 김해 서부·남부 생활권과 직결될 잠재력이 큼
- 창원과는 서부 생활권(진영·진례·한림)이 마산·진해권과 도로·철도로 연계되어 산업·물류·주거 기능이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함
- 종합하면 김해는 '부산 중심 해양·항만·공항 권역'과 '창원 중심 제조·항만 권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 거점도시로, 동남권 광역경제권에서 육상 교통·물류·정주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며, 향후 비전·공간전략 수립 시 광역 네트워크를 전제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 김해시 위상: 계란 노른자 역할

2 | 공간구조 분석

1)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

- 비도시지역 난개발과 생활권 간 불균형 등으로 도시경쟁력 한계**
 - 비도시지역에는 계획 외 개별 공장·창고가 점진적으로 입지하여 도로·상하수도·주차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인근 주거지와 혼재하면서 소음·교통·경관 문제를 유발함
 - 장유·진영 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반시설 정비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일부 서부지역은 산업·물류는 성장하지만 주거·생활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불균형이 나타남
 - 산지·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비중이 높아 개발가능지가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장유·진영·원도심 일부에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과 정주 매력에 제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큼

2) 도시공간구조 설정 기본방향

- ‘외연 팽창’에서 ‘재구조화·고도화’ 중심으로 공간전략 전환 필요**
 - 인구 성장 둔화·고령화·청년유출·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외연 팽창형’에서 ‘재구조화·고도화 중심’ 공간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도심·부도심·지구중심·생활권 체계는 유지하되 성장거점과 관리·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외연 확장보다는 도심재생·저밀지 재편·공장 재배치 등 내부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함
-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와 광역 연계축 사전 반영 필요**
 - 비도시지역 중 접근성이 양호하고 환경·지형 조건이 허용되는 곳은 계획적 개발 후보지로, 환경·농업 가치가 높은 지역은 난개발 억제와 경관·생태·농업·관광 기능 강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산·창원, 향후 가덕신공항·부산신항과의 연계를 전제로 생활권·산업·물류·주거축을 사전에 계획·반영해야 함

3) 중심체계 설정: 도심 1, 부도심 2, 지구중심 3, 근린중심 2

▣ 도심-부도심-지구중심-근린중심 위계별 역할 정립과 도시발전축 연결성 강화

- 도심(동지역·주촌)은 시청·공공청사·금융·상업·업무시설이 집중된 행정·상업 중심지로, 도시재생·상권 활성화·공공·문화 인프라 확충의 전략 거점임
- 부도심인 장유는 신도시형 주거·상업 중심지, 진영은 산업·물류와 연계된 서부권 중심지로서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결합된 거점임
- 지구중심(진례·한림·대동)은 농촌·산업단지 배후지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과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하며, 농촌 활성화·농업·관광·레저 복합 거점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음
- 근린중심(생림·상동)은 자연환경과 인접한 농촌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보전·정비·소규모 마을재생 위주 전략이 적합함
- 도시발전축은 기존 북동-남서(부산-김해-창원) 대각선 축을 유지하면서, 동서·남북 내부 연결축을 보완하여 생활권 간 연결성과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함

4) 생활권 설정: 대생활권 1, 중생활권 4

▣ 4개 중생활권별 기능 분화와 인구 성장·감소 패턴의 뚜렷한 차별화

- 김해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부(동지역·주촌), 남부(장유 1·2·3동), 서부(진영·진례·한림), 동부(생림·상동·대동) 4개 중생활권으로 구분함
- 각 생활권은 기능(행정·상업·주거, 신도시·주거, 산업·물류, 농업·환경)과 성장·감소 패턴이 뚜렷이 구분됨
- 전체 인구는 2015년 약 54.7만 명에서 2024년 약 56.1만 명으로 연평균 0.2% 수준의 완만한 증가를 보임
 - 중부 생활권은 연평균 (-0.6%) 감소로 정체·감소 지역, 남부는 (1.8%)로 가장 높은 증가세
 - 서부는 (0.8%) 완만한 성장, 동부는 (-2.6%)로 지속적 감소가 특징임

▣ 중부·남부 도시재생·주거, 서부 산업·물류, 동부 보전·생태 중심

- 중부는 상업·주거·공공시설 비중이 높고 노후주거·상권 쇠퇴·주차 부족 등 도시재생 수요가 크며, 남부는 공동주택·도로·공원·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주거 중심 지역이지만 교통·주차·환경 문제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음

- 서부는 공장·창고 등 산업·물류 기능과 농지·임야가 혼재된 복합 구조, 동부는 임야·농지·수자원 등 자연·농업·환경 기능이 중심으로, 개발보다는 보전·농업·생태관광·수자원 관리 전략이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됨
- **성장권역 고도화, 정체·감소권역 재생·보전의 차별화 전략 필요**
- 종합하면 남부·서부는 성장, 중부·동부는 정체·감소하는 양극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성장권역에는 고도화·질 관리, 정체·감소권역에는 재생·보전·특화 전략을 차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5) 인접지역 도시공간

■ 부산 도시공간구조 내 김해접경연계거점의 신산업·주거 확산 역할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은 10-Core(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 4대 혁신성장축(관광·마이스축, 국제업무경제축, 신산업혁신축, 공항복합도시축) + 5개 연계거점(울산접경연계, 양산접경연계, 김해접경연계, 신공항연계, 창원연계거점)으로 구성됨
- 특히 김해접경연계는 강동권의 신산업혁신축과 대저연계거점의 주거기능을 연계하여 김해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함

■ 창원 도시공간구조 내 진해신항 연계 전략부도심과 지역중심체계 구축

- 창원특례시 도시공간은 광역도심1(창원·마산 기존시가지) + 도심1(진해 기존시가지) + 전략부도심1(웅동, 진해신항 연계) + 부도심1(북면) + 지역중심4(대산·내서·삼진·구산)로 구성됨

3 | 인구구조 분석

1) 인구 현황(2015~2024년)

▣ 고령사회 진입과 청년·유소년 감소, 노년·외국인 인구 증가의 구조적 전환

- 2024년 총인구는 약 561,806명이며,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구성됨
 - 성별 비중은 남자 50.6%, 여자 49.4%로 균형에 가까우며, 유소년 12.5%, 청년 22.6%, 중장년 44.3%, 노년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임
 - 외국인(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총인구의 5.4% 수준이며, 제조·서비스 노동력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 2015~2024년 동안 생산가능인구는 소폭 감소하였고, 청년인구는 16.8%(24,253명), 유소년인구는 26.0%(23,465명) 감소함. 반면 노년인구는 약 75%(34,430명) 증가해 연령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됨

▣ 출산율 급감·사망률 증가·청년 순유출의 인구 위기 구조 심화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95명에서 2023년 0.838명으로 약 43% 하락하고, 출생아 수는 5,182명에서 2,513명으로 51.5% 감소함
- 사망률은 2015년 423.5명에서 2023년 575.3명으로 약 35.8% 증가함
- 순이동률은 2015년 -0.2%에서 2024년 -0.3%로 전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9세 청년 순이동률은 평균 -2.5%로 청년 유출이 구조적 문제로 나타남

2)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 2050년 인구 약 50.7만 명 전망, 현재 대비 8.9% 감소 추계

- 코호트요인법을 활용해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반영한 인구추계를 실시하며, 기준 인구는 2024년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제외)을 사용함
- 2025년 총인구는 약 55만 1천 명, 2030년대 중반 이후 52만 명대, 2050년에는 506,618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대비 약 8.9%(49,785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성비 구조 변화와 외국국적동포 증가에 따른 인구 모니터링 체계 필요**

- 남자 인구는 2024년 대비 약 12.7% 감소, 여자 인구는 약 4.6% 감소가 예상되어 2050년에는 여성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5년간 외국국적동포는 약 4,900명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 실제 총인구는 공식 추계보다 6천~1만 명 정도 많아질 여지가 있어, 별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3) 인구구조 변화 전망(2025→2050년)

▣ **생산가능·유소년·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재정·노동·도시활력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405,265명에서 353,638명으로 약 12.7% 감소하며, 비중은 73.5%에서 69.8%로 하락해 지방재정·노동시장·복지지출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
- 유소년인구(15세 미만)는 67,600명에서 35,041명으로 약 48.1% 감소하며, 비중은 12.2%에서 6.9%로 하락해 학교·보육·아동복지 수요 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임
- 청년인구(20~39세)는 135,049명에서 100,134명으로 약 25.8% 감소하고, 비중은 24.5%에서 19.8%로 하락해 혁신·창업·소비·문화 등 도시 활력 저하가 우려됨

▣ **2043년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친화 정책기반 확대 필수**

-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8,557명에서 117,939명으로 약 50.1% 증가하며, 비중은 14.2%에서 23.3%로 상승해 2043년경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 진입이 예상됨
- 이에 따른 노인복지·돌봄·의료·주거·교통 등 고령친화 정책 확대가 필수임

4 | 종합 및 시사점

- ▣ 남부·서부 성장, 중부·동부 정체·감소의 공간 양극화와 난개발로 인한 정주여건 저해

 - 공간구조 측면에서 남부·서부는 성장축, 중부·동부는 정체·감소·보전축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공장 난개발·개발가능지 부족이 공간 효율성과 환경·정주 여건을 저해함
- ▣ 총인구 감소·청년유출·저출생·고령화의 복합 인구위기와 도시의 활력 약화 위험

 -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총인구 감소, 청년·유소년 축소, 고령인구 급증이라는 구조적 인구위기 국면에 진입했고, 청년유출·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 활력·노동공급·재정 기반 약화 위험이 커짐
- ▣ 외국인·동포 인구 증가에 따른 다문화·이주정책의 중요성 부각

 - 외국인·동포 인구 비중 증가는 다문화·이주정책의 중요성을 키우고, 장래 도시구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함
- ▣ 김해 인구·공간의 구조 변화에 맞춘 도시대전환 프레임 통합과 핵심 과제 설정 필요

 - 이에 '김해 VISION 2050'에서는 도시·공간·산업·정주·문화·복지·환경 등의 전략을 인구·공간 구조 변화에 맞춘 도시대전환 프레임으로 통합하고, 청년·가족 유입·정착, 고령사회 대응, 생활권별 차별화 전략을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III 시민 의식조사 및 미래상

1 |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 시민 1,500명 대상 전 분야 정책수요 조사를 통한 비전·전략 수립 기초 자료 확보**
- 조사 목적은 김해시민이 인식하는 현재 도시여건과 2050년 김해 미래상을 파악하고, 교통·산업경제·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경관·교육체육·재난안전 등 전 분야 시민 수요를 ‘김해 VISION 2050’ 비전·전략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음
- 조사대상은 김해시민 및 직장·학교 등 생활권이 김해시인 근로자·학생 등이며, 표본수는 총 1,500부(유효표본 1,500부)임
- 표본추출은 임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고, 조사기간은 2024년 11월 14일 ~ 12월 1일, 김해시 전역(동·읍·면)을 대상으로 1대1 직접대면조사를 실시
- 참고로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pm 2.5\%$ p임

2) 응답자 특성 및 분석 방법

- 장기 거주·근무자 중심 응답 구조와 SPSS 기반 빈도·교차분석 수행**
- 응답자는 남성 729명(48.6%), 여성 771명(51.4%)이며, 연령은 20대 13.2%, 30대 14.8%, 40대 20.9%, 50대 24.3%, 60대 이상 26.8%로 중·장년 및 고령층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직업은 자영업·판매·서비스 39.8%(자영업 31.8%, 판매·서비스 8.0%), 회사원 18.3%, 주부 14.8%, 공무원·군인 7.4%, 학생 7.0% 등이며, 거주·근무기간은 10년 초과가 54.1%로 장기 거주·근무자가 절반을 넘는 안정된 구조임
- 설문지는 Editing - Coding - Cleaning 과정을 거쳐 오류를 보완하였고, SPSS를 활용해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수행함

2 | 현재 김해에 대한 시민 인식

1) 김해의 도시여건 및 발전과제에 대한 시민 인식

▣ 향후 생활여건 전망

- 향후 생활여건 전망에서 '매우 좋아짐+좋아짐'은 53.2%, '매우 나빠짐+나빠짐'은 10.1%로, 시민은 전반적으로 김해 생활여건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도시발전 수준(5점 척도)

- 현재 도시발전 수준은 자연생태환경 3.59점(최고), 주거환경과 도시경관 3.45점, 도시기반시설 3.39점, 교육환경 3.24점, 문화여가시설 3.21점, 교통체계 3.08점 순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 수준이나 교통체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자리 창출 24.7%, 인구유입 및 정착 촉진 21.2%, 교통체계 개선 14.2%, 산업구조 고도화 10.5% 등이 꼽혀, 시민이 '일자리와 인구'를 김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과제로 인식함

2) 주요 부문별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

▣ 교통 분야 인식

- 교통정책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 47.7%, 주차장 이용 편의 28.4%, 보행·자전거 환경 11.9%, 자가운전 환경 10.9% 순으로, '대중교통 편의 개선+주차 문제 해소'가 핵심 요구로 나타남
- 교통문제 원인으로서는 주차시설 부족 32.1%, 시내버스 공급 부족 15.5%, 도로 인프라 미흡 14.7%,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13.9%, 통행차량 급증 10.5% 등이 지적됨
- 개선 우선 과제로 주차공간 확대 31.7%, 시내버스 공급 확대 14.5%,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3.9%, 도로혼잡 개선 13.5%, 광역교통망 확충 13.1%가 제시됨

■ 환경·경관 분야 인식

- 시급한 환경문제로 쓰레기·악취 25.1%, 하천·호수 수질보전 22.7%, 자연생태계 보전 18.0%, 폐기물 안정적 처리 15.6%가 꼽힘
- 도시경관 저해 요인은 도로혼잡·주차난 26.6%, 공장·공단 난개발 24.9%가 가장 큼

■ 관광 분야 인식

- 관광객 유인 장애요인으로 볼거리·즐길거리 부족 49.9%, 교통불편 11.9%, 먹거리·쇼핑거리 부재 8.9%, 홍보·마케팅전략 부족 8.4%가 지적됨
- 추천 관광지로 가야유적·유물 30.8%, 먹거리타운 16.3%, 롯데아울렛·위터파크 12.5%, 봉하마을 8.8% 순으로 나타나, 김해가 ‘가야 역사문화 중심지’로 인식됨

3 | 김해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 인식

1) 2050 김해 도시발전 방향 및 중점 개발권역에 대한 시민 인식

□ 중점 개발 권역

- 김해의 중점 개발 권역으로 장유 신도시권 25.6%가 최우선, 경전철 역세권 18.2%, 진영·주촌 산업권 17.1%, 시청 중심 원도심권 11.2%, 대동·동상 농촌권 8.5%, 봉황동 문화관광권 6.9% 순임
- 시민은 장유를 인구·정주 중심지, 진영·주촌을 산업·일자리 중심지로 인식함

□ 2050년 도시개발 방향

- 2050년까지 중점 추진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은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 18.0%, 친환경 생태도시 15.0%, 역사문화 관광도시 14.4%, 주거·정주 우수도시 14.0%, 복합문화 예술도시 10.2%, 물류·유통 거점도시 9.5%, 스마트 혁신도시 9.3%, 교육·연구 중심도시 8.8%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로는 20·30대가 주거·정주 우수도시를, 40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50대는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를, 60대 이상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가장 선호해 생애주기별 요구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남

2) 부문별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 인식

□ 경제산업 분야

-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일자리 수급 지원 36.8%,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21.4%, 소상공인·도소매업 지원 21.4%, 관광·문화산업 육성 10.9%, 제조업 고도화 7.4%가 꼽힘
- 중점 육성 전략산업은 문화·관광산업 28.7%, 유통·물류 20.3%, 자동차·기계·부품 14.0%, 항노화(의생명) 13.4%, ICT 13.2%, 에너지·환경 9.5%로, 제조 기반 위에 서비스·문화·물류·의생명·ICT를 결합한 구조 전환 필요성이 인식됨

□ 청년정책 분야

-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취업 연계 프로그램 25.5%, 청년주거·정착 지원 24.2%, 청년 창업자금 및 운영비 지원 12.3%, 청년 직무교육·역량강화

11.3%, 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10.6%가 중요하게 나타남

-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주택 공급 24.3%, 취업연계 프로그램 22.9%, 청년창업 지원 21.1%, 문화여가공간 조성 8.0%,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7.5%가 제시됨

▣ 농업 분야

- 농업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스마트팜 기술 보급 25.4%, 농산물 가공·유통 센터 설립 17.1%, 청년농업인 육성 14.2%, 친환경 농업지원 11.1%,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10.3%가 우선 과제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

- 문화예술도시 도약 요소로 생활주변 문화예술시설·프로그램 확대 38.9%, 대규모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21.4%,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1.2%, 문화향유 기회확대 10.4%가 제시됨
- 문화유산 정책에서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20.5%, 문화재 발굴·보존 17.6%, 문화재 야간관광 15.3%,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3.6%가 요구됨
- 연령대별로 20~30대는 문화재 야간관광 활성화, 40~50대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60대 이상은 문화재 발굴·보존을 선호함

4 | 정주복지 분야에 대한 인식

1)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 고령화 대응

-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41.5%가 최우선이며,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15.8%, 독거노인 돌봄체계 12.5%, 치매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10.4%, 노인여가시설 확충 9.3%가 중요 과제로 인식됨

□ 다문화가정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는 한국어교육 21.2%, 취업지원 19.6%, 다문화 인식개선 18.3%, 문화교류 프로그램 13.3%, 자녀교육 지원 12.3%가 중요하게 나타나, '당사자 지원+지역사회 인식개선'을 병행해야 함을 시사함

2) 생활서비스 분야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 보육교육

- 보육환경 개선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24.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6%, 통합돌봄센터 설립 13.1%, 보육교사 처우개선 13.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10.5%가 중요함
-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25.3%, 은퇴자 재교육 20.4%,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17.8%, 평생학습관 확충 13.0%가 우선 과제로 나타남

□ 체육안전

-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41.7%, 체육시설 확충 32.7%가 핵심 과제이며, 전문체육인재 양성 9.4%,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6.0%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임
- 재난안전 인식에서 자연재난 안전도는 3.33점, 사회재난 안전도는 3.29점이며, 풍수해를 1순위 재난관리 대상으로 인식함

5 | 세대·지역별 인식 차이

1) 세대·지역별 차별화된 인식 차이

▣ 세대별·지역별 미래 도시상 및 정책 우선순위의 뚜렷한 차별화

- 20~30대는 주거·정주 우수도시, 청년 주거·정착 지원을 우선시하며, 40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50대는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를 선호함. 60대 이상은 친환경 생태도시, 문화재 발굴·보존, 노인일자리 창출을 선호함
- 지역별로는 장유 신도시권 주민은 정주환경 개선을, 진영·주촌 주민은 산업권 개발을, 원도심 주민은 도시재생을, 동부 농촌권 주민은 농촌 활성화를 선호함

2) 주요 시사점

▣ 경제·정주·문화·환경 네 축을 통합하는 복합 비전과 패키지형 정책 방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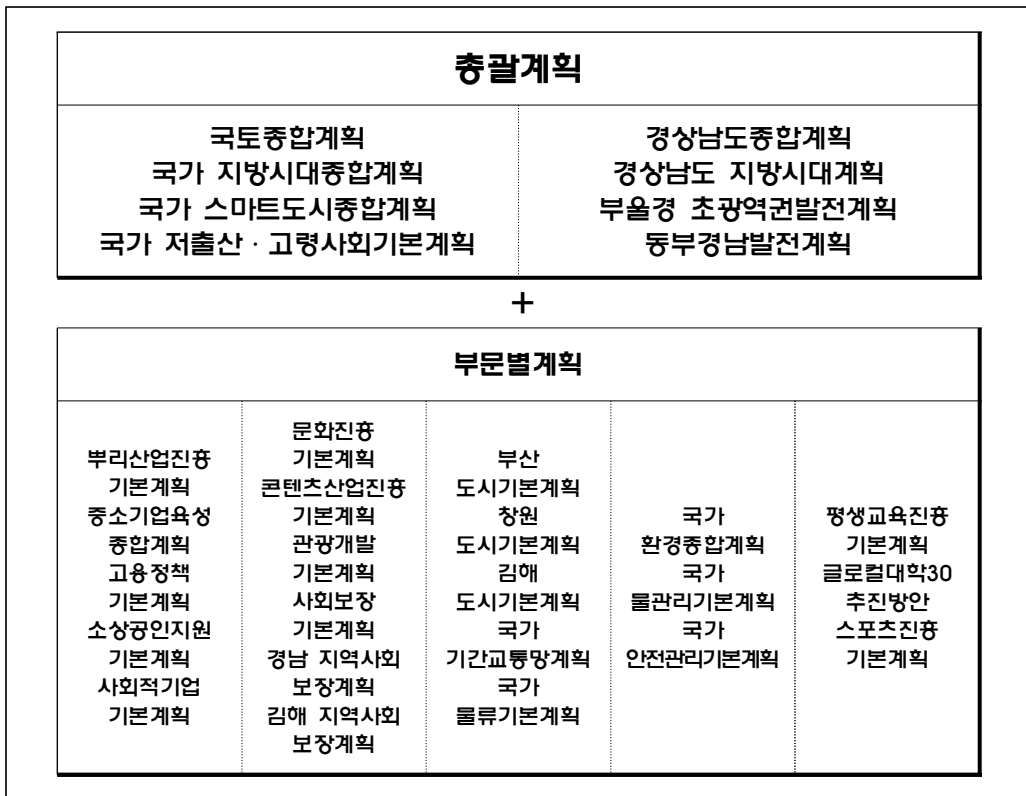
- 비전·전략 설계 관점에서 시민 인식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인구, 첨단산업, 가야역사, 생태·환경, 정주, 교통이며, 시민은 경제·정주·문화·환경 네 축을 동시에 요구함
-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 주거·정주 우수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통합하는 복합 비전이 필요하며, 산업·일자리, 정주·주거·복지, 교통·환경,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정책 방향이 요구됨
- 시민 인식·미래상은 ‘김해 VISION 2050’ 비전·전략·과제 설계의 민주적·사회적 근거로, 2장(도시·인구 진단), 4장(정책 환경), 5장(도시대전환 방향)과 결합해 김해만의 비전 키워드와 전환과제 도출에 활용됨

IV 부문별 관련계획 및 정책 환경 검토

1 | 관련계획 검토의 기본 방향

▣ 김해 미래 정책의 정합성 확보와 전략적 시사점 도출

- 본 장에서는 '김해 VISION 2050' 수립을 위해 국가·광역·부문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함
- 검토 대상은 총괄(종합계획 등),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물류, 환경·안전·녹지, 교육·체육·행정 등 6개 부문으로 구분됨
- 검토 목적은 김해시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국가·광역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부문별 정책 환경 변화 파악, 그리고 '김해VISION 2050'의 전략적 시사점 도출에 있음



(그림 4-1) '김해 VISION 2050' 부문별 관련 계획

2 | 총괄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균형 국토·스마트산업 허브 비전과 경남의 동북아 핵심 경제권 도약 방향 제시**
 -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를 목표로 함
 - 경상남도 발전비전은 ‘다함께 행복한 경남, 대륙과 해양을 잇는 스마트산업 허브’로 설정됨
 - 경남 발전방향으로 제조업 혁신 주도 국가성장거점 구축, 경남형 안전복지 모델 수립, 동북아 관광거점 구축,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 구축, 광역연합을 통한 동북아 8대 핵심 경제권 진입 등이 제시됨

2)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2021~2040)

-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비전과 4대 사회상 및 10+1 핵심전략 제시**
 - 비전은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더 좋은 경남’이며,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함
 - 4가지 사회상으로 미래 지향 혁신사회,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생명 존중 안전사회가 제시됨
 - 10+1 핵심전략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전환, 산업구조 개편, 지역 인재 양성, 민주적·과학적 의사결정, 경남 맞춤형 인구정책, 청년 도전 환경 조성, 스마트 사회서비스 구축,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건강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촘촘한 안전망 구축, 유연한 광역권 형성 및 집약적 도시공간 구축 등이 포함됨

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 지방주도 균형발전·지방분권 비전과 5대 전략 및 특구 조성 추진과제 제시**
 -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며,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함
 -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지방분권, 인재 기르는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개성 살리는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생활복지임

- 주요 추진과제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조성, 로컬리즘 (지방다움) 기반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통한 지방 신산업 혁신,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 제시됨

4)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비전과 5대 전략별 역점과제 제시

- 비전은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이며, 신기술 융합과 투자 유치로 역동하는 지역경제, 인재가 모이고 복지·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함
- 5대 전략별 역점과제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 공평한 교육기회의 인재 경남, 좋은 일자리의 성장 경남(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산강소기업 육성), 더 나은 삶의 특화 경남(우주항공 클러스터, SMR 기술개발),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의과대학 신설,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이 제시됨

5)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비전과 부울경 1시간 통행권 등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 비전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며, 주력산업 혁신 및 수소생태계 조성으로 연평균 3% 경제성장, 초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주요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 및 항공 ICT융합클러스터 조성,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보급·운행 및 수소 배관망·충전소 구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광역철도(김해~양산~울산) 건설,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이 포함됨

6) 동부경남 발전계획(2023)

▣ 김해 국제문화도시 비전과 5대 선도 프로젝트 및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계획 제시

- 김해시 비전은 ‘첨단산업과 역사가 공존하는 국제문화도시’로 설정됨
- 김해시 선도 프로젝트로 경남 글로벌 융합 콘텐츠산업타운, 액화수소 클러스터, 트라이포트(Tri-port)배후 물류도시, 김해 공공의료원, 경남 글로벌 어울림 센터가 제시됨
-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 계획으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김해~밀양 고속도로(창원 연장 건의), 국지도 60호선(한림~생림, 매리~양산), 국지도 69호선(대동~매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이 포함됨

7)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비전과 AI·데이터 중심 4대 추진전략 제시

- 비전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이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 주도·공공 뒷받침의 혁신공간, 전 세계 모범의 스마트공간을 목표로 함
- 4대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플랫폼 도시 구현,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대응),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데이터허브 활성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어반테크 특화단지, 규제혁신),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이 제시됨

8)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비전과 인구변화 대응 4대 추진전략 제시

-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이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함
-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위라벨,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후생활보장, 지역사회 계속 거주 통합돌봄, 고령친화 주거환경),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연령통합적 사회, 고령친화사회 도약) 등이 제시됨

9)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 동남권 메가경제권의 육상·물류·정주 허브로서 VISION 2050 최상위 통합 프레임 설정 필요
- 김해를 동남권 메가경제권 내 육상·물류·정주 허브, 인구100만 생활권 중심 도시로 상정하고, VISION 2050을 최상위 통합 프레임으로 설정 필요함

3 | 산업경제일자리 부문 관련계획

1) 제3차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 미래 고부가 첨단산업 대전환 비전과 뿌리산업 2.0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제시

- 비전은 ‘노동집약적 저부가 → 미래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대전환’이며, 뿌리기업의 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 디지털·친환경·글로벌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전후방 산업과 함께하는 고도성장 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함
- 주요 과제로 뿌리기업 역동성·성장성 강화(인력수급 지원, 납품대금 연동, 친환경·고효율 설비투자 지원), 능동적·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성장 유도형 기업지원제도 도입, 뿌리산업 2.0 혁신 생태계 조성(DX·친환경 기업생태계, 글로벌 첨단 기술 역량 강화), 6+8 뿌리 융합협업 기반 공고화, 전후방산업-뿌리기업 상생 모델 확산 등이 제시됨

2)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2023~2025)

▣ 중소·벤처·소상공인 기반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과 디지털 전환·스케일업 전략 제시

- 비전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이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전략으로 함
- 주요 추진과제로 중소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글로벌 중소기업 수출 드라이브, 제조현장 디지털화·고도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민간 협업 상권활력 제고, 회복·재기 안전망 구축),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 구축 등이 제시됨

3)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 양질의 일자리 기반 혁신성장 비전과 고용취약계층 격차 해소·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전략 제시

- 비전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이며, 고용취약계

층 일자리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 분야별 세부과제로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고용둔화 선제 대응, 고용위기 조기 포착 시스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 양성, 업종·지역별 빈일자리 특별 관리,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 일·육아 병행 및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구축,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등이 제시됨

4)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2023~2025)

▣ 소상공인 혁신기업가 성장 비전과 성장단계별 육성·디지털 전환·안전망 구축 전략 제시

- 비전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며,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브랜드 상권 조성,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함
- 전략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창업】준비된 예비창업자 발굴, 【성장】유망 소상공인 선별육성, 【도약】투융자 자금지원 스케일업),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민간 협업 상권활력, 로컬브랜드 구축, 전통시장 변혁),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스마트기술 도입,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회복-폐업-재기 촉출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제시됨

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가치 평가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비전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기업'이며,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을 추진함
- 추진과제로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사회적가치 평가와 지원 연계(사회적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구매·세제혜택과 연계, 경영공시 의무화·상시모니터링 체계),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확충, 창의혁신적 사회적기업 육성),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지원(민간판로 확대,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됨

6)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 제조 기반 고도화와 신산업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및 세대별 일자리 생태계 조성
- 김해에 대해 제조 기반 고도화와 물류·푸드·의생명·ICT·콘텐츠 등 신산업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 세대별 다양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요구함

4 | 문화관광복지 부문 관련계획

1)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 문화매력국가 비전과 K-컬처 기반 문화자산 산업화·글로벌 확산 전략 제시
 - 비전은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이며, 핵심가치로 자유로운 문화누림과 창조, 문화로 연대하는 사회가 제시됨
 - 추진전략으로 매력있는 문화자산으로 내일을 여는 K-컬처(전통 산업화와 일상화, 한글·한국어 언어문화산업 육성),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비상하는 K-컬처(어르신·장애인·청년 지원), 지역과 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문화다양성 기반 연대사회, 인문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K-아트·K-콘텐츠 글로벌 확산, K-컬처 해외진출 중추기지 강화) 등이 제시됨

2)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24~2027)

-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비전과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장르별 집중지원 전략 제시
 - 비전은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이며,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 5조원 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을 추진함
 - 추진전략으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신기술·IP 지원, 중소·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K-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주요 장르 집중지원(【게임】 콘솔게임 집중육성, 【웹툰】 글로벌 플랫폼화, 【영화】 제2의 기생충 발굴, 【음악】 K-팝 신드롬 지속, 【방송】 K-드라마 황금기) 등이 제시됨

3)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

- 상생·스마트·지속가능 관광 비전과 부울경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경남 문화생태 관광거점 설정
 - 비전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이며,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으로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미래 관광수요 예측 기반 선제적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관광자원 보전, 지속가능 관광기반 구축),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스마트 이용, 관광약자 편의 개선),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지역관광 주체 역량 강화, 자립적 지역발전 구조),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됨
- 부울경권은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로, 경상남도는 ‘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거점’으로 설정됨

4)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 약자부터 촘촘한 지속가능 복지국가 비전과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사회보장체계 혁신 전략 제시

- 비전은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핵심목표로 함
- 전략 및 중점과제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위기 직면 사회적 약자 보호, 새로운 취약계층 복지수요 발굴·지원,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혁신 품질 제고,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사회보장체계 혁신(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등이 제시됨

5)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 든든한 경남복지 비전과 통합·균형·예방·스마트·참여 등 5대 복지 정책방향 제시

- 비전은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이며,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체계 구축, 의료·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권 보장, 일자리 복지로 자립지원 강화, 미래세대 투자 강화, 체감형 사회서비스 확대, 새로운 복지수요 선제 대응을 핵심목표로 함
- 정책방향으로 통합복지(복지·보건·일자리·문화복지 연계협력, 커뮤니티케어),

균형복지(18개 시군 지원 기능 강화), 예방복지(일자리·자립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기능 강화), 스마트복지(복지데이터 및 ICT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 참여복지(민간 및 주민참여 강화) 등이 제시됨

6)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 희망복지도시 김해 목표와 통합돌봄·맞춤형 일자리·다문화 환경 조성 등 6대 전략체계 제시

- 목표는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설정
- 전략체계로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 구축(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김해형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강화), 맞춤형 일자리 기반조성(청년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 연계),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구축(걷기 운동 생활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균형있는 복지·문화서비스 활성화(진영복지관 건립, 원스톱 사회보장 정보 플랫폼), 함께하는 다문화 환경 조성(이주배경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등이 제시됨

7)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가야역사·생태·복지·다문화 통합 문화복지도시 정체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사회통합 동시 제고 필요

- 김해에 대해 가야역사·생태·생활문화·복지·다문화를 통합한 문화·복지 도시 정체성 강화, 시민 삶의 질·문화향유·사회통합 동시 제고 요구함

5 | 도시교통·물류 부문 관련계획

1)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비전과 김해접경연계거점을 통한 신산업혁신축 확산 역할 설정**
 - 도시미래상은 ‘부산 먼저 미래로 -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함
 - 공간구조는 10-Core + 4대 혁신성장축 + 5개 연계거점으로 설정됨
 - 10-Core는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으로 구성됨
 - 4대 혁신성장축은 관광마이스거점축, 국제업무경제혁신축, 신산업혁신축, 공항복합도시성장축임
 - 5개 연계거점 중 김해접경연계거점은 신산업혁신축(덕천/사상/하단) + 대저연계거점을 김해방향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함
 - 핵심목표로 스마트 15분도시(시민 일상이 행복한 생활권 계획), 글로벌 허브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청년활력 미래도시(청년혁신 생태계), 탄소중립 건강도시가 제시됨

2)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비전과 진해신항 연계 스마트산업·수소에너지·녹색교통 추진전략 제시**
 - 도시미래상은 ‘시민공감 스마트미래 -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며, 스마트 경제가 시작되는 초연결도시,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생활안전도시, 지역특화를 통한 균형발전도시를 목표로 함
 - 목표별 추진전략으로 스마트산업 재편(수소산업, 국방과학기술 육성, 스마트팜, 바이오산업), 세계를 초연결하는 산업환경(메가포트-진해신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핀테크), 경제주체간·산업간 상생 융합발전(창원형 산업생태계, 강소연구개발특구·도심융합특구), 인재양성 중심 경제기반(R&D 공공기관 창원 유치,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중교통중심 지속가능 도시(수소트램, BRT), 탄소중립 에너지시스템(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녹색교통

체계(친환경 대중교통, 도심20분·외곽40분 대중교통망) 등이 제시됨

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 세계도시 김해 비전과 교통물류·미래산업·가야역사문화·친환경 등 6대 부문별 전략 제시

- 도시미래상은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이며, 계획목표로 사람 중심 도시공간구조 정비, 광역교통시설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선도 경제거점도시 조성, 친환경 세이프에코 시티 조성, 가야역사문화 기반 관광인프라 확충, 맞춤형 복지의로 서비스 체계 및 명품교육 도시 조성이 제시됨
- 부문별 전략으로 도시·주택(안동공단 이전 및 명품 복합단지 조성, 비도시 지역 난개발 정비, 1인가구·고령 친화형 주거,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교통·물류(한반도 종단철도 산업물류 허브, 사통팔달 도로망,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경제(차세대·나노·바이오 신성장 동력, MICE 기반 조성, 특화단지 조성, 농촌경제 활성화) 등이 제시됨
- 덧붙여 환경·안전(지속가능 안전도시, 재해예방·대응체계, 국제안전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기후변화 대응), 문화·관광(역사문화자원 기반 관광거점, 관광개발 루트, 천만관광 인프라, 가야역사문화 복원·정비,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보건·교육·복지(맞춤형 복지서비스,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계, WHO 건강도시,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독서문화) 등이 제시됨

4)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비전과 자율주행·UAM·수소열차 등 첨단 교통 미래상 제시

- 비전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이며,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일상 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
- 주요 정책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고속 국가철도망, 간선 도로망, 공항인프라, 항만 경쟁력 강화),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수단·서비스 다양화, 복합환승센터 확대),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일상화(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첨단 교통수단 개발, 교통·물류 스마트화) 등이 제시됨

- 더불어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사람 중심 도로교통, 노후교통시설 관리, 교통약자 복지), 글로벌 교통 공동체(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유라시아 대륙 연결성 강화) 등이 이어서 제시됨
- 미래상으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2028년 UAM 대도시 상용화, 2030년 무인항공기 물류배송 시작, 2032년 수소열차 상용화, 2037년 육해공 통합관제 실시, 2040년 철도 남북·유라시아 대륙간 이동 가능 등이 제시됨

5)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비전과 스마트·디지털 물류시스템 구축 전략 제시

- 비전은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며, 첨단화 및 디지털화,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사람중심/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환경, 산업 미래 대응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 6대 추진전략으로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를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철도·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연계),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 고품질 물류 서비스(안전하고 좋은 물류 일자리, 전문 물류인재 양성) 등이 제시됨
- 더불어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기후변화 대응, 방역·방재·재난 대응 안전망,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물류 신산업 육성,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한반도 통합 물류망, 한·중·일 연계 네트워크, 국제 물류 인프라 허브 경쟁력) 등이 이어서 제시됨

6)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부산·창원 연계 트라이포트 배후 스마트모빌리티 선도 도시 포지셔닝 필요

- 김해에 대해 부산·창원 연계 광역교통·물류허브,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선도 도시로의 포지셔닝과 생활권 구조 개편 연계 전략 수립 요구함

6 | 환경안전·녹지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비전과 녹색·행복·스마트환경 목표 및 7대 핵심전략 제시

-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이며,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목표로 함
- 녹색환경 목표로 우수 자연 보전 및 쇠퇴지역 재자연화를 통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순환·복원·생태계서비스 등 인간과 자연의 공정한 공유, 풍요로운 통합 물관리가 제시됨
- 행복환경 목표로 미세먼지·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 저감 및 안전관리, 기후위기와 환경재해 대비가 제시됨
- 스마트환경 목표로 사회·경제시스템 녹색전환, 환경정의 구현, 산업 녹색화 및 녹색순환경제 정착,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이 제시됨
- 핵심전략으로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이 제시됨

2)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

▣ 생명의 물 비전과 물환경 자연성 회복·물재해 안전·물산업 육성 6대 추진 전략 제시

-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며, 건전한 물순환 달성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으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깨끗한 수질 확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 확대),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물절약, 효과적 배분, 수원 다변화, 수돗물 안전관리),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극한 가뭄·홍수 방어체계, 피해 최소화),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전문 인력 양성, 물관리 기술 개발),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안전관리 강화, 생애주기 자산관리),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글로벌

물산업 선도) 등이 제시됨

3)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사회 비전과 디지털·현장·회복력 기반 5대 재난안전 관리 전략 제시

- 비전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며,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기존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 재난관리체계 정비),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AI·ICT 활용 위험요인 인자·예측,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재난관리 지능화),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지역·현장 중심 문제해결 역량 강화, 대응 기관 간 소통 증진) 등이 제시됨
- 더불어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신속한 일상회복,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관리(체험 중심 안전교육, 주민 참여 안전관리체계, 민관 협력) 등이 이어져 제시됨

4)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탄소중립·물·녹지·생태축 중심 공간구조와 디지털 재난안전 시스템의 도시 계획 기본 전제 반영 필요

- 김해에 대해 탄소중립·기후적응도시, 물·녹지·생태축 중심 공간 구조, 디지털 기반 재난 안전 시스템을 도시계획·인프라 설계의 기본 전제로 반영 요구함

7 | 교육체육행정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 평생학습사회 비전과 대학·지자체·기업 협력 및 AI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핵심과제 제시

- 비전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이며,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을 정책목표로 함
- 핵심과제로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성인 역량향상,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지역주민 평생학습),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정책, 장애인 집중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확대, 성인문해교육, 북한이탈주민·재외동포·다문화가족 지원) 등이 제시됨
- 더불어 다양한 경력·자격·학력 연결 강화(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학점 은행제 확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원스톱 플랫폼,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 활용) 등이 이어서 제시됨

2)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2023)

▣ 국가·지역·대학 동반 경쟁력 상승 비전과 대학 내외부 혁신을 통한 산학 지역협력 허브화 전략 제시

- 비전은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이며,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를 목표로 함
- 추진전략으로 대학 외부 지원 전략 혁신(선택과 집중, 혁신 성공모델 창출, 범부처-지자체 간 장벽없는 지원, 규제 특례, 재원 집중 지원, 민간전문가 주도 계획 수립·평가지원,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이 제시됨
- 또한 대학 내부 구조·운영 혁신(산학지역협력 허브화, 지역과 산업 수요 반영 인재양성·연구·창업,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 수요

반영 학사운영, 총장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성과의 투명한 공개) 등이 제시됨

3)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

▣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생활·엘리트·K-스포츠 융합 5대 전략 제시

- 비전은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스포츠 참여 확대, 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스포츠 가치 확산을 정책방향으로 함
- 전략 및 과제는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는 지역, 장애인 스포츠 여건 조성), 최강의 경기력과 안정된 삶(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상호존중 스포츠 혼련 문화, 체육인 복지),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5만 스포츠클럽,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등이 제시됨
- 덧붙여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스포츠산업 성장 생태계, 레저·관광·콘텐츠 융합, K-스포츠테크),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국제 스포츠 연대,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등이 제시됨

4) 김해 VISION 2050과의 관계 설정

▣ 교육·체육·행정을 인재·건강·거버넌스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부문별 전략의 기반 축으로 설계 필요

- 김해에 대해 VISION 2050에서 교육·체육·행정을 인재·건강·거버넌스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산업·도시·복지·환경 등 부문별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 축으로 설계 필요함

8 | 종합 및 전략적 시사점

1) 총괄 부문 시사점

- 지방분권·균형발전·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기조와 특구·글로벌대학 연계 김해형 도시대전환 추진**
 - 국가광역 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함
 - 김해시는 부울경 초광역권의 육상 교통·물류·정주 허브(요충지), 동부경남의 첨단산업·역사문화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설정됨
 -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특구 제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활용한 지역 혁신 전략이 요구되며, 스마트도시(AI시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김해형 도시대전환 추진 필요

2) 산업·경제·일자리 부문 시사점

-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융합 전환과 생애주기별 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한 산업·고용 경쟁력 확보 필요**
 - 뿌리산업의 미래 고부가 첨단산업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국가 정책 방향임
 - 김해시는 기존 제조업 기반 위에 디지털·친환경·의생명·물류 등 신산업 융합 전략이 필요함
 - 고용정책의 핵심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임
 - 김해시는 청년취업 연계, 청년 주가·정착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 생애주기별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3) 문화·관광·복지 부문 시사점

- 가야역사문화 기반 문화관광도시 전략과 통합돌봄·다문화·청년 정주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필요**
 - K-컬처·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고유자원 활용 관광 육성, 약자부터 촘촘한 복지국가 구현이 국가 정책 방향임

- 김해시는 가야역사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한 문화관광도시 전략과 통합돌봄·다문화·청년 정주 등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 요구됨

4) 도시·교통·물류 부문 시사점

- ▣ **트라이포트 연계 물류허브·광역교통망 강화와 스마트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재편 전략 필요**
 - 부산·창원 도시기본계획에서 김해는 신산업혁신축 및 공항복합도시 성장축과 연계되는 접경연계거점으로 설정됨
 - 김해시는 트라이포트(신공항-신항-철도) 연계 물류허브,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연결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자율주행·UAM·친환경 모빌리티 정책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중심 도시공간 재편 전략 수립이 요구됨

5) 환경·안전·녹지 부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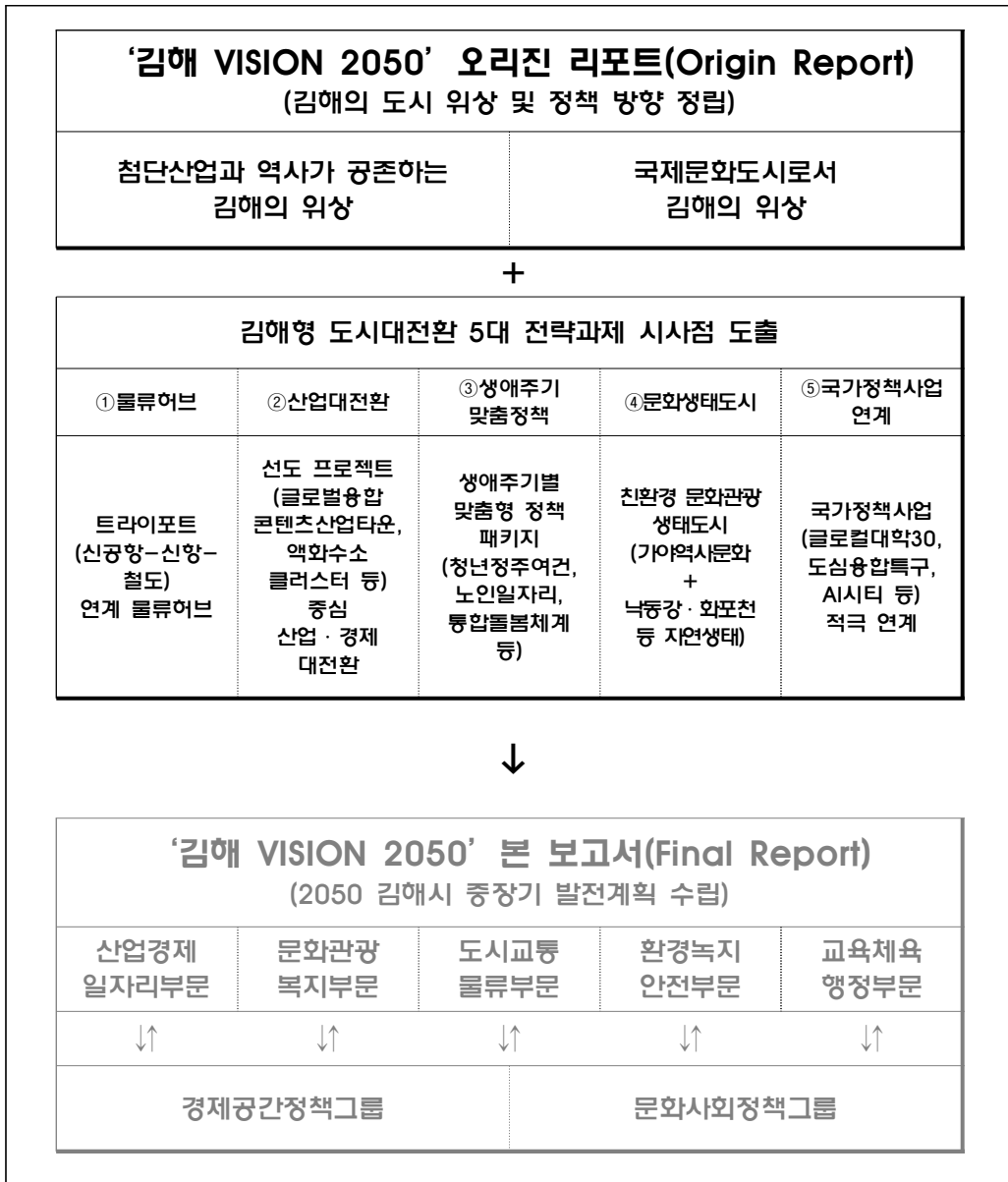
- ▣ **화포천 습지 보전·친환경 생태도시·기후변화 대응·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탄소중립·녹색순환경제, 물 통합관리,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가 국가 정책 핵심임
 - 김해시는 화포천 습지 보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6) 교육·체육·행정 부문 시사점

- ▣ **글로벌대학 연계 올시티캠퍼스·김해인재양성재단·평생학습도시·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
 - 평생학습사회 구현, 글로벌대학을 통한 지역-대학-산업 동반성장, 생활체육 활성화가 국가 정책 방향임
 - 김해시와 인제대 등은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연계한 올시티캠퍼스 전략,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 평생학습도시 고도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이 요구됨

7) 종합: '김해 VISION 2050'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 첨단산업·역사문화 국제도시 위상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제: ①물류허브·②산업대전환·③생애주기 맞춤정책·④문화생태도시·⑤국가정책사업 연계**
- 첫째, 김해시는 부울경 초광역권 및 동부경남 발전계획에서 ‘첨단산업과 역사가 공존하는 국제문화도시’로 위상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사업이 필요함
- 둘째, 트라이포트(신공항-신항-철도) 연계 물류허브, 액화수소 클러스터, 글로벌 융합 콘텐츠산업타운 등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대전환을 추진해야 함
- 셋째, 저출생·고령화·청년유출에 대응하여 청년 정주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가 요구됨
- 넷째, 가야역사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한 문화관광 전략, 낙동강·화포천 등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도시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다섯째, 글로벌대학30, 도심융합특구, 스마트도시(AI시티) 등 국가 정책사업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김해형 도시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그림 4-2) ‘김해 VISION 2050’ 수립 대비 전략적 시사점

V 김해 도시대전환 방향

1 | 도시대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1) 도시대전환의 개념

- 도시대전환(City Transformation):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
- 단순한 개발이나 성장이 아닌, 도시 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 시민 중심 성장(Citizen-Centered Growth)을 핵심 가치로 설정

2) 도시대전환의 필요성

- 기후변화기술혁신·인구변화가 도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두
-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의 전환과 뉴노멀 시대 대응 필요
- COVID-19 이후 도시의 회복력(urban resilience) 확보 필요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사회 구현
- 수도권 집중, 인구감소, 전통 제조업 쇠퇴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



(그림 5-1) '도시대전환' 개념 및 필요성

2 | 세계 주요 도시의 전환 사례 및 시사점

1) 도시대전환 1.0 (19세기)

- 산업혁명, 도시화, 인구 증가, 공중 보건의 필요성에 대응한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
 - 프랑스 파리: 오스만식 도시 개조 - 도시 미관과 위생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 다른 유럽 도시의 모델
 - 영국 런던: 하수도 시스템 개혁 - 도시화와 공중위생 문제 해결
 - 독일 함부르크: 항구와 도시 인프라 근대화 - 산업화와 도시 재구조화의 성공적 융합 사례
 - 성공 요인: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장기적인 도시 비전, 하수도 공학과 철도 등의 기술 혁신, 경제적 자원과 투자

2) 도시대전환 2.0 (20세기)

- 세계대전, 경제 불황,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한 대규모 재건과 도시 확장**
 - 독일 베를린: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시 재건, 냉전 분단과 통일 후 재개발
 - 포츠담 광장: 현대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
 - 일본 도쿄: 전후 재건과 1964년 올림픽을 계기로 고속도로, 신칸센 등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 베드타운 개발과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으로 세계 최대 도시권으로 성장

3) 도시대전환 2.5 (20세기 중반 이후)

- 산업화, 기술 발전, 교통 체증, 주택 문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지역들의 도시대전환**
 - 미국 뉴욕: 로버트 모세스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와 고속도로 건설, 1970년대 이후 타임스퀘어 재개발로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부활
 - 영국 런던 도크랜드: 1981년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 설립, 캐너리 워프 등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재탄생

- 브라질 브라질리아: 1960년 건설, 현대적 도시 구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미국 라스베이거스: 1931년 도박 합법화 이후 카지노 중심의 관광도시로 성장

4) 도시대전환 3.0 (21세기)

▣ 급격한 기술 발전,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인구 증가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

- 특징: 스마트도시 기술, 환경친화적 개발, 시민 참여를 통한 혁신적 변화 추구
- 데이터 기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도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기술과 가상화 기술이 선도
-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의 접목으로 가상공간에서도 도시의 다양한 계획 실행 가능
- 주요 사례
 - 싱가포르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 등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다양한 현장 업무에 적용
 - 핀란드 헬싱키 버추얼 헬싱키(Virtual Helsinki): 데이터 중심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 대한민국 서울: 디지털 대전환과 환경 복원
 -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 시티: 탄소중립 도시
 - 중국 상하이 푸둥: 첨단기술 허브로의 전환
 - 덴마크 코펜하겐: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 미국 보스턴: 도전을 극복하는 도시(2024)
 - 오스트리아 비엔나: 젠더(gender) 계획(2024)
 -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2020)
 -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Superblock) 계획(2016)

3 | 김해시 도시대전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 도시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성장으로
 -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과 성장
 -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기술의 활용과 확산
 -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추구
 - 핵심 가치: 시민 중심 성장(Citizen-Centered Growth)

2) 슬로건

- ▣ 대전환의 시작, 글로벌시티 김해
 - 2025년은 김해시 스마트도시 대전환의 원년: 시군통합(1995) 30주년
 - 2050년까지 중장기에 걸친 도시대전환 추진: 전국 15대 대도시로 급성장
 - 스마트도시(AI시티)의 선도도시로서 포지셔닝 필요
 - 똑똑한 도시(Smart City), 대한민국의 요충도시 김해, 동북아시아 물류허브 도시 김해 실현

3) 목표

- ▣ 시민 체감형 도시혁신·시민 성장 파급·회복탄력 도시기반 구축
 - 시민의 필요를 반영한 체감형 도시 혁신 추구
 - 김해 맞춤형 전략과 분야별 혁신을 통해 탄력적·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성장으로 파급
 - 5개 부문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 시민의 지식과 역량이 집단지성으로 활용·상호작용하는 혁신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 도시 김해를 위한 기반 구축
 - 도시 전반의 구조적 혁신 추진
 -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물류, 환경·안전·녹지, 교육·체육·행정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

4 | 핵심 전환 방향

1) 경제·산업·일자리 부문

(1) SWOT 분석

- 강점(S): 경남과 부산을 잇는 산업·교통의 거점,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낮은 고령화 수준, 전략산업 집적화 및 신규 고용 확대, 가야·역사문화 자원의 높은 활용 가능성 등
- 약점(W): 전통 제조업 중심의 낮은 생산성, 영세·중소기업의 R&D 투자 역량 부족,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고용 및 소비시장 축소, 산업·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 등
- 기회(O): 트라이포트(Tri-port)로 인한 물류·교통 인프라 확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창출,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 위협(T):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심화, 인근 도시와의 산업 유치 경쟁 심화, 산업전환에 따른 전통 제조업 축소와 고용 불안정성 증가 등

(2) 핵심 전환 방향

■ 물류허브·전략산업·역사문화·글로벌인재·로컬브랜드 5대 경제·산업·일자리 전환 방향

- 트라이포트(Tri-port)를 활용한 지역 내 물류 중심지 역할 강화
-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
- 가야·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 및 서비스업 활성화, 지역경제 다각화
-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한 김해 특화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 브랜드 개발

2) 문화·관광·복지 부문

(1) SWOT 분석

- 강점(S): 고대 가야의 수도라는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문화유산 보유, 낙동

강·하천·계곡·습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부산·창원 등 인접 대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 높은 보육예산 비중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약점(W):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관광 브랜드 부재, 관광목적지로서의 낮은 인지도,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부족, 복지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존재
- 기회(O): 국내외 목적형 관광수요 증가 및 관광 트렌드 다변화,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된 생태관광 및 친환경 개발 수요 증가, 첨단 기술(메타버스, AI)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가능
- 위협(T): 부산·거제·통영 등 인접 도시와의 관광자원 경쟁 심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정신건강·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증가

(2) 핵심 전환 방향

▣ 역사·생태관광·글로벌유치·양육친화·스마트돌봄 5대 문화·관광·복지 전환 방향

- 역사 및 자연 자원과 목적형 관광 트렌드를 연계하는 전략 수립
- 공항 및 대도시 근접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객 유치 전략
-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예산을 기반으로 양육 친화 환경 조성
-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돌봄 시티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로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 확보

3) 도시·교통·물류 부문

(1) SWOT 분석

- 강점(S):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및 혁신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대학과 연계한 산업혁신과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 외국인 인구 증가
- 약점(W):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성장 및 연계성 부족, 도심 내 경제·상업 활동을 위한 핵심 업무지구 및 거점 공간 미비, 도시·농촌·수변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부족

- 기회(O): 가덕도 신공항 및 부산·진해신항과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장, 5대 전략산업 육성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도시 성장 기대
- 위협(T): 인접 도시와의 인구·산업 유치 경쟁 심화, 노후화된 도시공간(산업단지, 원도심, 계획도시),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경관 저해

(2) 핵심 전환 방향

▣ 첨단미래도시·스마트물류·광역네트워크·농촌혁신·균형발전 5대 지역균형발전 전환 방향

- 첨단 미래도시: 지식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 도시 인프라 및 혁신적 공간 설계를 통해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미래도시로 도약
- 글로벌 스마트 물류도시: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을 연계해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첨단 물류 중심지로 성장
- 동남권 네트워크 요충지: 김해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적·물적 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남권 광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 스마트 농촌공간 혁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스마트화하고, 첨단 농업과 친환경 생태관광이 결합된 혁신적인 농촌-도시 통합 모델 구축
-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원도심 재생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기능 회복, 신도시와의 교통 및 문화적 연계 강화

4) 환경·안전·녹지 부문

(1) SWOT 분석

- 강점(S):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화포천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완충지대 보유, 국립김해숲체원 건설을 통한 생태인프라 기반 확보, IoT 기반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 약점(W): 산업단지 등 공업지 인근 미세먼지 농도 높음,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 압력, 노후화된 하천시설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수재해 취약, 취약계층 대상 기후적응대

응 대책 미흡

- 기회(O):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지원 확대, 화포천 습지 1ha당 연간 5톤 CO₂ 크레딧 상품화 가능,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발전으로 신산업 성장, 업사이클링 등 순환경제 모델 도입
- 위협(T): 극단 기후의 가속화로 폭염·한파 일수 증가, 주요 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농업 피해 확대,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부족

(2) 핵심 전환 방향

■ 탄소크레딧·신환경산업·태양광·그린네트워크·안전도시·도시회복력 6대 환경·안전·녹지 전환 방향

- 화포천 습지의 CO₂ 흡수능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탄소크레딧화 사업 추진
- 스마트기술 접목한 수질·약취 관리 최적화로 신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 유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녹지 축 확대 및 바람길 조성 등 도시 내 그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도시열섬효과 완화
- 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 그린인프라 확대를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

5) 교육·체육·행정 부문

(1) SWOT 분석

- 강점(S): 글로벌대학30 선정(인제대 등)으로 지역-대학-산업 연계 기반 확보, 김해인재양성재단 출범 계획으로 지역 인재 육성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교육 인프라 보유, 2024년 양대 체전 성공 개최로 체육 인프라 및 운영 역량 확보
- 약점(W): 수도권 대비 교육 인프라 및 교육여건 격차 존재, 청년층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인재 확보 어려움, 생활체육시설의 지역별 편차 및 노후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미흡
- 기회(O):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부의 지역 인재 양성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 정책 추진, 생활

체육 활성화 및 K-스포츠 성장에 따른 체육산업 확대,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회

- 위협(T):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내 학교 통폐합 가능성, 인접 도시와의 교육·체육 인프라 유치 경쟁 심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 급증 및 재정 부담 가속,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혁신 압력 증가

(2) 핵심 전환 방향

▣ **울시티캠퍼스·인재양성재단·평생학습·생활체육·스마트행정 5대 교육·체육·행정 전환 방향**

- 글로컬대학30 사업과 RISE 정책을 연계한 '울시티캠퍼스' 기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중심으로 산학관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 AI·디지털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양대 체전 성공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한 비대면·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 향상

5 | '김해 비전 2050' 본 보고서를 위한 제언

1) 연구 방향

- ▣ 오리진 리포트(Origin Report) 기반 본 보고서(Final Report) 추진
 - 본 오리진 리포트에서 도출된 도시구조 진단, 시민 의견, 관련계획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본 보고서 추진
 - 5개 부문(경제·산업·일자리,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물류, 환경·안전·녹지, 교육·체육·행정)별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시민 체감형 정책 패키지 개발을 통한 실효성 있는 비전 수립
 - 글로벌대학30, 도심융합특구, AI시티 등 국가 정책사업과의 연계 전략 구체화

2) 핵심 추진 과제

- ▣ 물류허브·인재양성·문화관광·균형발전·탄소중립·삶의질 6대 핵심 추진과제
 - 트라이포트 연계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과 전략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회복력 강화
 - 글로벌대학·RISE·김해인재양성재단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가야역사문화 자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확립
 - 원도심-신도시 균형발전과 스마트 농촌공간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 탄소중립·그린 인프라 확대와 재난대응 통합관제를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 AI 및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행정서비스 혁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3) 추진체계

- ▣ 거버넌스·시민참여·실행체계·광역연계·국책사업 기반 추진체계 구축
 -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시민 참여형 비전 수립 프로세스 도입

- 단계별 실행계획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광역권(부울경) 연계 협력 강화
- 국가 정책사업 연계 전략 구체화

4) 기대 효과

▣ '글로벌시티 김해' 실현을 통한 5대 도시상

- 작지만 강한 '글로벌시티 김해' 브랜드 확립
- AI시티 등 스마트도시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도시 기반 구축
- 시민 체감형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제고
- 청년·신중년 등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 확립

부록 1 김해 공간 및 인구 분석

1 | 공간구조 분석

1) 김해시 도시공간

(1)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심화

- 비도시지역의 점진적 개별공장 입지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주변 주거지역에의 악영향 초래

▣ 장유 및 진영지역으로 지속적 인구 유입

- 장유 및 진영지역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주거기능 강화 필요

▣ 개발가능지 부족으로 인한 공간구조 불균형

- 비도시지역의 경우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과다 지정되고 산지 과다 분포에 따른 표고 및 경사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으로 개발가능지가 상대적으로 부족

(2) 도시공간구조의 설정

가) 기본방향

▣ 도시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

-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토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간 구조를 형성

▣ 지속성장 가능한 공간구조 설정

- 기존 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구조 설정 필요

▣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활력 제고

-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구조를 검토하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

색하고 도시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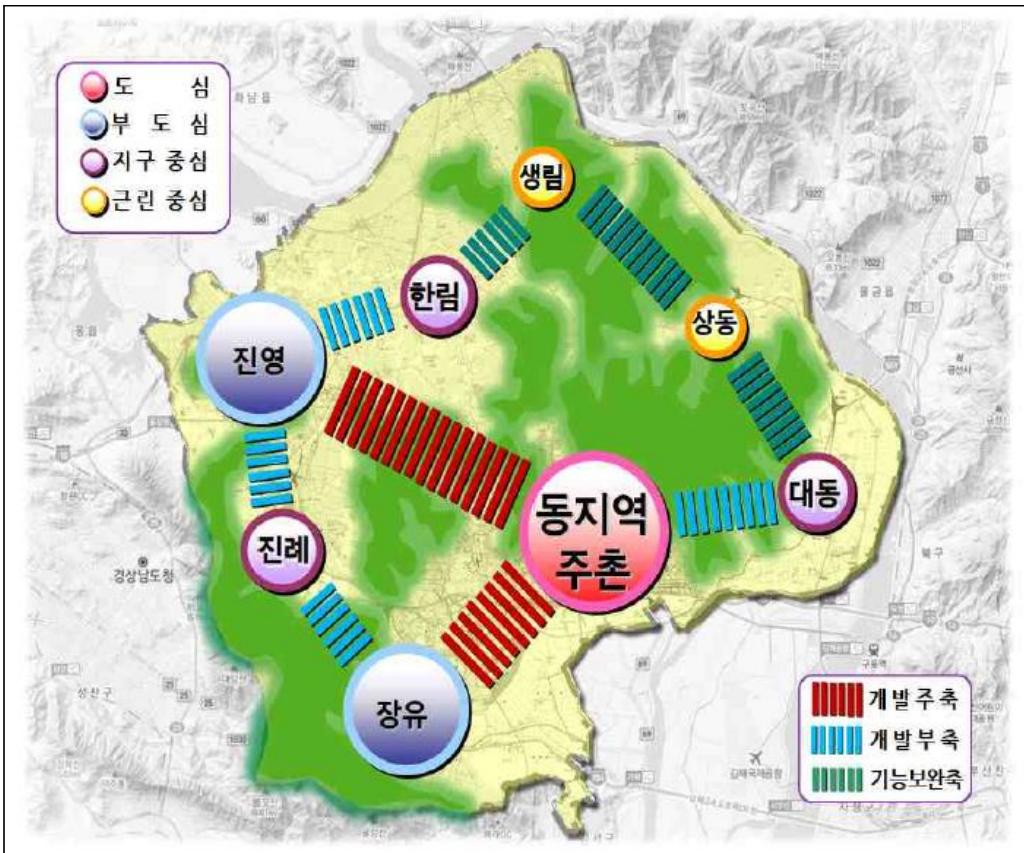
▣ 인접 도시와의 공간구조 연계

- 인접한 부산시, 창원시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및 개발축 등을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

나) 공간구조 설정

▣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 2근린중심

- 기존 시가지 중심성 강화를 위해 동지역과 주촌에 도심 기능 부여
- 도심의 기능 보완과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경제 등 흡수를 위해 장유 및 진영에 부도심 기능
- 도심 및 부도심에 대한 일부 기능 지원과 주변 배후지역의 지구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진례, 한림, 대동에 지구 중심 기능 부여
- 지구 중심의 기능 보완과 근린주거 범위의 기능을 수행하고 보전 및 정비 위주의 역할을 위해 생림, 상동에 근린중심 기능 부여
- 기존 대각선 중심의 도시발전축을 유지하면서 지역간 연담화될 수 있는 개발축을 설정하여 동서간, 남북간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각 지역 생활권의 기능은 개발축과 녹지축,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위계로 구상해 도시발전의 효율성 제고



(그림 부록1-1) 김해시 도시공간구조

다) 생활권 설정

▣ 1대생활권 4중생활권

- 김해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설정
- 개발형태 및 유사기능의 생활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 자연, 인문환경, 생활환경, 지역여건 및 향후 개발방향 등을 고려

<표 부록1-1> 생활권 설정방법 및 기준

구분	심의 항목	권장 기준
규모의 경제성	상호연계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높아질 수 있는 규모를 바탕으로 설정	면적, 인구, 자원, 사회간접자본, 재정 등
기능적 연계성	지역간 연계성이 강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설정	물품구입, 서비스시설이용, 교통·정보흐름, 행정제도 등의 연계성
공간적 통일성	지리적 측면 및 사회·문화·역사·경제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기반이 있는 지역들을 통합하여 설정	지형, 지세, 소득, 인구구조, 문화, 역사적 전통, 행정체계 등의 동질성
지역성장 방향	지역간 개발정도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여건을 중심으로 향후 도시성장방향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설정	개발정도, 사회간접자본시설, 도시성장축 등

자료) 김해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표 부록1-2> 김해시 생활권 설정

구분	행정구역	생활권 구분도	
권역생활권	김해시 전체		
연계 생활권	중부		주촌면, 기존 동지역
	남부		장유 1, 2, 3동
	서부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동부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자료) 김해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표 부록1-3> 생활권별 인구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계	547,387	547,854	550,758	552,360	561,468	559,242	553,719	553,040	555,084	556,403	0.2%
중부	313,986	312,102	307,944	306,223	306,024	301,761	297,402	297,319	297,167	296,269	-0.6%
남부	146,177	147,040	151,081	153,104	162,235	166,377	167,297	167,239	169,287	171,777	1.8%
서부	69,747	71,521	75,130	76,935	77,684	76,282	74,921	74,556	74,866	74,603	0.8%
동부	17,477	17,191	16,603	16,098	15,525	14,822	14,099	13,926	13,764	13,754	-2.6%

자료) 2022년까지 : 김해시, 통계연보 각 년도, 2023년이후 : 김해시, 공공데이터 플랫폼 주민등록 인구통계
상기자료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미포함

<표 부록1-4> 생활권별 토지이용 현황

구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계	463.53	17.21	67.51	4.54	1.41	231.09	27.20	23.66	2.54
중부	94.82	2.30	16.98	0.17	0.12	36.81	12.06	5.64	1.61
남부	55.22	1.18	4.38	0.71	0.05	30.78	5.78	0.96	0.50
서부	143.99	8.24	27.67	2.97	0.72	57.78	6.27	12.48	0.31
동부	169.51	5.49	18.48	0.69	0.52	105.72	3.10	4.57	0.12

(단위:km²)

구분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계	0.54	0.28	0.97	29.95	1.48	1.97	25.52	10.12	1.56
중부	0.20	0.09	0.18	8.67	0.11	0.32	1.90	2.54	0.36
남부	0.11	0.04	0.03	6.07	0.23	0.19	0.90	0.76	0.05
서부	0.15	0.09	0.33	8.23	0.99	0.80	6.66	3.85	0.93
동부	0.08	0.05	0.42	6.98	0.16	0.66	16.06	2.97	0.22

(단위:km²)

구분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계	0.03	1.14	2.92	2.61	1.04	0.43	0.19	2.61	5.01
중부	-	0.19	1.05	0.86	0.33	0.14	0.19	1.22	0.79
남부	0.00	0.06	1.32	0.08	0.59	0.06	-	0.13	0.25
서부	0.01	0.28	0.53	0.78	0.03	0.08	-	0.74	3.06
동부	0.01	0.62	0.01	0.90	0.09	0.14	-	0.52	0.91

자료) 김해시, 2023년 통계연보

(단위:km²)

2) 인접지역 도시공간

(1) 부산광역시 도시공간

▣ 10-Core + 4대 혁신성장축 + 5개 연계거점

- 10-Core: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 중심지 체계 상 도심·부도심 등의 위계를 배제하고 성장거점이자 도시발전의 핵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 위계 10개의 중심지
- 4대 혁신축
 - 관광마이스축: 국제교류 및 MICE 관련, 영상, 문화, 의료, 휴양, 관광 기능 연계
 - 국제업무경제축: 글로벌 금융, 금융기관이전, 행정중심기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언론 연계
 - 신산업혁신축: 신교통 관련산업, 지식산업, R&D, 소재 및 부품산업 연계
 - 공항복합도시축: 유통산업, 물류기반 및 허브, 비즈니스, 항공산업, 복합기능 연계
- 5개 연계거점
 - 울산접경연계: 관광마이스거점축의 특화기능을 장안연계거점의 신산업과 연계하여 울산지역으로 확산
 - 양산접경연계: 국제업무경제혁신축의 성장동력을 노포연계거점 특화와 연계하여 양산지역으로 확산
 - 김해접경연계: 강동권의 신산업혁신축과 대저연계거점의 주거기능을 연계하여 김해지역으로 확산
 - 신공항연계: 글로벌 중심성과 신성장산업 기능을 동삼연계거점과 다대연계거점에 확산, 가덕도신공항 연계
 - 창원연계거점: 공항복합도시성장축의 발전방향을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과 주변 도시로 확산



(그림 부록1-2)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구조

(2) 창원특례시 도시공간

▣ 1광역도심+1도심 / 1전략부도심+1부도심 / 4지역중심

○ 1광역도심: 창원 및 마산 기존시가지 중심

- 행정·경제·산업 중심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상호지원을 통해 도심권 집중 및 성장체계 확립
- 입지 및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기능을 집적한 성장거점전략으로 주변지역 파급효과 기대

○ 1도심: 진해 기존시가지 중심

- 개발제한구역, 산지 등 입지적 여건의 한계에 따라 광역도심과 분리하여 별도의 도심으로 설정
- 근대문화 및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능 강화, 여좌지구 개발 등 연구기능 유치로 연구·문화·관광거점 역할 부여

○ 1전략부도심: 웅동지역

- 진해신항 입지에 따른 항만기능의 강화로 광역거점 역할 수행 및 배후단지 조성 등 주변 지원체계 구축으로 중심기능 확보
- 동북아 물류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

○ 1부도심: 북면지역

-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다수의 개발사업 시행 및 창원산업선 연계 등 도심과의 연계성 강화 및 도시발전축 구축으로 성장동력 확보

○ 4지역중심: 대산, 내서, 삼진, 구산 일원

- 대산: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도록 하며, 친환경 농업, 산업기능을 유치하고 주거기능 등을 강화
- 내서: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을 유지·정비하되 산악지형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선도로망 등 주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적 소규모 개발을 도모
- 삼진: 개발가능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점을 이용해 주거·상업·산업·관광 등 신규도시 기능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구산, 거제와 연계
- 구산: 해양·육상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창원시의 관광거점으로서 지역

을 특화하고 이를 거제와 연계하여 상생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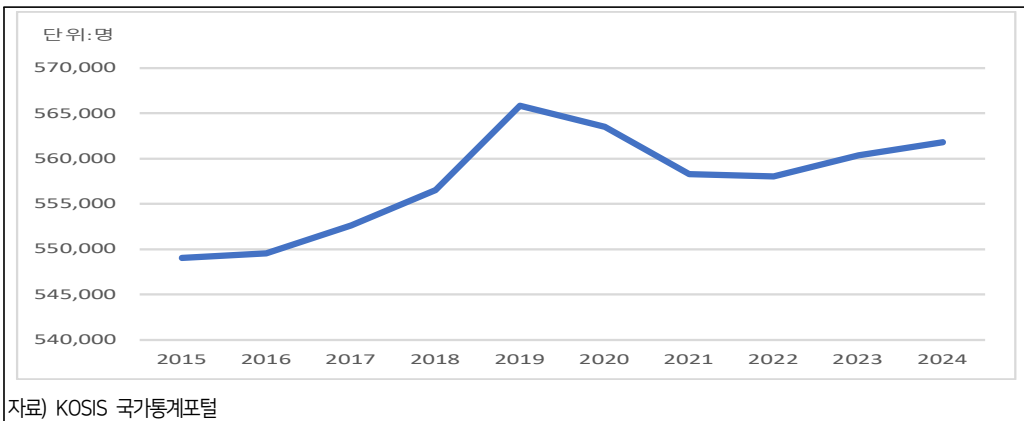
(그림 부록1-3) 창원특례시 도시공간구조

2 | 인구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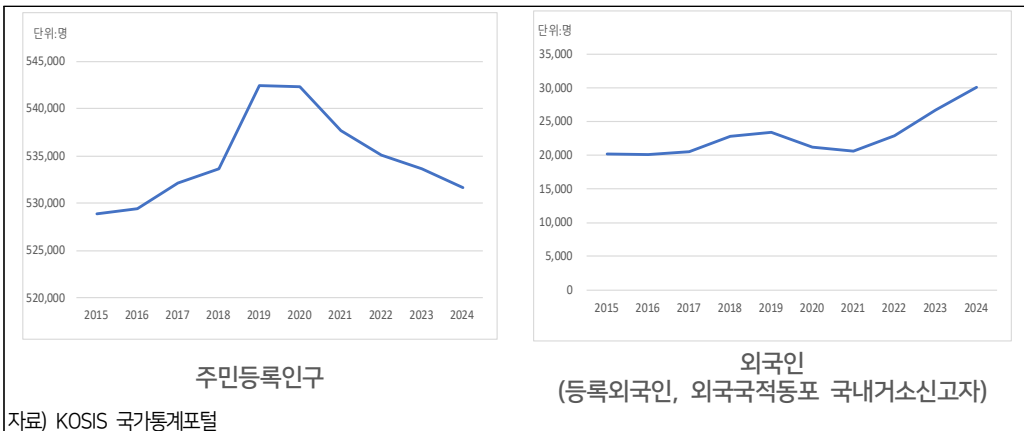
1) 김해시 인구 현황 및 구조

(1) 인구 현황

- ▣ 김해시 총인구¹⁾는 2019년이 정점, 최근 외국인 증가폭이 큼
- 2024년 기준 총인구는 56.1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53.1만명), 등록외국인(2.5만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0.5만명)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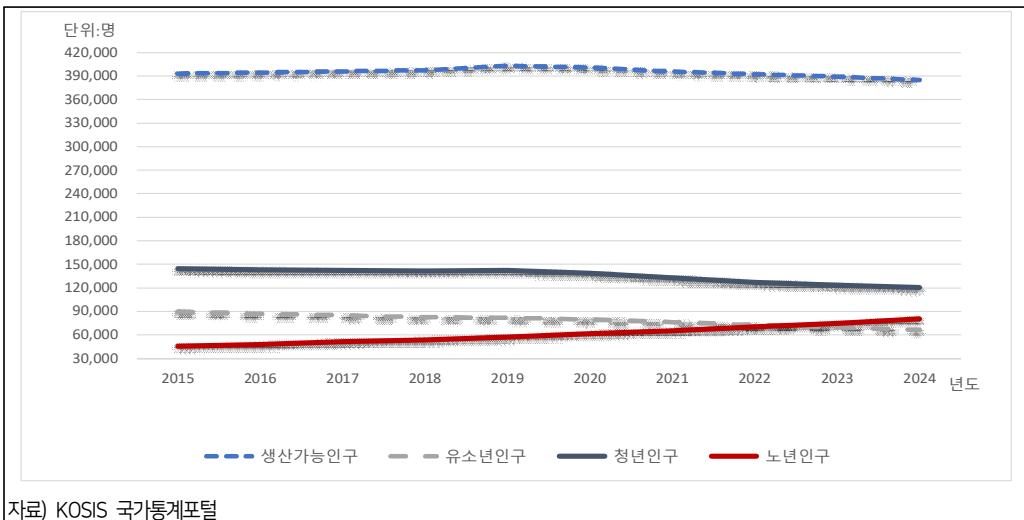
(그림 부록1-5) 김해시 총인구(2015~2024년)



(그림 부록1-6) 김해시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 추세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 2025년 1월 (2024년 12월기준 통계)부터 총인구수는 내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

- 남자(50.6%)와 여자(49.4%) 성별 비중은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2.4%를 차지함
- 연령별 분포는 유소년(0~14세) 12.5%, 청년(20~39세) 22.6%, 중장년(40~64세) 44.3%, 노년(65세 이상) 14.2%로 구성됨
- 외국인은 총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등록외국인은 4.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1%의 비중을 차지함
- 김해시 인구 분포 변화는 10년 전 대비 노년 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함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84,902명으로 2.3%(8,964명) 감소하였고, 이중 청년인구(20~39세)는 120,312명으로 16.8%(24,253명) 감소함
 - 유소년 인구수(0~14세)는 66,448명으로 26.0%(23,465명) 감소하였으나, 노년 인구(65세 이상)는 80,326명으로 75%(34,430명) 증가함
- 총인구 대비 노년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0년 전 대비 6.1%p 증가함
 -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²⁾로 진입함



(그림 부록1-7) 김해시 인구분포 변화(2015~2024년)

2) 국제연합(UN)의 기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함

(2) 인구구조 특징

▣ 김해시 총인구 증가는 외국인이 늘어나기 때문임

- 2024년 기준 561,806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2.6% 증가함
 - 총인구 증가는 등록외국인 증가(33.5%)에 기인한 것으로 주민등록인구는 0.5% 증가에 그침
 - 또한 2024년 말 기준 총인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인구수에 5,403명이 추가됨
-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2015년 1.495명에서 2023년 0.838명으로 약 43% 감소함
 - 출생아 수는 5,182명에서 2,513명으로 51.5% 감소함
-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2015년 423.5명에서 2023년 575.3명으로 약 35.8% 증가함
 - 총사망자 수는 2015년 2,223명에서 2023년 3,066명으로 37.9% 증가함
- 순이동률(전입률-전출률)은 2015년 -0.2%에서 2024년 -0.3%로 전입자 수 대비 전출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29세 청년의 순이동률은 평균 -2.5%를 나타내며, 전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인구는 합계출산율 감소, 사망률 증가, 전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등록외국인은 증가세를 나타냄

2) 김해시 인구 전망

(1) 인구추계

가) 범위 및 방법

▣ 인구추계 범위와 대상

- 시간적 범위: 2025~2050년
- 공간적 범위: 김해시
- 분석 대상: 김해시 인구(내국인 및 등록외국인 포함)



(그림 부록1-8) 김해시 공간적 범위

▣ 인구추계 방법

-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s)³⁾은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미래 수준을 예측, 기준 인구에 출생아 수와 순이동(전입-전출)은 합산하고, 사망자 수는 차감하는 방법으로 추계 목표연도까지 반복 산출하는 방법

* 인구균형방정식

$$P_t = P_{t-1} + B_{t-1} - D_{t-1} + NM_{t-1}$$

P_t : t년 인구, B_{t-1} : t-1년 출생아수, D_{t-1} : t-1년 사망자수,
 NM_{t-1} : t-1년 국내 및 국제 순이동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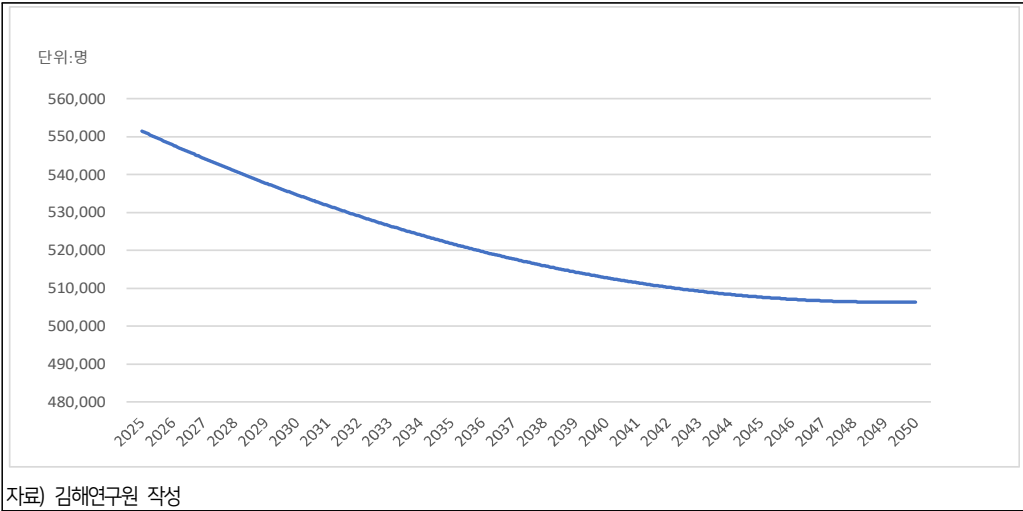
- 인구추계 기준 인구는 통계청 2024년도 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포함, 국내거소신고자 제외)로 분석

3) 통계청 인구추계방법으로 코호트 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s)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 장래 총인구 추계

▣ 김해시 인구추계 결과, 2050년 총인구⁴⁾는 506,618명으로 전망

- 2024년 대비 총인구는 8.9%(49,785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는 각각 12.7%(249,729명), 4.6%(256,889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부록1-9)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 김해시 인구 산정 기준⁵⁾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시 2050년 추계인구는 6,000~10,000명의 증가가 예상

- 김해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2020년 4,309명(남자 2,359명, 여자 1,950명)에서 2024년 5,403명(남자 2,837명, 여자 2,566명)으로 약 25.3% 증가함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최근 5년 평균 4,913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세부 통계의 한계로 인해 총인구 추계 분석에서는 제외함

4) 인구추계 분석데이터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년도 기준(등록외국인 포함,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제외), 인구균형방정식 적용 데이터 한계로 인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제외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근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5,403명)를 포함(2025.1 시행)

<표 부록1-5>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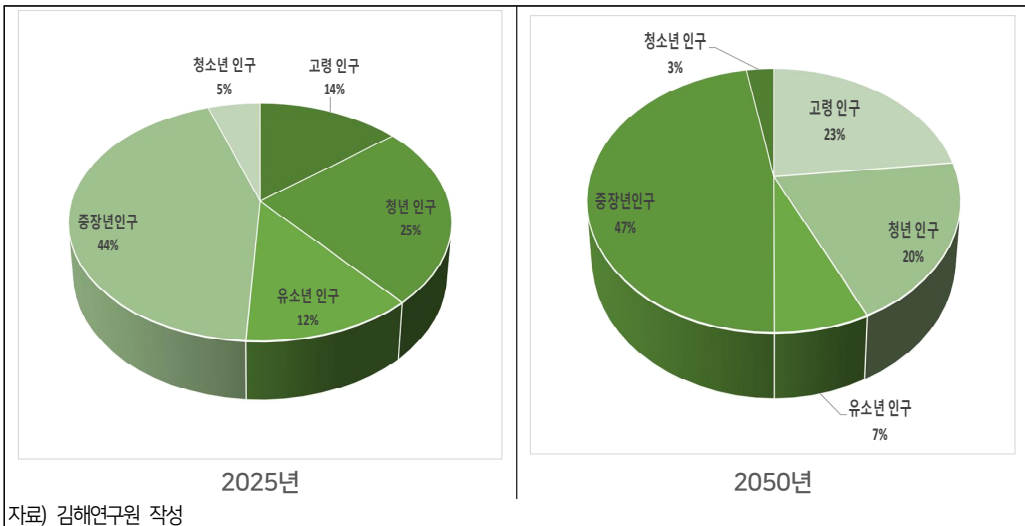
연도	총인구수 (명)	남자 인구수 (명)	여자 인구수 (명)
2025	551,422	283,894	267,527
2026	547,785	281,859	265,926
2027	544,304	279,886	264,418
2028	540,976	277,974	263,002
2029	537,801	276,122	261,679
2030	534,778	274,330	260,448
2031	531,905	272,596	259,310
2032	529,183	270,918	258,264
2033	526,609	269,297	257,312
2034	524,186	267,731	256,454
2035	521,912	266,220	255,692
2036	519,787	264,762	255,025
2037	517,814	263,358	254,456
2038	515,991	262,005	253,986
2039	514,321	260,705	253,616
2040	512,804	259,456	253,348
2041	511,443	258,257	253,186
2042	510,239	257,109	253,129
2043	509,195	256,012	253,183
2044	508,312	254,964	253,348
2045	507,596	253,967	253,629
2046	507,047	253,019	254,028
2047	506,671	252,121	254,550
2048	506,471	251,274	255,197
2049	506,452	250,476	255,975
2050	506,618	249,729	256,889

자료) 김해연구원 작성

(2)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유소년인구·청년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5년 405,265명에서 2050년 353,638명으로 약 1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5년 73.5%에서 2050년 69.8%로 예상됨
- 유소년인구(15세 미만)는 2025년 67,600명에서 2050년 35,041명으로 약 4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유소년인구 비중은 2025년 12.2%에서 2050년 6.9%로 예상됨
- 청년인구(20~39세)는 2025년 135,049명에서 2050년 100,134명으로 약 2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청년인구 비중은 2025년 24.5%에서 2050년 19.8%로 예상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78,557명에서 2050년 117,939명으로 약 5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14.2%에서 2050년 23.3%로 예상됨⁶⁾



(그림 부록1-10) 김해시 장래 인구추계(2025~2050년)

6) 2043년부터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이 예상됨

부록 2 김해시민 설문조사

1 |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1) 표본설계

- 조사대상: 김해시민, 직장근무자가 김해시에 있는 근로자 및 학생 등
- 표본추출방법: 임의표본추출법
- 조사내용
 - 김해시의 미래상과 도시발전
 - 도로·교통 분야
 - 산업·경제 분야
 - 문화·관광 분야
 - 보건·복지 분야
 - 환경·경관 분야
 - 교육·체육 분야
 - 재난·안전 분야

(2) 자료수집 방법

- 자료수집도구: 조사목적에 맞게 제작된 구조화된 설문
- 조사방법: 1 대 1 직접대면조사
- 조사지역 : 김해시 전역
- 조사기간: 2024년 11월 14일 ~ 12월 01일
- 조사표본: 1,500부
- 신뢰수준: 95%
- 표본오차: $\pm 2.5\%p$

2) 조사표본 및 분석방법

(1) 조사표본

- 1차 검증과 에디팅 과정을 거쳐 오류의 보완 및 자료 폐기 반복 수행
- 최종적으로 유효한 설문지 1,500부를 본 분석에 활용

<표 부록2-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729	48.6
	여성	771	51.4
연령	20대	198	13.2
	30대	222	14.8
	40대	313	20.9
	50대	365	24.3
	60대 이상	402	26.8
	합계		
직업	회사원	275	18.3
	주부	222	14.8
	자영업자	477	31.8
	판매, 서비스직	120	8.0
	농어업	26	1.7
	공무원, 군인	111	7.4
	전문직	29	1.9
	기업인, 경영직	4	0.3
	학생	105	7.0
	기타	131	8.7
	거주기간 또는 근무기간	1년 미만	108
1년~5년		323	21.5
6년~10년		258	17.2
10년 초과		811	54.1
합계		1,500	100.0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Punching-Cleaning 과정으로 처리 및 검토
- 확인, 검증을 거친 설문자료에 대해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의 통계분석 실시

2 | 설문조사 결과분석

1) 김해시 미래상과 도시발전

▣ 향후 변화될 김해시 생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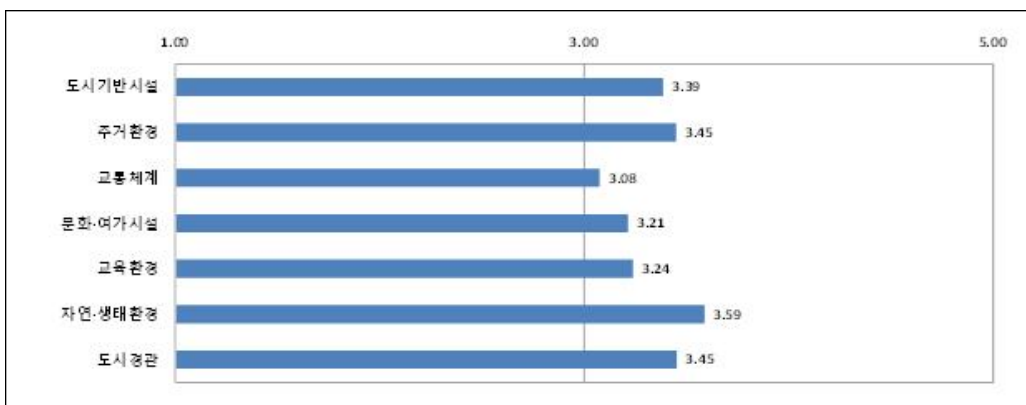
- 긍정적 응답(매우 좋아짐 + 좋아짐)이 53.2%로 부정적 응답(매우 나빠짐 + 나빠짐)의 10.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김해시 생활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2-1) 향후 변화될 김해시 생활여건

▣ 김해시 현재 도시발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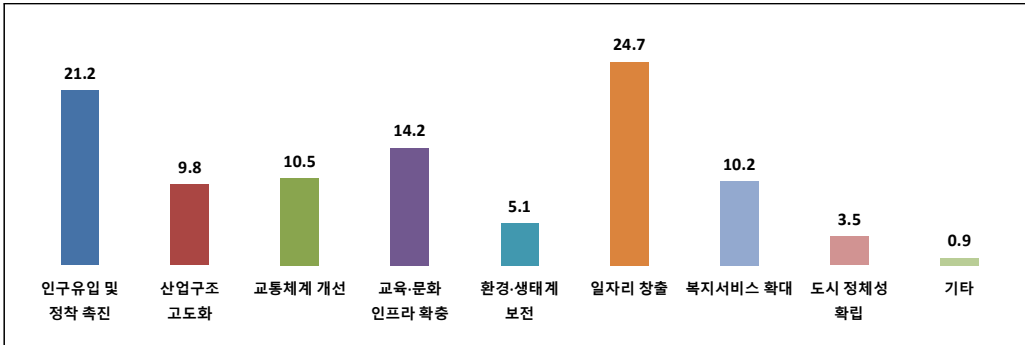
- 5점 척도로 보면, 자연·생태환경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각각 3.45점, 도시기반시설이 3.39점, 교육환경이 3.24점, 문화·여가시설이 3.21점, 교통체계가 3.0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생태환경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림 부록2-2) 김해시 현재 도시발전 수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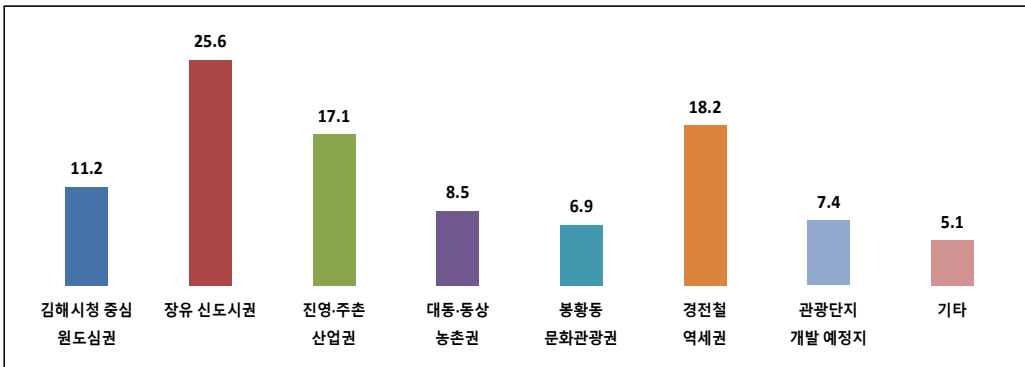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유입 및 정착 촉진'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와 인구 확보가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그림 부록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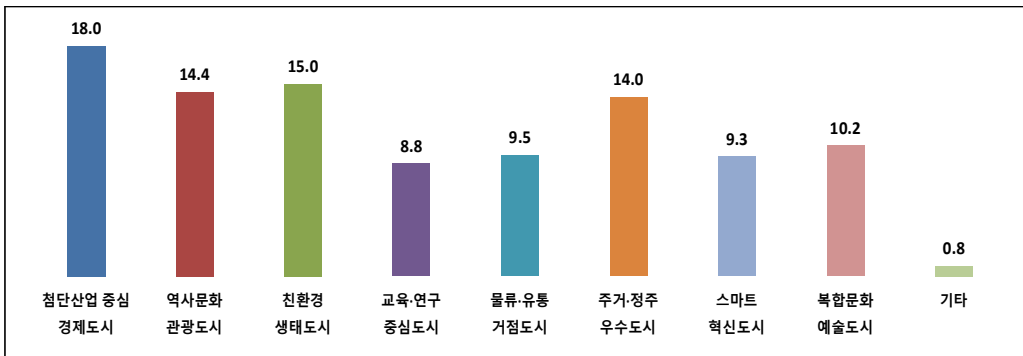
- '장유 신도시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김해시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향후 인구 유입과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장소로 판단됨
- 진영읍과 주촌면, 한림면은 '진영·주촌 산업권'이 가장 높았고, 진례면과 생림면,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은 '경전철 역세권', 상동면과 활천동, 삼안동은 '김해시청 중심 원도심권', 대동면과 동상동, 부원동은 '대동·동상 농촌권', 회현동은 '봉황동 문화관광권', 칠산서부동과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은 '장유 신도시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4)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권역

□ 205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높은 도시개발 방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김해시는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주거·정주 우수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 50대는 ‘첨단산업 중심 경제도시’, 60대 이상은 ‘친환경 생태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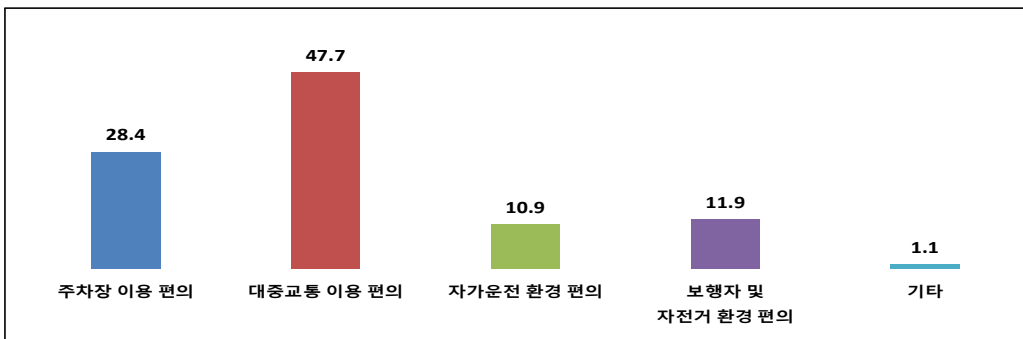


(그림 부록2-5) 2050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

2) 도로·교통 분야

□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통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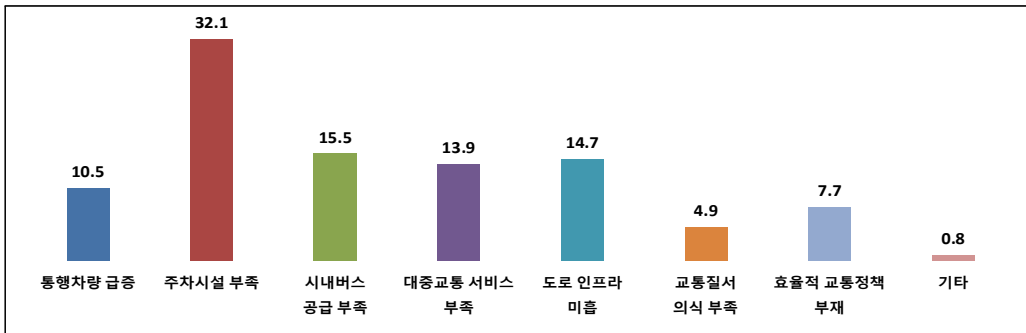
-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 개선 및 확충이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주차장 이용 편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그림 부록2-6)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통정책

□ 김해시 교통문제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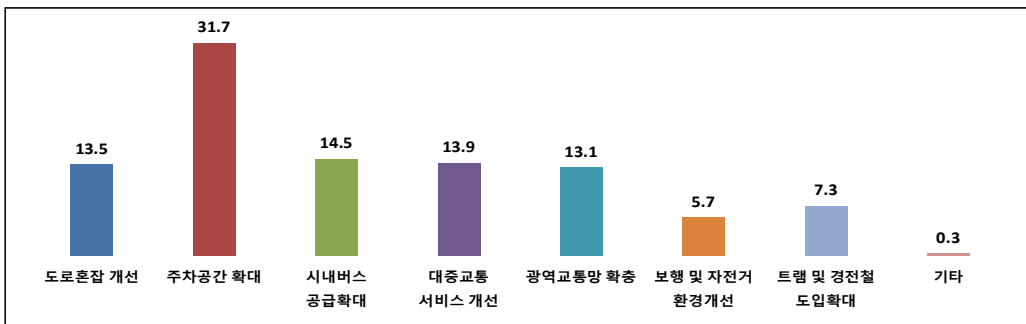
- '주차시설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버스 공급 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김해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시설 확대 및 시내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진례면은 '시내버스 공급 부족'이 가장 높았고, 대동면은 '통행차량 급증', 동상동은 '도로 인프라 미흡', 회현동은 '주차시설 부족'과 '도로 인프라 미흡', 그 외 지역에서는 '주차시설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7) 김해시 교통문제 원인

□ 교통편의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교통문제의 원인에 대한 개선 사항인 '주차공간 확대'와 '시내버스 공급 확대'가 높게 도출됨
- 주촌면과 대동면은 '도로혼잡 개선'이 가장 높았고, 진례면은 '시내버스 공급 확대', 상동면은 '주차공간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동상동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광역교통망 확충', 그 외 지역에서는 '주차공간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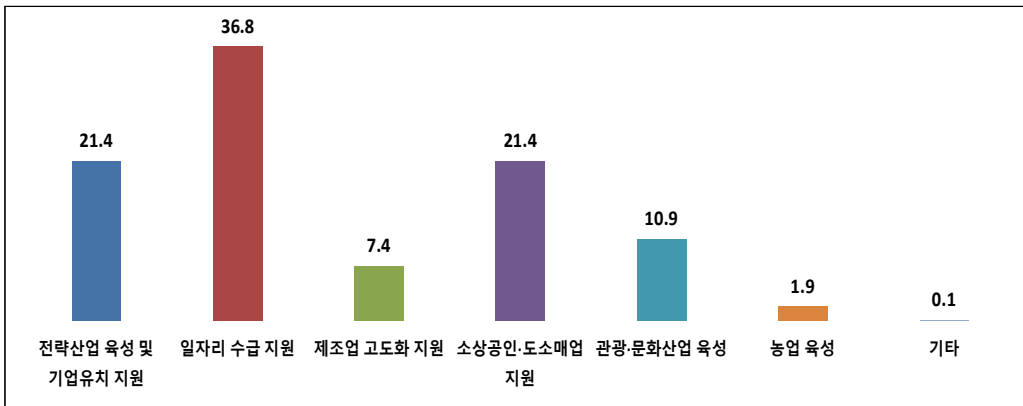


(그림 부록2-8) 교통편의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3) 산업·경제 분야

□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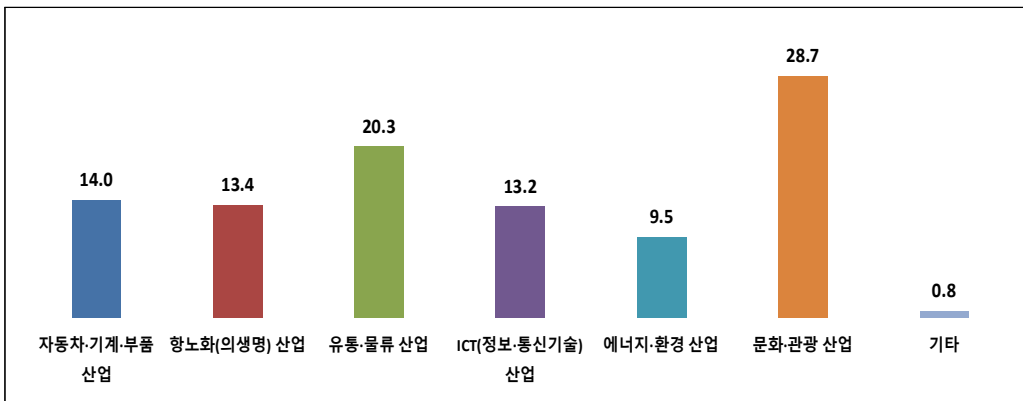
- ‘일자리 수급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경제발전 과제를 판단되며, 그 다음으로 ‘전략산업 및 기업유치 지원’과 ‘소상공인·도소매업 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그림 부록2-9)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중점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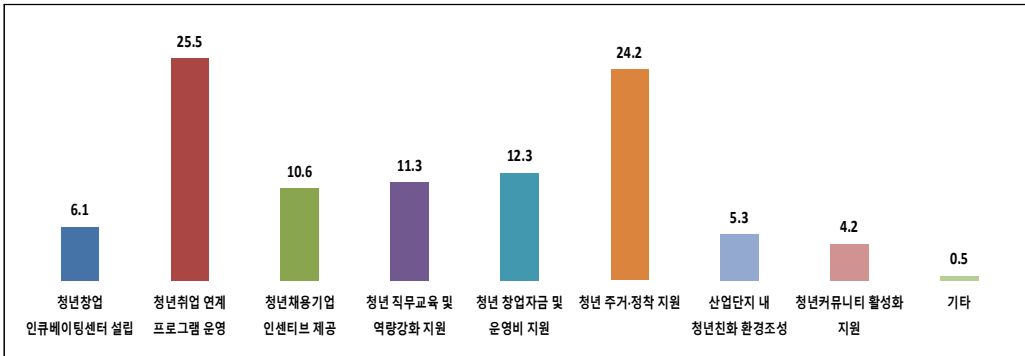
- ‘문화·관광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유통·물류 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김해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2-10) 중점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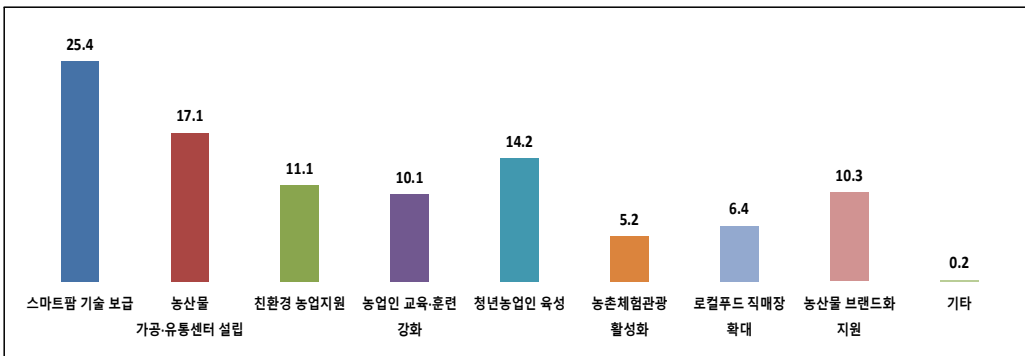
- '청년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높아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다음으로는 '청년 주거·정착 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와 함께 주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그림 부록2-1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기술 향상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팜 기술 보급'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설립'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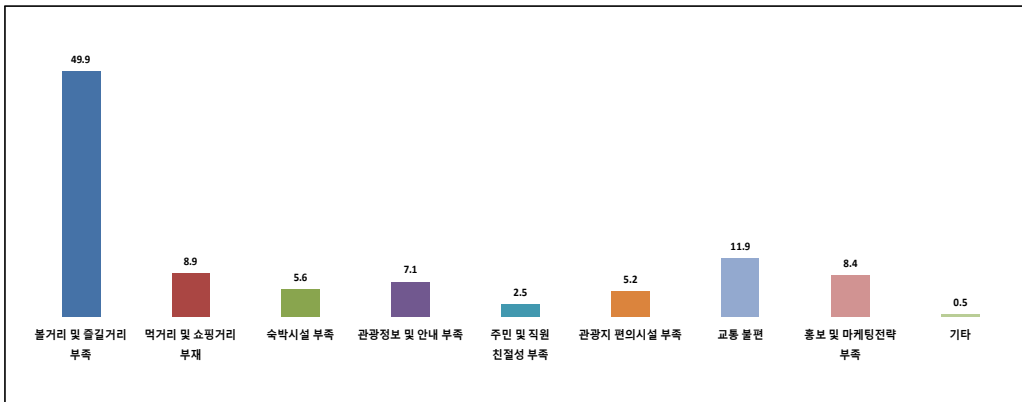


(그림 부록2-12)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4) 문화·관광 분야

▣ 관광객 유인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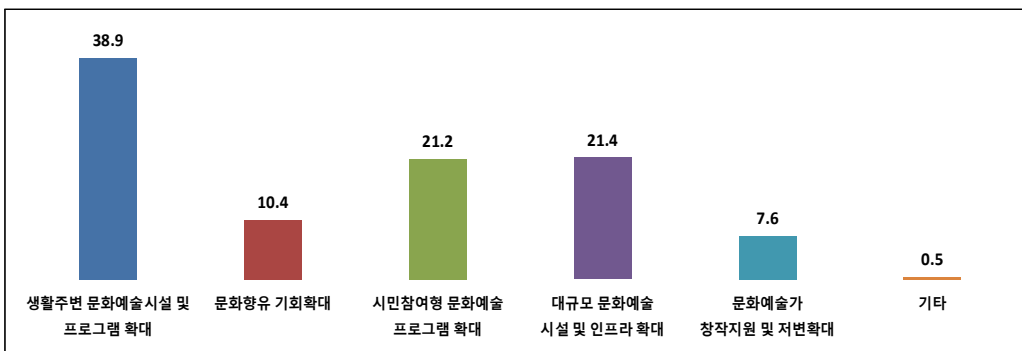
- ‘볼거리 및 즐길거리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요소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부록2-13) 관광객 유인의 장애요인

▣ 문화예술도시 도약을 위한 중점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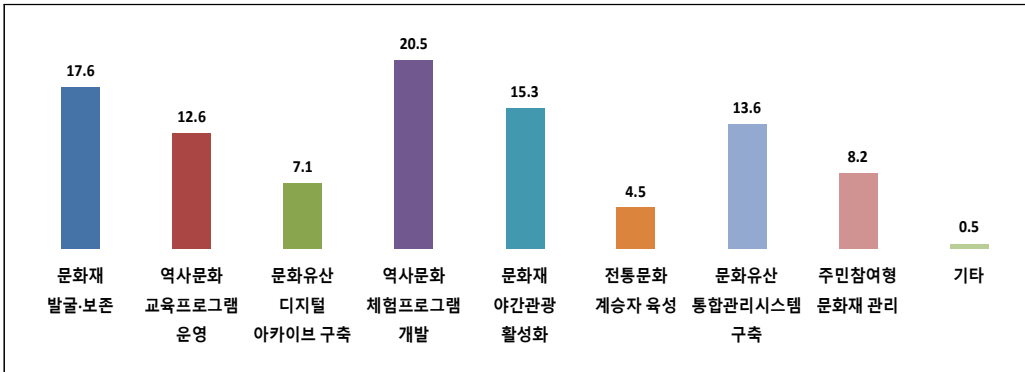
- ‘생활주변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함
- 한림면은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높았고, 회현동과 부원동은 ‘대규모 문화예술 시설 및 인프라 확대’, 그 외 지역에서는 ‘생활주변 문화예술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14) 문화예술도시 도약을 위한 중점 요소

□ 지역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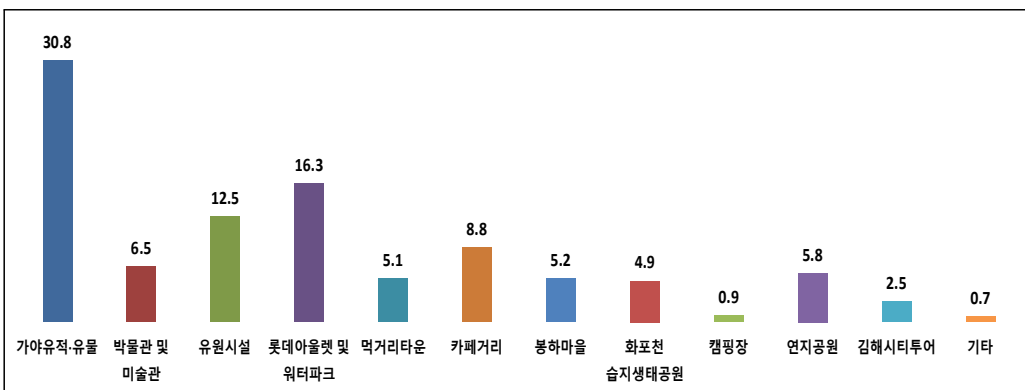
-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보존과 활용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대와 30대는 '문화재 야간관광 활성화', 40대와 50대는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60대 이상은 '문화재 발굴·보존'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15) 지역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 김해시 추천 관광지

- '가야유적·유물'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김해시가 가야 역사문화의 중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 20대와 30대는 '롯데아울렛 및 워터파크', 40대와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가야유적·유물'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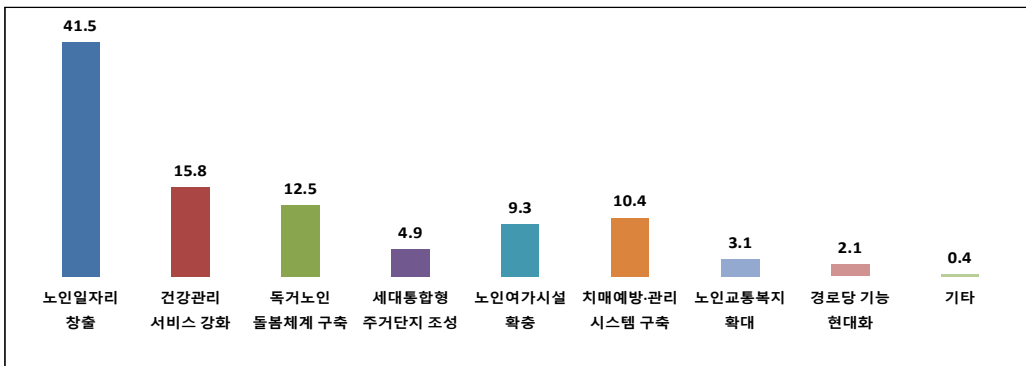


(그림 부록2-16) 김해시 추천 관광지

5) 보건·복지 분야

▣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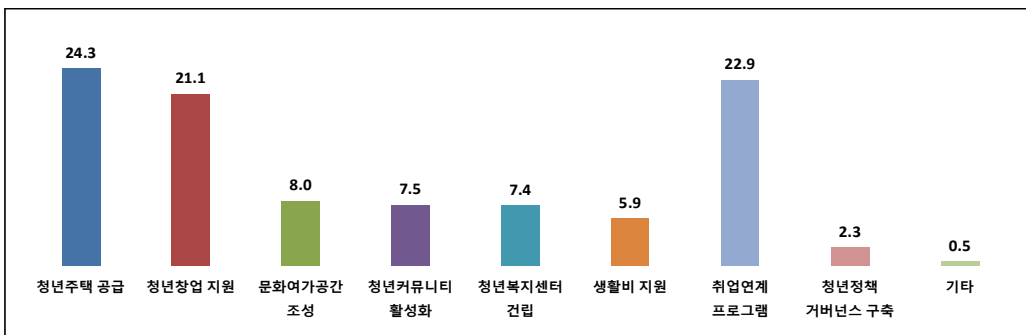
-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나타나고 있어,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퇴직 이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부록2-17)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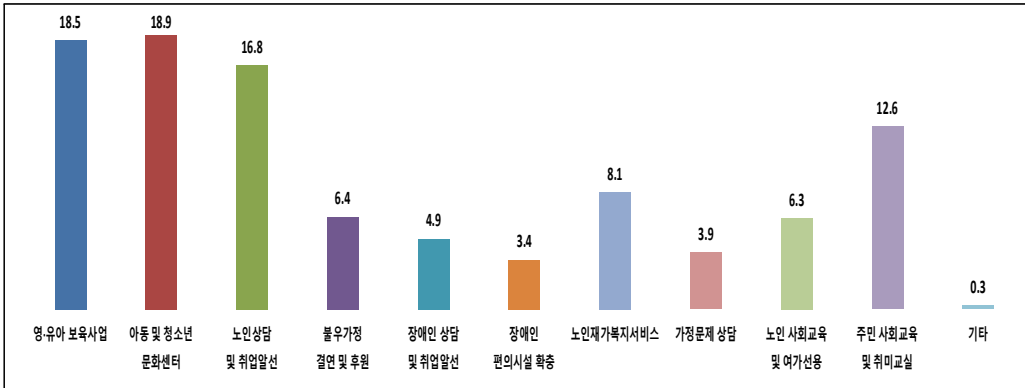
-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 공급’과 ‘취업연계 프로그램’, ‘청년창업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함
- 거주 및 근무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과 1년~5년 미만은 ‘청년주택 공급’, 6년~10년과 10년 초과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18)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 **사회복지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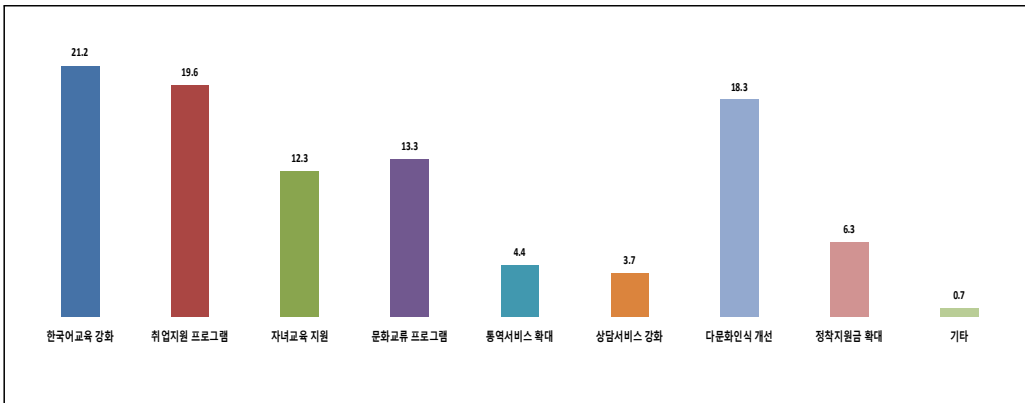
- '아동 및 청소년 문화센터'와 '영·유아 보육사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40대는 '아동 및 청소년 문화센터', 30대는 '영·유아 보육사업', 50대는 '주민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60대 이상은 '노인상담 및 취업알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연령대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달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그림 부록2-19) 사회복지 서비스 중 가장 필요한 것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 '한국어교육 강화'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다문화인식 개선'과 같은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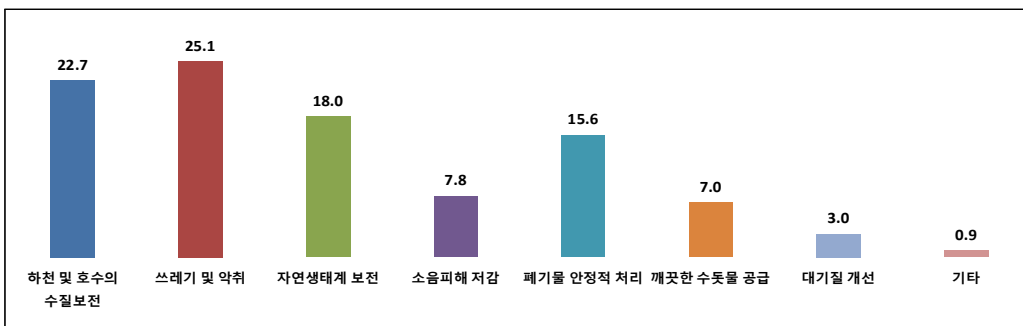


(그림 부록2-20)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6) 환경·경관 분야

□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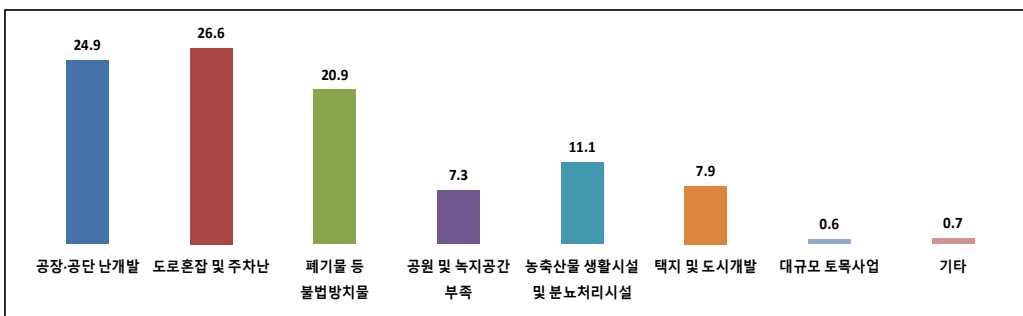
- ‘쓰레기 및 악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내 쓰레기 및 악취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북부동과 칠산서부동, 불암동, 장유1동, 장유3동은 ‘하천 및 호수의 수질보전’, 상동면과 부원동은 ‘자연생태계 보전’, 대동면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장유2동은 ‘폐기물 안정적 처리’, 삼안동은 ‘하천 및 호수의 수질보전’과 ‘쓰레기 및 악취’, 그 외 지역에서는 ‘쓰레기 및 악취’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21)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

□ 도시경관 저해 요인

- ‘도로혼잡 및 주차난’과 ‘공장·공단 난개발’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김해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내의 혼잡과 주차난, 공장·공단 난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함
-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30대 및 40대는 ‘도로혼잡 및 주차난’, 50대와 60대 이상은 ‘공장·공단 난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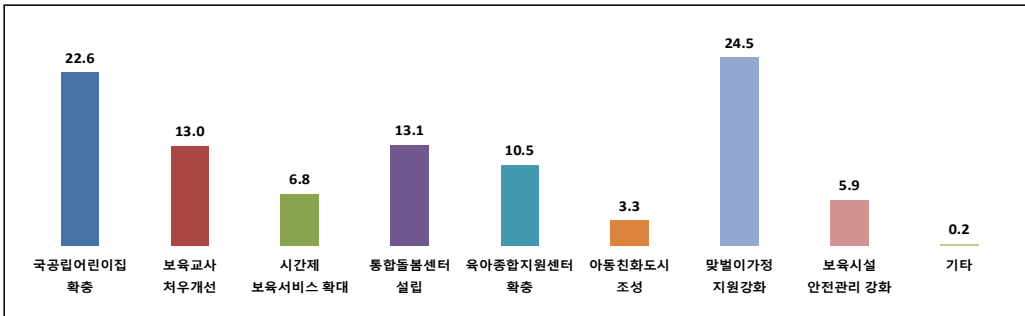


(그림 부록2-22) 도시경관 저해 요인

7) 교육·체육 분야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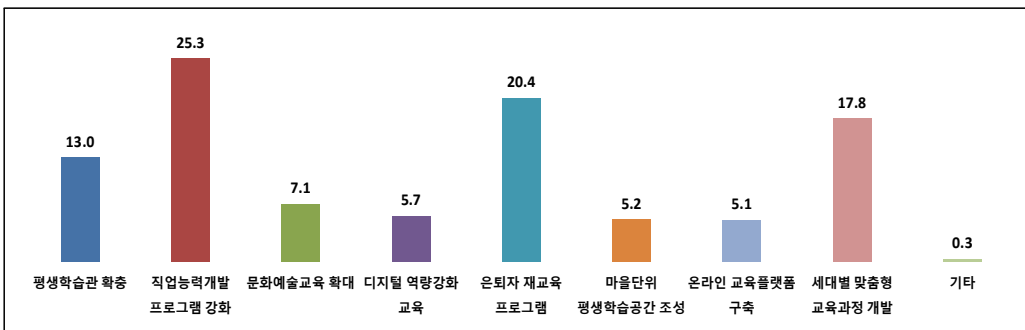
- '맞벌이가정 지원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통합돌봄센터 설립'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자는 '맞벌이가정 지원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23)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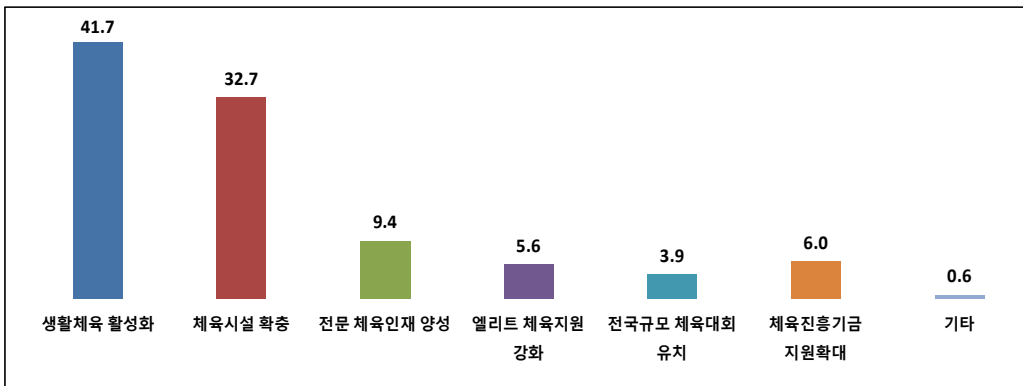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은퇴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직무 능력 향상과 함께 은퇴 이후의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20대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와 '은퇴자 재교육 프로그램', 30대와 40대 및 50대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강화', 60대 이상은 '은퇴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2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체육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책

- ‘생활체육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체육시설 확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활 속에서 쉽게 체육 활동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확충을 중요 시책으로 인식함
- 회현동과 동상동은 ‘체육시설 확충’이 전체 응답의 50%를 넘고 있어 지역 내 체육시설의 부족이 크게 인식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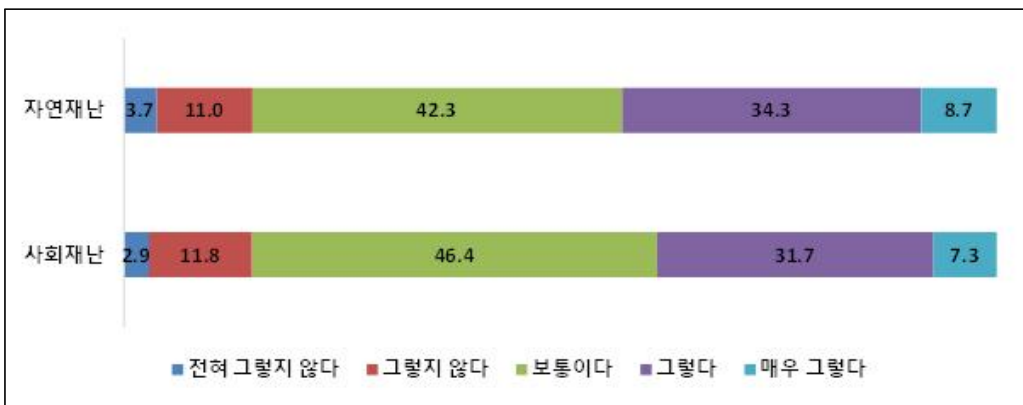


(그림 부록2-25) 체육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책

8) 재난·안전 분야

▣ 재난에 대한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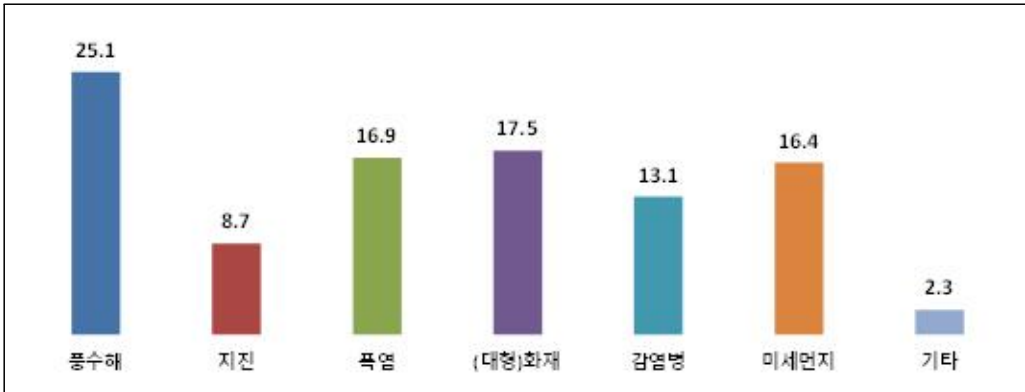
- 5점 척도로 보면, 자연재난은 3.33점, 사회재난은 3.29점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부록2-26) 재난에 대한 안전

□ 재난안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재난관리 분야

- '풍수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폭염'도 3순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대형)화재'가 가장 높았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풍수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진영읍과 칠산서부동은 '미세먼지', 회현동과 부원동, 북부동, 삼안동은 '(대형)화재', 활천동은 '지진', 주촌면은 '풍수해'와 '미세먼지', 불암동은 '풍수해'와 '폭염', 그 외 지역에서는 '풍수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부록2-27) 재난안전을 위해 우선해야 할 재난관리 분야

부록 3 부문별 관련계획 검토

1 | 총괄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 비전과 목표

▣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모두를 위한 국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 3대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2) 국토 공간의 형성 방향

▣ 기본방향

-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공간 형성
- 국토의 개발에서, 국토의 관리·활용이 중시되는 시대로 전환을 반영
- 인구 감소·저성장과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 이념: 다양성과 연결성
- 국토공간 형성의 추진 전략

- 혁신적 지역발전
- 자율적 지역발전
- 협력적 지역발전

▣ 국토 공간의 미래상

-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 창출과 거버넌스 운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

(3) 추진전략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 확대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산업생태계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회복력 제고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 경쟁력 향상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안심국토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
- 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한반도 평화변영의 기반 조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 위상 강화
- 글로벌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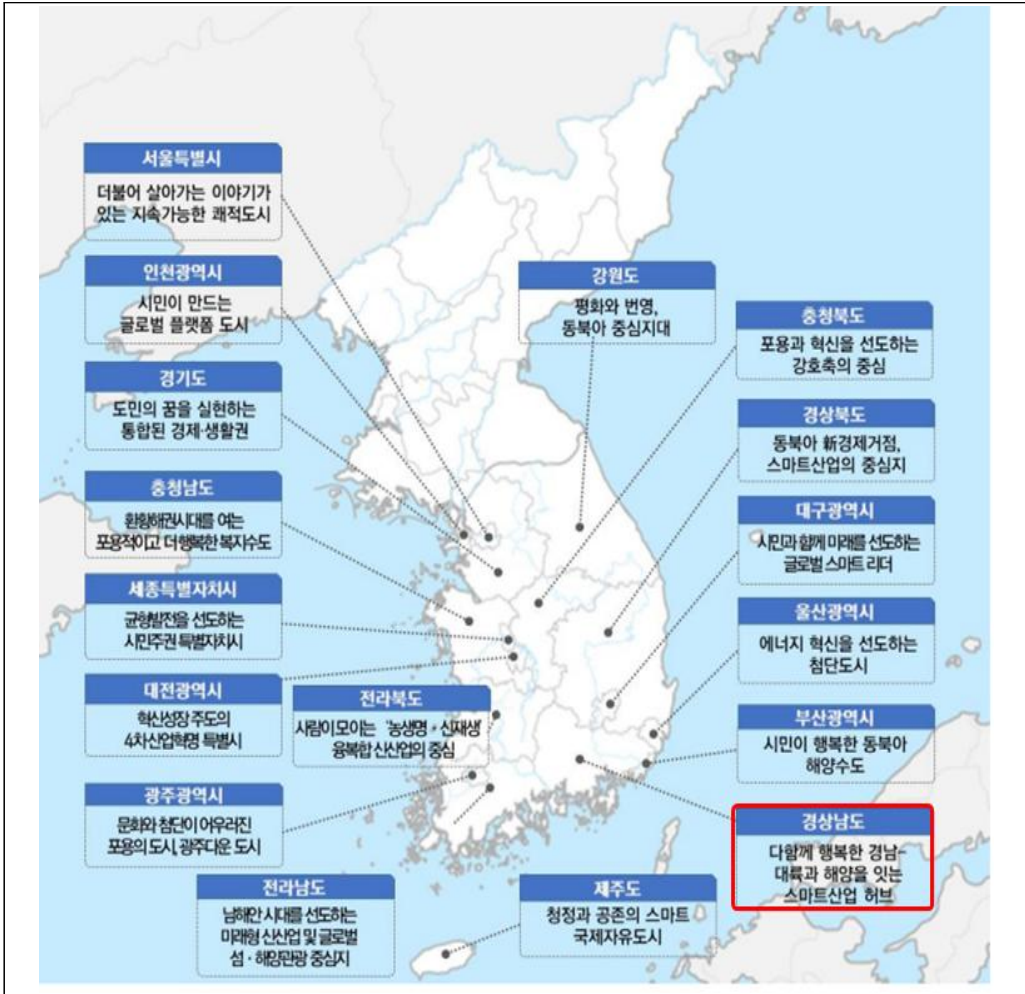


(그림 부록3-1)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초

(4) 경상남도 발전방향

▣ 지역별 발전방향

- 지자체: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
- 중앙정부: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촉진·지원



(그림 부록3-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도별 발전 비전

▣ 경상남도 발전방향

○ 비전

- 다함께 행복한 경남 - 대륙과 해양을 잇는 스마트산업 허브

○ 기본목표

-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성장거점 구축
- 경남형 안전·복지모델 수립을 통한 사람이 우선되는 경남사회 실현
- 함께 누리는 문화생태계 조성 및 동북아 관광거점 구축
-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 구축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경남환경 조성
- 광역연합을 통해 동북아 7대 핵심 경제권 진입

○ 발전방향

- 경남 전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간체계 구축
 -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반 균형발전 추진
 -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지구 활성화
 - 광역교통·복지교통·고속교통체계 구축
- 동북아 진출거점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 활성화
 - 동북아시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제조업 재도약 및 스마트산업화 확산
 - 경남형 스마트시티 확산
 - 신산업 스케일-업 지원
- 균형과 포용의 경남경제 실현
 - 혁신창업 생태계 기반구축
 - 청년이 경남에 정착하는 구조 조성
 - 지역산업 안전망 구축
- 문화균형 및 경남정신 확립과 지역기반 관광거점 활성화
 -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예술 협치 강화
 - 가야와 유교문화 육성으로 경남정신 확립
 -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보장
 - 재난위기 저감 및 대응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경남 실현
 -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
 - 경남형 의료·복지 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 광역연합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 동남권 경제 공동체 조성
 - 동남권 생활 공동체 조성
 - 남해안 상생 협력 및 영호남 네트워크 강화

2)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2021~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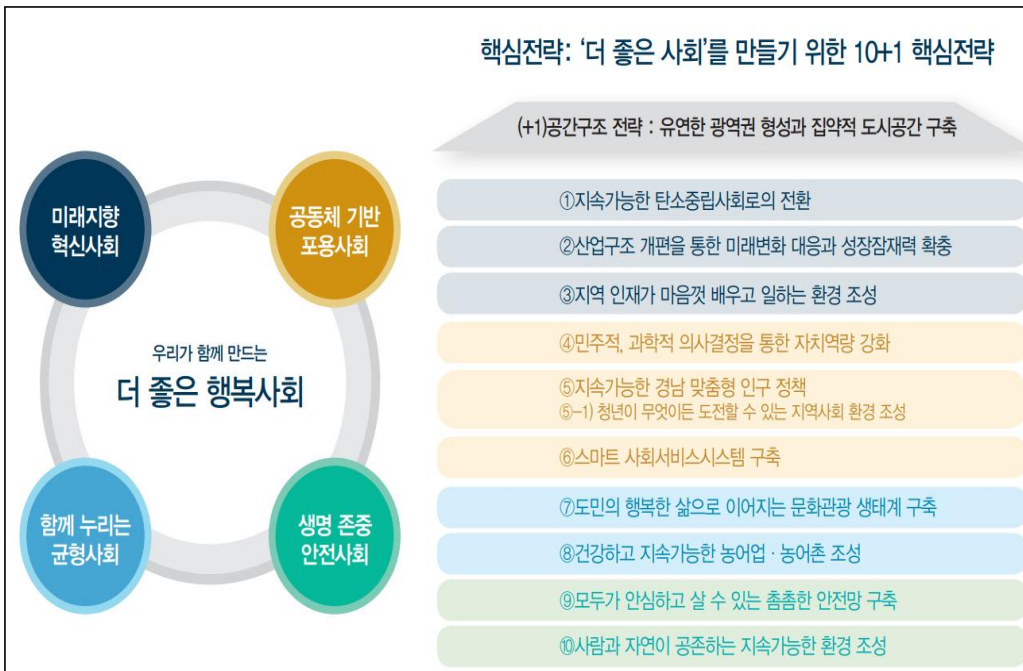
(1) 비전과 목표

▣ 비전: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더 좋은 경남

- 지역국가: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정책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지방정부
- 더 좋은: 성숙한 지역정체성을 발전시키며, 함께 행복한 시민사회

▣ 목표: 경남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더 좋은 행복사회)

- 더 좋은 행복사회: 도민 삶의 질의 지속가능한 향상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사회를 의미
- ‘더 좋은 행복사회’를 구체화하여 4가지 사회상
 - 미래 지향 혁신사회
 -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 생명 존중 안전사회



(그림 부록3-3)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2) 핵심전략: '더 좋은 행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1 핵심전략

▣ '미래 지향 혁신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전략

- 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 ②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 ③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전략

- ④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⑤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 ⑤-1)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⑥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2대 핵심전략

- ⑦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 ⑧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 '생명 존중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2대 핵심전략

- ⑨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⑩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 공간구조 전략: 유연한 광역권 형성과 집약적 도시공간 구축

(3) 공간구조 전략

가) 전략1: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 전략목표: 경남의 유연한 광역권을 중심으로 국토 성장의 핵심지대 형성
- 정량목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과 광역권별 공동과제 추진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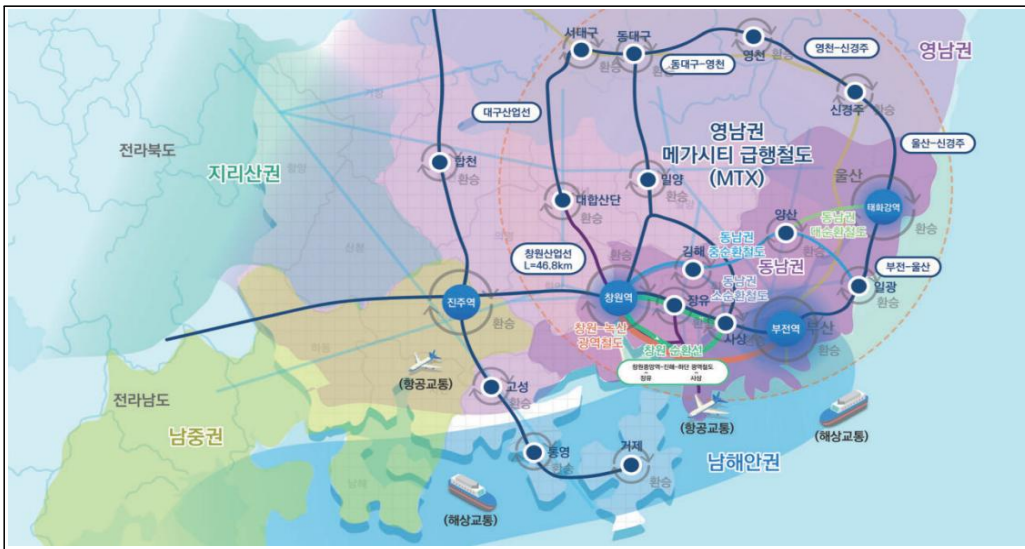
-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 공동체 형성
 - 행정 공동체 구축: 광역집행기관을 통한 함께 구상하고 함께 실행하는 공동체
 - 생활 공동체 형성: 교통망 구축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 경제 공동체 구현: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

▣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경남 중심의 2+3 광역권 형성
 -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
 - 동남권 메가시티 확립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
 -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
 -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
 - 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
 - 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



(그림 부록3-4)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공간 구상도



(그림 부록3-5)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교통망 구상도

나) 전략2: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 추진전략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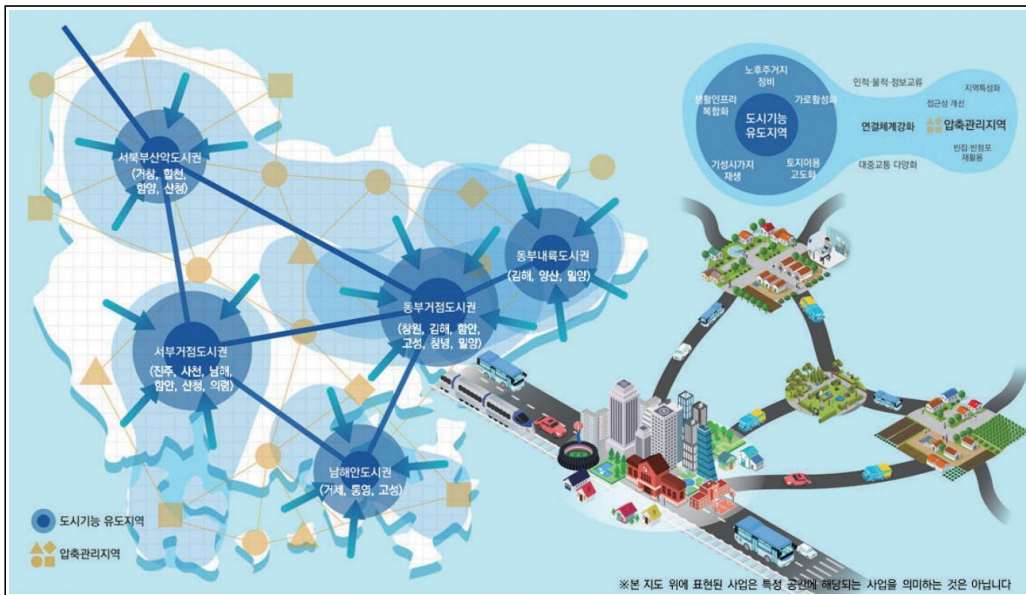
- 핵심전략: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 전략목표: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민 생활권 및 편익 확대” 실현
- 정량목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경남 1시간 생활권 구축

▣ 추진방향

- (공간구조) 생활권 중심의 공간 재편
 - 행정구역 경계를 넘은 자립적인 공간 단위 설정을 통해 시민, 군민을 넘어 도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편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 공간정책과 주거환경 정책 연계
- (집약) 거점 도시 기능 유도 및 축소 예상 지역 중점관리
 - 기성 시가지와 원도심은 다양한 도시재생 수법을 통해 재정비하여 도시기능 집약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후화로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 (연계) 지역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외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
 - 인적, 물적, 정보 등이 지역 간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 2단계(중기):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 및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3단계(장기):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공간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



(그림 부록3-6)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구상도

□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경남 중심의 2+3 광역권 형성

-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
 - 동남권 메가시티 확립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
-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
 -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
 - 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
 - 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

(4) 김해시 발전방향

▣ 권역설정

서북부권	서부권	동북부권	동부권
합천, 산청,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창원, 통영, 거제, 함안, 고성

▣ 김해시 발전방향

- 비전: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
- 기본목표
 - 일자리 경제도시
 - 희망 복지도시
 - 가야문화 교육도시
 - 친환경 미래도시
-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전략 산업 인프라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대규모 특화 산단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특화산업 본격 육성으로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 의생명·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의생명클러스터 구축
 -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업 혁신
 - 시민 중심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
 - 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도자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가야역사문화권 중심도시 위상 강화
 - 가야사복원을 통한 ‘가야왕도 김해’ 정체성 확립

-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 가야고분군 정비
-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 명품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
- 볼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인프라 확충,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 구현
-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 문화산업 육성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특화박물관 건립으로 박물관도시 조성
-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축제의 세계화 추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확대
- 안전한 울타리 속 따뜻한 복지 구현
- 촘촘한 안전 그물망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
- 국제안전도시 공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도시 안전도 향상
- 지진, 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종합대책 수립
-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
-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선진형 복지체계 구축
- 장애인, 교통약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실현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밀착형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치매 예방사업 활성화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생명 존중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 자연생태 보전 및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
- 화포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습지 보전 가치 제고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도시공원 및 휴양림 조성
-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체제 강화
-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 산·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필(必)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
-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관리로 물복지 서비스 강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 물수요 관리를 통한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주력
- 고르게 잘 사는 지역 균형개발
 - 동-서 불균형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 안동재개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낙후된 동부권 개발 가속화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 미래지향적인 명품복합도시 조성
 - 주거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한 복합 특화단지 조성
 - 스포츠·레저 시설 확충, 동북아 물류 R&D 조성
 - 구도심에 활력을 넣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 (목표) 삶의 질 제고,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 원도심, 무계, 삼방, 진영 등 낙후된 구도심 위주 도시재생
- 경남·부산의 “도로·교통의 중심지”로 도약
 - 부산, 창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및 지역 연결 간선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물류·교통중심지 구축
 - 교통 혼잡지역 개선 및 주민 숙원해소로 지역 환경 개선,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와 도심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경전철 운행과 재정부담 완화, 시내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 ITS 구축사업(VMS)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고부가 첨단 농업 육성으로 미래 생명 산업 선도
 - 농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
 -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배수 개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 악취 저감대책 추진(축사 현대화)
 - 고소득 특화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 김해 푸드플랜 구축으로 시민 안심 먹거리 제공, 농가소득 증대
 - 스마트팜 생산기반, 신소득 작물 다양화, 지역 전략작목 육성
 - 화훼산업 육성,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 매력적인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속 추진
 - 농촌 주거환경 개선(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미래교육도시 지향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조성
 - 무상급식 전면 시행, 무상 교복 등 교육비 절감
 -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으로 희망의 사다리 마련
 - 책 읽는 문화 확산, 대한민국 책 수도 조성
 - 김해 독서대전 개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독서프로그램 강화
 - 시민 평생교육 확대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체육 기반 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 증진
-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2020년도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을 도내 지방하천에도 확대 도입 추진(경남 선도지구 : 김해시, 진주시)
 -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
 - 스마트 물류시설, 물류 R&D 설치, 지원기능시설 등(김해시 화목동, 부산시 강서구 일원)
 -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물류·교통중심지 구축
 -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김해~부산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 삼방~부산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 생림~한림 고속도로 건설공사
 - 부산신항선 고속철도화(김해 KTX역 신설 사업)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인도기념공원 조성사업
 - 낙동강변 가야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 김해 생림~밀양 삼랑진 연계사업

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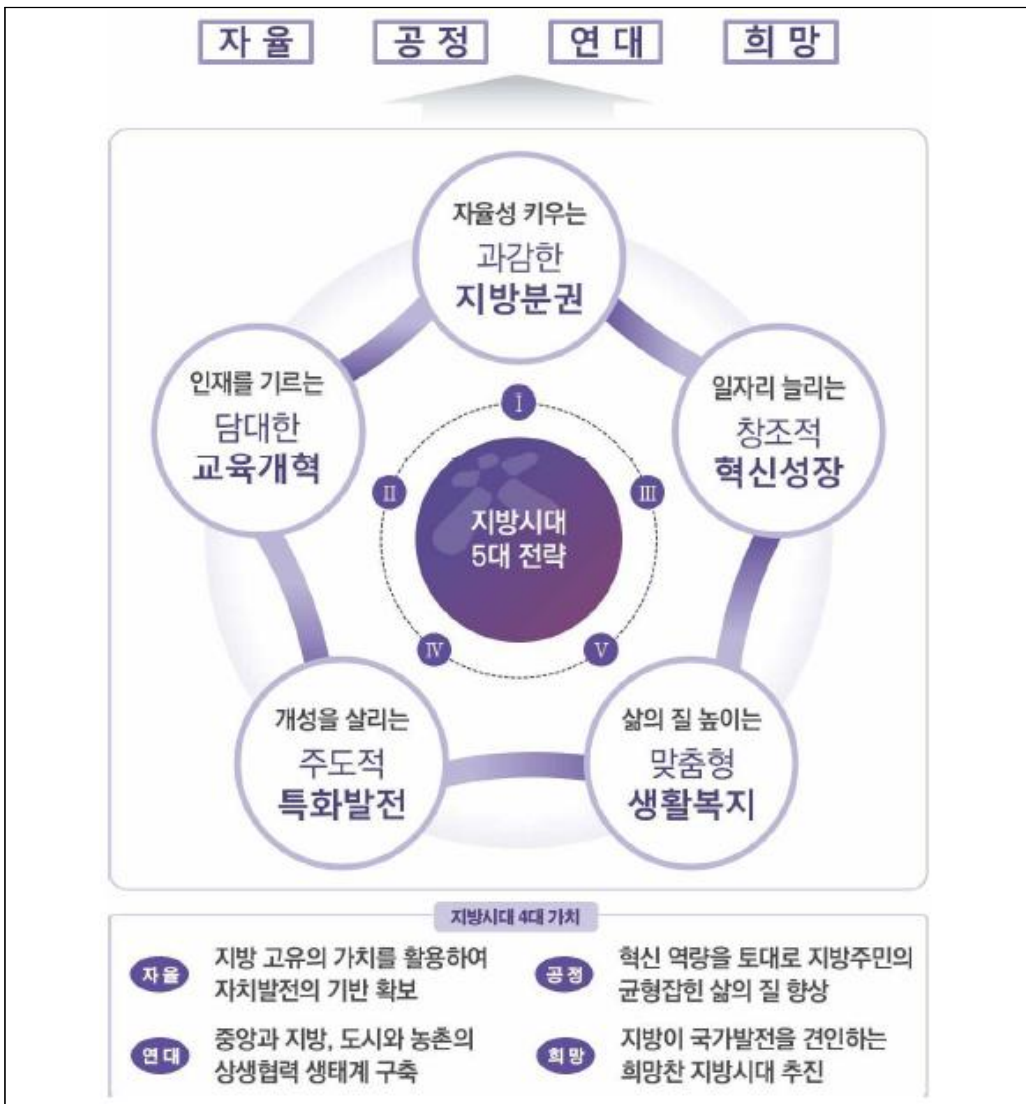
(1) 비전과 전략

▣ 비전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목표

-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그림 부록3-7)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2)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3)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 비전

-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

▣ 목표

- 신기술 융합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역동하는 지역경제
- 인재가 모이고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민

▣ 5대 전략별 역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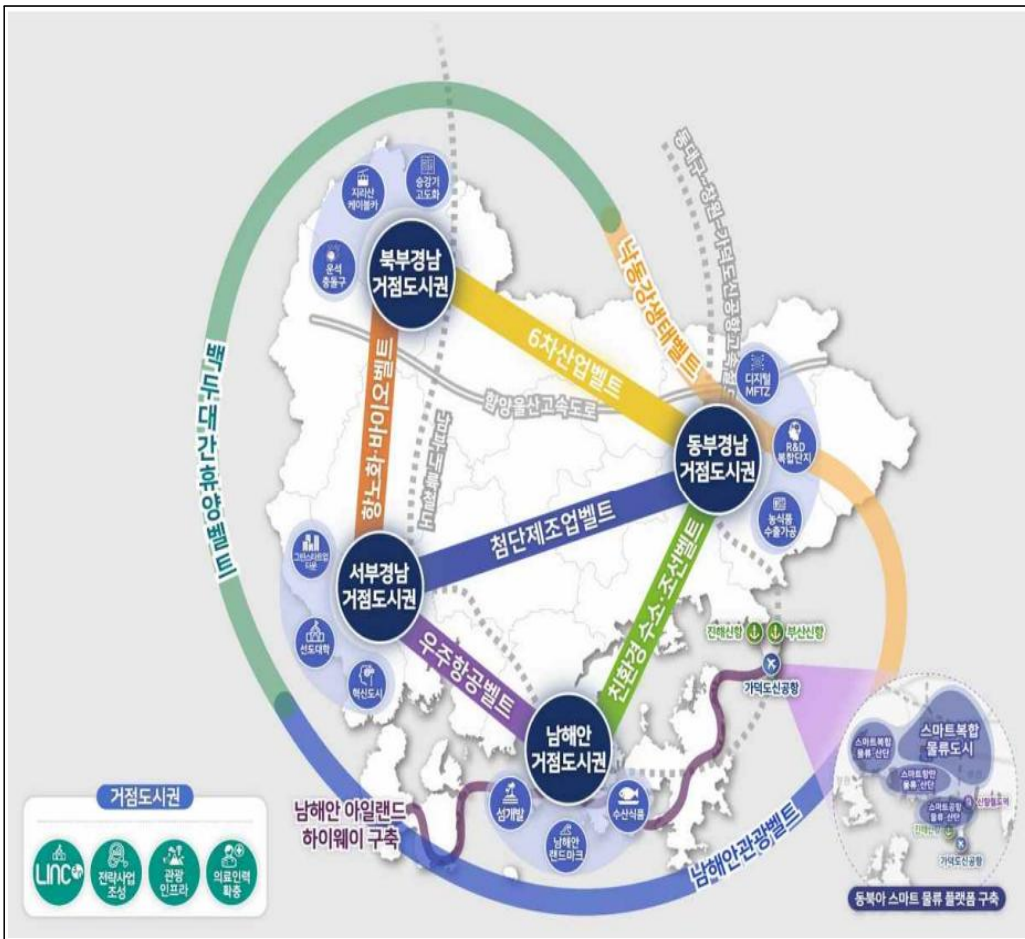
- (전략1)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 경남
 - 지역맞춤형 지방이양 추진: 지방이양사무 및 시군 특례 발굴 지원 및 추진
 - 성과·전문성 중심의 효율적 인사·조직 운영: 공직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평정체계 정비
 - 지방세 세수 확보 분야 발굴: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 발굴추진
- (전략2) 모두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인재 경남
 - 지속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교육 공공성 강화로 교육복지정책 추진
 - 경남 정주 신산업 선도 글로벌 연구인력 양성: 산학협력을 통한 경남교육 연구프로그램 개발

- 경남 미래융합교육센터 구축: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민 중심의 범공용적 교육센터 설립
- (전략3)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성장 경남
 - 기회발전특구 조성: 국내·외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
 -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사람·문화·산업이 공존하는 집적화된 복합공간 구축
- (전략4)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특화 경남
 -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항공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지원
 - 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 혁신형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랜드마크 해상도로망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
- (전략5)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균형 경남
 - 의과대학 신설 등 의료인력 확충: 도내 의과대학 설립 유치 및 기존 의대 정원 확대 건의
 -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응 강화: 재해·재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추진
 - 탄소중립도시 조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표 부록3-1>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23	2027	증감
공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34.0	38.9	4.9
	일자리 수	천명	1,779	1,827	48
	재정자주도	%, %p	67.1	69.5	2.4
자율	재정력 지수	지수	72.0	73.0	1.0
	대학/전문대학 취업률	%, %p	68.1	70.0	1.9
	제조업 생산지수	'20년=100	108.7	120	11.3
	국내 관광객 수	천명	6,621	9,783	3,162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점	5.8	6.9	1.1

자료)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2023



(그림 부록3-8)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공간발전구상

(4) 중앙정부 부문별 계획

▣ 5대 전략과 22대 핵심과제

○ (전략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 지방의 책임성 확보

- (전략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 (전략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 (전략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 (전략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5)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 비전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

▣ 비전

- 주력산업 혁신 및 수소생태계 조성으로 연평균 3% 경제성장
- 초광역 인프라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 문화관광·보건의료 협력으로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달성

▣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항공 ICT융합클러스터 조성
- 부울경 수소 버스 공동구매·보급·운영 및 수소 배관망·충전소 구축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광역철도(김해~양산~울산) 건설
-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등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 대응체계 구축



(그림 부록3-9)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4) 동부경남 발전계획(2023)

(1)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 계획

▣ 철도사업

- 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 ②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③ 양산 도시철도

▣ 도로사업

- ① 김해~밀양 고속도로(창원 연장 건의)
- ② 국지도 60호선(한림~생림, 매리~양산)
- ③ 국지도 69호선(대동~매리)
- ④ 상북~웅상간 도로(지방도 1028호선 국도(지선) 승격 건의)
- ⑤ 함양~울산 고속도로



(그림 부록3-10) 동부경남 접근성 개선 계획

(2) 동부경남 발전선도 15대 프로젝트

▣ 김해시

○ 비전

- 첨단산업과 역사가 공존하는 국제문화도시

○ 선도 프로젝트

- 경남 글로벌 융합 콘텐츠산업타운
- 액화수소 클러스터
-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 김해 공공의료원
- 경남 글로벌 어울림 센터

▣ 밀양시

○ 비전

- 나노융합·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산림휴양도시

○ 선도 프로젝트

- 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교량
- 지방도 1051호선 밀양단장구간
- 남부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 양산시

○ 비전

- 청년이 모이는 살기 좋은 문화·생태 융합도시

○ 선도 프로젝트

- R&D 복합단지(양산 부산대 유희부지 활용)
- 문화예술의 전당
- 회야강 르네상스
- 상북~웅상간 도로(지방도 1028호선)
- 양산 수목원

5)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 목표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

(2) 추진 전략 및 과제

▣ (전략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
- 지역소멸 대응 스마트 서비스 보급
- 국가시범도시의 완성

▣ (전략2)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 AI 기반 데이터허브 고도화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 (전략3)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 거버넌스 강화 및 규제혁신
-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

▣ (전략4)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

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목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2) 추진 전략 및 과제

가) 추진전략

▣ (전략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전략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전략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 (전략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나) 추진체계

○ (체계1)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 (체계2)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2 | 산업·경제·일자리부문 관련계획

1) 제3차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1) 비전과 전략

▣ 비전

- 노동집약적 저부가 → 미래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대전환

▣ 비전

- 뿌리기업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디지털·친환경·글로벌 산업구조로 전환 가속화
- 전후방 산업과 함께하는 고도 성장기반 구축

(2) 주요 과제

▣ 뿌리기업의 역동성·성장성 강화

- 기업 경영애로(인력·비용) 지원 확대
 - 청년(신규고용, 장기근속), 중장년(경력채용), 외국인(현지수급) 등 적기 인력수급과 인력수요 대체 지원을 통해 인력 수급난 최소화
 - 납품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안내서 보급·확산과 함께 친환경·고효율 설비투자 등에 대한 규제혁신 및
- 능동적·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 뿌리기업 전용 승인체계, 인센티브, 전담기관 등 지원 강화
 - 2세 경영 기업(뿌리기업 명가 등)에 사업재편 우대 지원하여, 제2의 창업 투자를 촉진
- 성장 유도형 기업지원제도 도입
 - 성장이 유망한 뿌리기업 특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기준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 욕구 고취

▣ 뿌리산업 2.0 혁신 생태계 조성

- 뿌리산업 2.0 대전환 전략 추진
 - 기존 뿌리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뿌리 2.0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

- 디지털전환(DX)·친환경 기업생태계 활성화
 - DX·친환경 수요 뿌리기업, 뿌리 지원 서비스기업(플랫폼 운영, 유해공정 아웃소싱 등) 등 기업 주도 DX·친환경 생태계 저변을 확대
- 글로벌 첨단 기술 역량 강화
 - 차세대 하이테크 뿌리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핵심기술 전용 R&D 확충 및 판로 확대
- **범 뿌리산업 협력체계 강화**
 - 「6+8」 뿌리 융합·협업 기반 공고화
 - 업계주도 뿌리산업 연합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업계수요 기반 「6+8」 특화 융합기술 지원 프로그램 신설
 - 뿌리산업 전담 지원체계 확충
 - 추가 뿌리기술 및 융복합 분야 관련 중앙(국가뿌리센터)·지역(지역뿌리센터) 지원체계의 역할·위상 강화
 - 「전후방산업-뿌리기업」 상생 모델 확산
 - 뿌리제품 수요가 많은 기계(35.9%), 자동차(25.9%), 전자산업(15.0%) 대기업과 ‘수요-뿌리기업 얼라이언스’ 구성

2) 중소기업육성 종합계획(2023~2025)

(1) 비전과 전략

▣ 비전

-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저력으로 초일류 국가 진입

▣ 전략

-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2) 주요 과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달성

- 제조 디지털화 등 생산성·기술력 향상, 수출 신시장 개척 및 제값받기 환경 조성으로 '수출일자리 성장 버팀목' 역할 강화
 - (글로벌) 중소기업 중심 수출 드라이브 촉진
 - (디지털)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함께성장)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확산
 - (위기극복)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 (창업벤처)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에 전방위적으로 지원,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 (글로벌)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미래선도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함께성장) 신벤처·스타트업 모델 성립
 - (위기극복)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상권 육성하고 촘촘한 안전망 확충
 - (글로벌)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
 - (함께성장) 민간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위기극복) 회복·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정책기반) 과감한 규제혁파 및 정책원팀

- 공공기관지방청, 부처와 강력한 정책원팀을 결성하고, 현장 핵심규제 혁파 등 현안을 신속히 해결
 -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 정책원팀 구축

3)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1) 비전과 목표

▣ 비전

-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성장 국가 도약

▣ 목표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격차 해소

(2) 분야별 세부과제

▣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
 - 고용둔화 선제적 대응
 - 고용위기 조기 포착 시스템 구축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직능수준별, 업종·지역별 밀착지원으로 노동수요·공급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 직능 수준별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 업종·지역별 빈일자리 구인난 특별 관리
 -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

▣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긴요, 이들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 관리 집중 지원
 - (청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 일·육아병행 및 경력단절 사전 예방
 - (고령자) 초고령사회 대비 계속고용 기반 구축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

▣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정망 구축

-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므로, 취업촉진·근로

의욕 증진에 방점을 둔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 근로빈곤층 → 근로자 도약 지원
- 일자리로의 Activation 강화
-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

▣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와 경직적인 법·제도·문화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지원
 - 일자리 사업의 균형 회복
 -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충
 - 노동시장 법·제도 개혁 및 일하는 문화 혁신

4)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2023~2025)

(1) 비전과 목표

▣ 비전

-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

▣ 목표

-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브랜드 상권 조성
-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재기를 뒷받침하는 안전망 확충

(2) 전략 과제

▣ (과제1)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 (창업) 준비된 예비창업자 발굴
- (성장) 유망 소상공인 선별·육성
- (도약) 투·융자 자금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 (과제2)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 민간 협업을 통한 상권활력 제고
- 골목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 시대흐름에 맞춘 전통시장 변혁 추진

▣ (과제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 소상공인 생업현장내 스마트기술 도입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과제4)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자금공급 및 경영부담 완화
-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제 개최
-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지원
- 소상공인 사업영역 제도 개선

(3)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

□ 제조업

- (기술혁신) 혁신기술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구축, 숙련기술 전수를 돕는 ‘제조명인 멘토링제’ 도입, 협업 코디네이터 양성
- (판로지원) 후보군 발굴 후 일반 지원대상 및 예비 스타상품을 선정하고 판로 바꾸처 및 교육(컨설팅, 멘토링제 등) 지원
- (인프라 강화)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특화지원센터(34곳) 간 유기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 (인증 지원) 식품·축산물 영세 소규모업체 대상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 도·소매업

- (로컬 유통망) 골목상권 도소매 자영업자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혁신 추진
- (풀필먼트) 보관·포장·출하·배송 통합 물류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중소유통 풀필먼트 고도화, '27년까지 12개소 추가 구축
- (경쟁력 강화) 체험요소와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한 경험형 마켓을 보급하고, 지역서점 기획역량 강화

□ 기타업종

- (음식점업) 외식업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품질제고 종합 지원, 옥외조리 제한 해제 및 위생교육 기준 완화
- (개인서비스업) PC방·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제재처분 완화
- (농·어업)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한 청년농 육성, 어촌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

(1) 비전

▣ 비전

- 사회적 가치 창출로 신뢰받는 사회적기업

(2) 추진 과제

▣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사회적가치 평가와 지원 연계

- 사회적기업의 창의·혁신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성'에서 '자생'으로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평가 결과를 공공구매·세제혜택 등과 연계
- 경영공시 의무화, 온·오프라인 상시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적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신뢰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다양성 제고

- 공공성·영리성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
-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본격 육성

▣ 내실있는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지원

- 건전하고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이 규모화(Scale-up)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판로 확대, 투자유치 및 정책자금 등 지원 강화
- 서비스 제공 지원기관을 통합하고, 인증·컨설팅 등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체계 구축

3 | 문화·관광·복지 부문 관련계획

1)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1) 비전과 핵심가치

▣ 비전

-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

▣ 핵심가치

- 자유로운 문화누림과 창조
- 문화로 연대하는 사회

(2) 추진 전략

▣ 매력있는 문화자산으로 내일을 여는 K-컬처

- K-전통 산업화와 일상화로 높이는 문화매력, 한글·한국어 기반 언어문화산업 육성

▣ 새로운 주역들과 함께 비상하는 K-컬처

- 창작예술의 주인공이 되는 어르신, K-컬처에 특별함을 입히는 장애인, 우리 문화의 드리머스, 청년

▣ 지역과 사회를 품격있게 연결하는 K-컬처

-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누리는 문화, 문화다양성 기반 연대 사회 구현, 문화로 연결하는 단단한 사회, 인문 및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과 회복탄력성 제고

▣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 K-아트,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기여하는 K-컬처, K-컬처의 해외진출 중추기지 강화

2)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24~2027)

(1) 비전과 목표

▣ 비전

-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

▣ 목표

- 자유로운 문화누림과 창조
- 문화로 연대하는 사회

(2) 추진 전략

▣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끄는 메가 비전, 5조원 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위한 추진체계 개편

▣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IP 지원, 중소·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통한 탄탄한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성장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K-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K-콘텐츠와 연관산업 동반성장 통한 수출 확대, K-콘텐츠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주요 장르 집중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 (게임) 콘솔게임 집중육성으로 K-게임 레벨 업
- (웹툰) 대한민국 플랫폼이 곧 글로벌 플랫폼
- (영화) 영화시장 산업화 통한 제2의 '기생충' 발굴
- (음악) K-팝 넘어 K-뮤직으로, 'K-팝 신드롬' 지속성 확보
- (방송) IP 확보·수출지원으로 이어가는 K-드라마 황금기

3)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22~2031)

(1) 비전과 목표

□ 비전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 목표

-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관광
-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 관광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

(2) 추진 전략

□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 미래 관광수요 예측을 통한 관광자원의 선제적 발굴 및 관광자원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유연하고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

□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혁신적인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통해 관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 관광자원의 스마트한 이용,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및 관광약자 관광편의 개선으로 모두가 누리는 관광편의 기반 조성

□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관광 생태계로 이어지고, 지역관광 주체의 관광역량을 강화하여 관광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구조 확립

□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

- 공동 자원에 대한 국가간·부처간 연계협력 강화와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점·선·면적인 관광개발을 넘어 입체적 관광공간 구축

□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며 관광자원관리 최적화 유도

(3) 관광권역별 발전방향

▣ 광역연합관광권

○ 부울경권: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

- 바다·산·문화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 산업관광 활성화로 관광 저변 확대
-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남부권의 국제관문 도시 조성
- 해양레저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 엔터테인먼트 메가 관광지대 육성

▣ 시도 권역

○ 경상남도: '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거점'

-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
-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경남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도민의 삶과 역사·문화가 관광이 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4)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1) 비전과 핵심목표

▣ 비전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핵심목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2) 전략 및 중점과제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5)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1) 비전과 핵심목표

▣ 비전

- 두루 누리는 든든한 경남복지, 행복한 도민

▣ 핵심목표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
- 의료·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권 보장
- 일자리 복지로 자립지원 강화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 체감형 사회서비스 확대로 접근성 향상
-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정책방향

▣ 통합복지: 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 간 연계협력 강화(커뮤니티케어)

- 복지, 보건, 일자리, 문화복지 등 분야 간 연계협력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균형복지: 18개 시군 지원 기능 강화

- 시군 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도모

▣ 예방복지: 일자리 복지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기능 강화

- 일자리, 자립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기능 강화

▣ 스마트복지: 복지데이터 및 ICT활용

- 사회보장 데이터를 생산·축적·활용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
- ICT활용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참여복지: 민간 및 주민참여 강화

- 사업기획·실시·평가 과정에 민간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복지력 강화

6)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

(1) 목표 및 전략체계

□ 목표

-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

□ 전략체계

-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 구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초기정착 지원, 김해형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기반조성
 - 청년 일자리 확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일자리 연계
-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구축
 - 시민을 위한 걷기운동 생활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LED표지판 설치,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 균형있는 복지·문화서비스 활성화
 - 진영복지관 건립, 원스톱 사회보장 정보제공 플랫폼 활성화
- 함께하는 다문화 환경 조성
 - 이주배경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4 | 지역균형발전부문 관련계획

1)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1)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 도시미래상

- 부산 먼저 미래로 -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그림 부록3-11)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 미래상 및 전략

(2) 공간구조 전략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공간구조 재편

- 10-Core + 4대 혁신성장축 + 5개 연계거점
- 10개 중심지(10-Core):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 4대 혁신성장축: 관광마이스거점축, 국제업무경제혁신축, 신산업혁신축, 공항복합도시성장축
- 5개 연계거점 확장: 장안, 노포, 대저, 다대, 동삼

○ 4대 혁신성장축

- 관광마이스 거점축: 기장중심지 + 해운대중심지
 - 국제교류 및 MICE 관련, 영상, 문화, 의료, 휴양, 관광 기능 연계
- 국제업무경제 혁신축: 동래중심지 + 서면중심지 + 중앙중심지
 - 글로벌 금융, 금융기관이전, 행정중심기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언론 연계
- 신산업 혁신축: 덕천중심지 + 사상중심지 + 하단중심지
 - 신교통 관련산업, 지식산업, R&D, 소재 및 부품산업 연계
- 공항복합도시 성장축: 강서중심지 + 신공항중심지
 - 유통산업, 물류기반 및 허브, 비즈니스, 항공산업, 복합기능 연계



(그림 부록3-12)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

○ 5개 연계거점 확장

- 울산접경연계거점: 관광마이스거점축(해운대/기장) + 장안연계거점
 - 울산방향
 - 관광마이스거점축의 특화기능을 장안연계거점의 신산업과 연계하여 울산 지역으로 확산
- 양산접경연계거점: 국제업무경제혁신축(중앙/서면/동래) + 노포연계거점
 - 양산방향
 - 국제업무경제혁신축의 성장동력을 노포연계거점 특화와 연계하여 양산지역으로 확산
- 김해접경연계거점: 신산업혁신축(덕천/사상/하단) + 대저연계거점
 - 김해방향
 - 강동권의 신산업혁신축과 대저연계거점의 주거기능을 연계하여 김해지역으로 확산
- 신공항연계거점: 국제업무경제혁신축+신산업혁신축+동삼/다대연계거점
 - 신공항방향
 - 글로벌 중심성과 신성장산업 기능을 동삼연계거점과 다대연계거점에 확산, 가덕도신공항 연계
- 창원연계거점: 공항복합도시성장축
 - 창원방향
 - 공항복합도시성장축의 발전방향을 공항과 항만 및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과 주변 도시로 확산

▣ 지역균형발전 실천 방안

- 혁신성장축 기능특화 및 육성
 - 중심지 기능 고도화와 혁신성장축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지역화에 공간구상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변특화 기본계획('부산 수변을 시민의 품으로') 추진
 - 수변 접근성 강화, 수변 공공성 강화, 수변 거점 조성, 수변 활용 확대
- 기능 복합화를 통한 역세권 활성화
 - Compact City(중심지 고도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는 필수적 요건으로 주거와 업무공간의 결합, 근거리 여가생활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를 고려한 도시공간 조성

- 중심지 연계 역세권에 주거와 업무, 생활SOC가 결합된 새로운 공간 형성

○ 노후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복합산업공간 육성

- 전국 최초로 노후 공업지역인 삼락중을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물의 허용 용도 등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직주 통합형 콤팩트빌리지로 조성 추진

○ 시가지 내 유희부지의 혁신거점 공간화

-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부적격시설의 이전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특화지역으로 활용하여 주변 지역발전을 견인할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

(3) 핵심목표 및 추진전략

○ 스마트 15분도시: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스마트 15분도시 실현

- 도시계획 체계 정립으로 생활권 계획 위상을 확립하고 15분도시 구체화
-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15분도시 실현방안 제시
- 지역 수요기반 생활SOC 확보로 생활권 특화 방안 제시

○ 글로벌 허브도시: 높아진 도시경쟁력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완성

- 국토 불균형 대응과 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조성 방안 제시
- 핵심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 구상
- 광역교통망 확보,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초광역 연결사회 실현

○ 청년활력 미래도시: 청년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활력 미래도시 조성

-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정책 추진
- 도시공간 정비로 신(新)청년활력공간 확보
- 글로벌 금융 중심지와 산학협력 혁신도시 육성

○ 탄소중립 건강도시: 실천하고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

- 탄소중립 전환기반 구축과 실천력 제고
- 생태친화형 녹색 치유공간 확보
-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안심건강도시 조성

2)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1)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 도시미래상

- 시민공감 스마트미래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 계획목표

- 스마트 경제가 시작되는 초연결도시
-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생활안전도시
- 지역특화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그림 부록3-13)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및 4대 계획목표

(2) 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목표1: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스마트경제가 시작되는 초연결도시

- (전략1) 스마트산업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창원경제
 -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기술과 정보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생태계 탈바꿈
 - 수소산업 국방과학기술 육성 등 신성장동력 강화 및 원자력산업 정상화 전통산업 스마트 강소 기업 전환

- 도·농 복합지역 스마트팜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체험관광 육성 등 농업의 6차 산업화
- (전략2) 세계를 초연결하는 산업환경 조성
 -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교류 첨단물류중심지, 메가포트 조성 (진해신항)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도시기반 구축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초연결시스템 구축
 - 핀테크(FinTech)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업무환경 마련
- (전략3) 경제주체간·산업간 상생 융합발전 도모
 - 상생 융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창원형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강화
 - 특구조성(강소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통한 산업·연구·교육·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형성
 - 언택트(Untact) 시대에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기반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 (전략4)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 구축
 - 기업, 학교 등 어디서나 누리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과 연계 체계 강화
 -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유치(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 벤처기업,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신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 **목표2: ‘통합도시 공간구조 재편’ 환경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 (전략5)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중교통중심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능 집약을 통한 대중교통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BRT, 수소트램)
 - 선택과 집중에 의한 도시개발로 에너지 저감효과 도모 및 공공녹지공간 확충
 - 비도시지역은 분산된 집중에 의한 지역중심 복합개발로 자족성 강화 및 지역간 스마트네트워크 구축
- (전략6) 도시녹색공간의 확충·정비 및 전략적 활용
 - 100만 도시에 걸맞은 창원 대표공원 조성 도시공원 확대(팔용대공원 및 지역별특화공원)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녹지네트워크 강화

- 우수한 자연자원(주남저수지 등)을 보존하고 문화관광 공간으로 전략적 활용
- 마산만 재생 등 해양·하천생태계(도심 개울길 조성 등)를 복원하고 친수 공간을 창출, 여가관광자원으로 활용
- (전략7)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마련
 -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자립율 향상
 -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R&D, 설비투자로 에너지관리 효율화 증대
 -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및 폐기물, 하수 등 자원 재활용 확대 등 탄소중립 책임이행 체계 구축
- (전략8) 녹색교통체계 구축으로 탄소저감·이동안전성 강화
 - 수소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및 녹색교통수단 보급 활성화
 - 전기버스 등 친환경 녹색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범위 확대(도심 20분 외곽 40분 대중교통망 구축)
 - 보행, 자전거 및 PM(Personal Mobility) 이용이 안전한 도로 공간 재편
- **목표3: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생활안전도시**
- (전략9)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용하는 주거안정 도모
 - 1인 가구용 안심주택 공급 청년임대주택 등 다양한 계층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주거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가계소득이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창원مام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돌봄 분야에 있어 지역공동체 단위 기능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 확대
- (전략10)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환경 조성
 - ICT기반 도시관리 및 범죄예방환경(CPTED) 구축 및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능한 행정력 강화
 - 재해와 범죄 등 관련 시설확충(경남 동부권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등)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서로가 지켜주는 사회 구현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민간의료 관련시설(어린이전문병원, 의과대학 등)을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전략11)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서비스 확대
 - 시민 모두의 경제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취약계층(4050재취업·은퇴자 등) 대상 교육 서비스 강화
 - 평생학습정보체계 구축(온라인·오프라인),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 시민 중심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 지역 특성과 연계된 교육 확대로 지역전문가 양성 및 문화관광 분야 등 일자리 창출
- (전략12) 누구에게나 공평한 공공서비스 증진
 -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참여를 통한 창조와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여건 증진
 - 치매 주간보호시설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기준으로 공공복지시스템 재편
 - 보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확충으로 접근성 및 서비스수준 등 지역별 편차 해소
- **목표4: '시민 모두의 꿈과 희망 실현' 지역특화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 (전략13)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족기반 강화
 -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등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및 광역행정·업무기능 등과 연계 강화
 - 해양신도시를 중심 스마트 융·복합 문화·예술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마산만 재생 해양관광 문화기능 강화
 -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스마트복합물류플랫폼 구축 및 육대부지 연구자유 지역 조성
- (전략14) 맞춤형·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 역세권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마산, 창원, 진해지역 공간특성별 적정 밀도의 압축개발 및 주택공급 다양화(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공공지원 시행
- (전략15) 역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공간 창출
 -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다양한 도시 역사를 활용한 근대문화 만들기과 지역관광자원화

- 문화 중심 스포츠산업·관광·여가·환경 연계 발전 도모 및 지역적 특성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 역사와 문화자원의 보존·복원, 접근성 개선 및 경관관리
- (전략16) 글로벌리즘(Glocalism)을 통한 문화중심 지역특화발전 추구
 - 창원만의 특성을 가진 지역브랜드 개발 및 지역색깔을 입힌 스토리텔링, 관광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등으로 지역발전 도모
 - 지역 문화예술 자생 환경 조성(청소년 복합 놀이·문화공간, 국제아레나 공연장, 문화콘텐츠 양성센터 설립, 문화예술인 지원제도 등)
 - 창원사람, 축제, 음식, 환경 등을 활용한 창원만의 문화를 창조하고 온택트(Ontact)를 통한 세계화 추진

3)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1)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도시미래상

▣ 도시미래상

- 키워드 분석
 - 가야역사문화, 기후변화, 4차산업, 신공항, 난개발, 복지
- 핵심과제 선정
 - 관광활성화, 안전도시조성, 미래산업대비, 도시인프라, 난개발정비, 취약계층지원
- 미래상 도출
 - 가야역사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
 - 미래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
 - 복지·안전·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세계속의 도시로서 김해시 위상을 제고

(2) 계획 목표 및 부문별 전략

▣ 목표와 전략

- 미래상
 -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
- 계획 목표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구조 체계로 정비
 - 광역교통시설과 연계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거점도시 조성
 - 깨끗하고 안심되는 친환경 세이프-에코 시티 조성
 - 가야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확충
 -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및 명품교육 도시 조성
- 부문별 전략
 - 도시·주택분야
 - 안동공단의 점진적 이전 및 명품 복합단지 조성
 - 도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
 - 비도시지역 난개발 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 1인가구 및 고령 친화형 주거공간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부활
- 미래형 첨단 휴먼 스마트시티 조성
- 교통·물류분야
 - 한반도 종단철도 산업물류 허브 구축
 - 사통팔달 도로망 체계 구축
 - 교통시설 효율화 및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 화물수송체계 효율화
 -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조성 및 활성화
 -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인접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 산업·경제분야
 - 차세대 산업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나노,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
 - MICE 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 기반 조성
 -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특화단지 조성
 -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 환경·안전분야
 -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축
 -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도시방재시스템 강화
 -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환경친화형 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문화·관광분야
 -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거점 활성화
 -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관광개발 루트 구축

- 천만관광 인프라 조성
- 가야역사문화의 적극적 복원·정비
- 역사문화 특화도시 조성
- 대통령 생가 주변의 친환경 생태관광벨트 조성
- 보건·교육·복지분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
- WHO 건강도시 만들기
- 선진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

4)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1) 비전과 목표

▣ 비전

-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 목표

-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 일상 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2) 주요 정책 과제

▣ (전략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 고속 국가철도망 완성
-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 (전략2)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 수단·서비스 다양화
-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 (전략3)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교통·물류의 스마트화

▣ (전략4)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

-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
- **(전략5)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연결성 강화

(3) 계획의 미래상

■ 2022~2030년

-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됨
- 2025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짐
-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적은 나라로 OECD 10위권 이내에 진입함
-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됨
- 2028년, 도심항공교통서비스(UAM)가 대도시에서 상용화 됨
- 2029년, 자율주행택시와 셔틀이 지방소도시에 적극 도입됨
- 2030년, 무인항공기로 물류배송이 시작됨

■ 2032~2040년

- 2032년, 친환경 철도차량으로 수소열차가 상용화 됨
- 2034년, 자율주행셔틀의 수송분담률이 10%를 차지함
- 2037년, 세계 최초로 육해공 통합관제가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서 실시됨
- 2039년, 판매되는 신차 비중에서 자율주행차가 80%를 차지함
- 2040년, 철도를 이용해 남북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간 이동이 가능함

5)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1) 2030 물류 미래상

- ▣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의 물류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 (현재) 수기·수작업 위주의 물류산업
 - (미래) 초연결·초지능화된 스마트물류
- ▣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단절·비효율적 물류 인프라
 - (미래) 공유·융합형 경계없는 물류 네트워크
- ▣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중심의 물류서비스 창출**

 - (현재) 비용절감형 공급자 중심 물류
 - (미래) 누구나 일하고 싶은 수요자 중심 물류
- ▣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현재) 화석연료 기반, 안전에 취약
 - (미래) 탄소중립, 보안·안전 걱정없는 물류
- ▣ 미래대응형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체질 개선**

 - (현재) 신산업에 배타적이고 경직된 물류
 - (미래) 창의적인 신사업 넘쳐나는 공정한 물류
- ▣ 글로벌 경제 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선도**

 - (현재) 단편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 (미래) 탄력성·확장성 있는 물류 공급망,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도적인 물류

(2) 비전 및 목표

- ▣ 비전**

 -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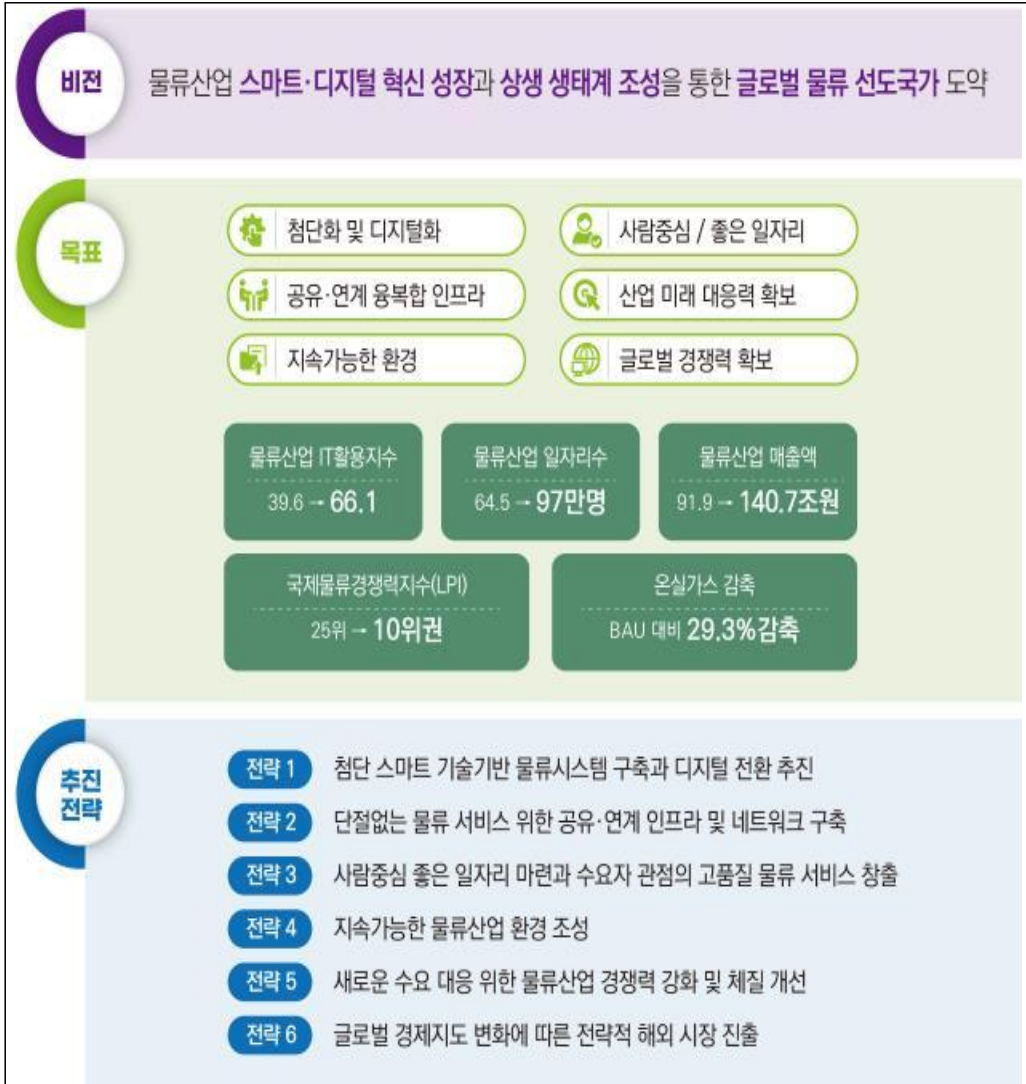
 - 첨단화 및 디지털화
 -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 사람중심·좋은 일자리
- 지속가능한 환경
- 산업 미래 대응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추진 전략 및 전략별 과제

- (전략1)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 (전략2) 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철도·공항·항만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전략3) 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
 - 누구나 선호하는 안전하고 좋은 물류 일자리 창출
 - 미래 환경 변화에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인재 양성
 -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
- (전략4)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물류산업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원
 - 방역, 방재, 재난 대응 등 물류산업의 안전망 확충
 -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추진
- (전략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 새로운 물류수요 대응 위한 물류 신산업 육성 지원
 -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 화물운송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시장발전 체계 마련
 -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정책자금 조성 및 거버넌스 정비
- (전략6)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 한반도 통합 물류망 및 한·중·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제 물류 인프라 확충 및 허브 경쟁력 강화
- 물류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지원 확대



(그림 부록3-14)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5 | 안전·환경·녹지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 목표

-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 우수한 자연은 잘 보전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쇠퇴지역은 재자연화를 통해 국토 생태용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모두가 누리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환경 구현
 - 순환과 복원, 생태계서비스 등 인간과 자연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 풍요로운 통합 물관리 구현
-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의 획기적 저감과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기후위기와 환경재해 등에 현명한 대비를 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 관리
-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 사회·경제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토대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산업의 녹색화와 세계적 수준의 환경기술 발전을 이루어 녹색순환경제 정착
 -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을 통해 동북아 및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등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성 강화

(2) 핵심 전략

-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 통합관리

-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해 녹색순환경제 실현
-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그림 부록3-15)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2)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

(1) 비전과 목표

□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 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2) 추진 전략

□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 공공수역의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하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 물절약, 효과적 배분, 수원 다변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

□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홍수로부터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겪어 보지 못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

□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 전문 인력 양성, 물 관련 조사·분석·정보 관리체계 지능화,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물관리 기반 선진화

□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 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되, 시설별 관리 전략 및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상 경제적 효율성 제고

□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 국제적 물 이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물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물산업 선도

3)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1)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

▣ 목표

-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

(2) 추진 전략

▣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정비

▣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

▣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 지역·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기관 간 소통 증진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민·관이 협력해 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

6 | 교육·체육·행정 부문 관련계획

1)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1) 비전과 정책목표

▣ 비전

-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 정책목표

-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
-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
-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

(2) 3대 키워드

▣ 지속가능성

- 국민의 계속 성장
- 정책의 지속 고도화

▣ 기회

- 실질적인 기회 확대
- 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

▣ 연계

- 다양한 학습경험 연계
- 국가-지자체-민간 연계

(3) 핵심 과제

▣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

-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기업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 **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정책 강화
 -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지속 확대 및 다양화
 -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지원 강화
- **다양한 경력·자격·학력 등의 연결 강화**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 디지털분야 온라인강의 조합형 학위제도 신설
 - 학점은행제 학점원 확대 및 글로벌화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및 활용**
 -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윈스톱 플랫폼 구축
 - 평생학습 이력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

2)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2023)

(1) 비전과 목표

▣ 비전

-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 목표

-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 간, 국내·외 간 벽 허물기
-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수준의 대학-지역 동반 성장 모델 선도

(2)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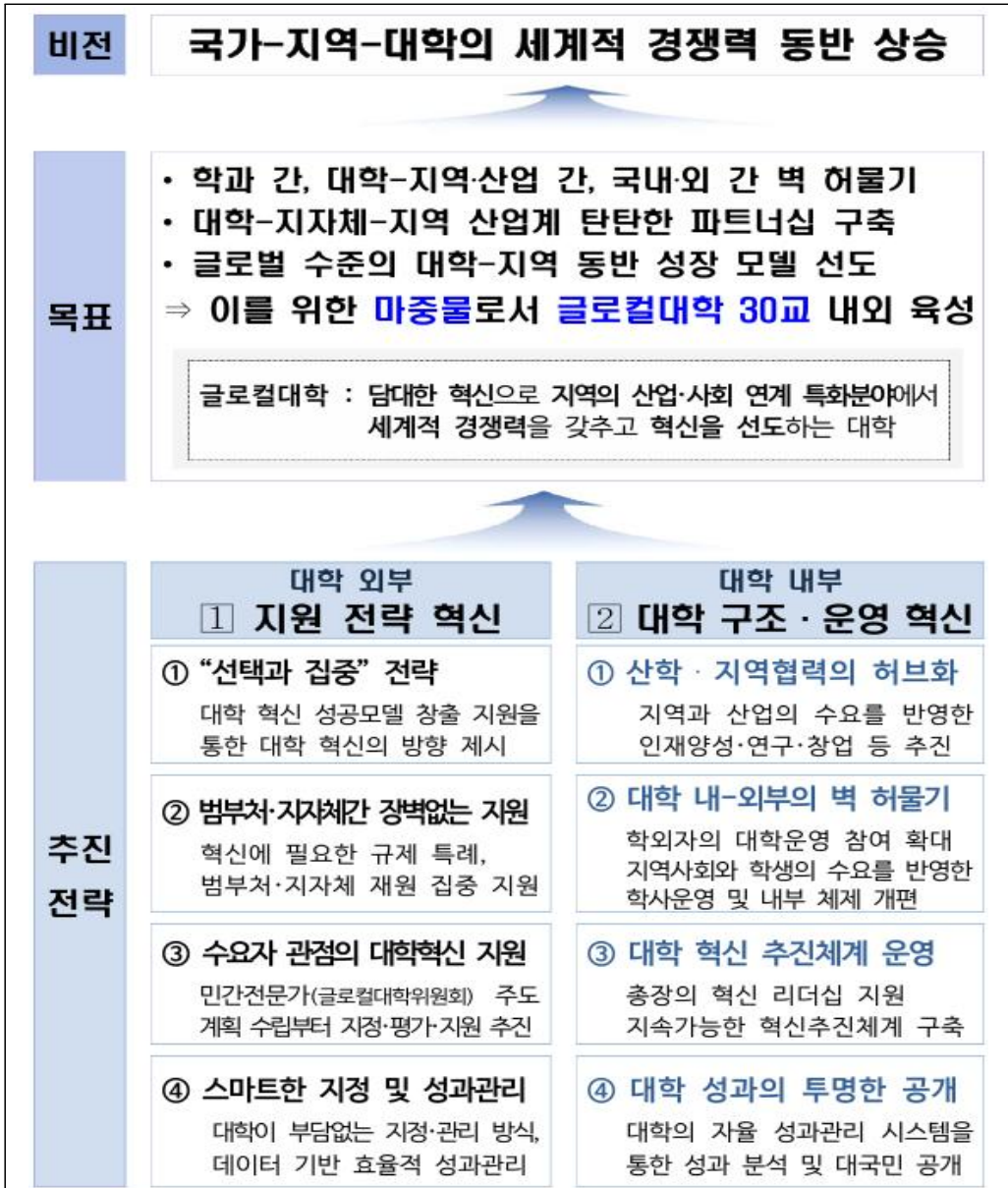
▣ 대학 외부 지원 전략 혁신

- 선택과 집중 전략
 -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지원 추진
- 스마트한 지정 및 성과관리
 - 대학이 부담없는 지정·관리 방식
 -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성과관리

▣ 대학 내부 대학 구조·운영 혁신

- 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구축
-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그림 부록3-16)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 비전 및 전략

3)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2024~2028)

(1) 비전과 정책방향

□ 비전

-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정책방향

- 스포츠 참여 확대
- 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 스포츠 가치 확산

(2) 전략 및 과제

□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 생활-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스포츠테크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비전	“은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	<p>[스포츠 참여 확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핵심지표: 국민 일상스포츠 참여율 70%(’28년)</p> <p>[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국민 영웅인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핵심지표: 스포츠강국 G7 달성(’28년) * 하계(2024·동계(2026) 올림픽 순위 등</p> <p>[스포츠 가치 확산] 건강, 공정성, 탁월성, 사회적 통합 및 교류, 스포츠 산업 등 스포츠 가치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확산 정착 * 핵심지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원(’28년)</p>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2.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3.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5.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6.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생활-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8.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9. 생활-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11.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12.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스포츠테크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14.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15.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그림 부록3-17)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부록 4 김해 도시대전환

1 | 도시대전환(City Transformation) 3.0

1) 도시대전환의 필요성 및 비전

(1) 도시대전환의 필요성

▣ 최근 주요 도시 정책 및 관련 연구의 동향 변화

- 기후변화·기술혁신·인구변화가 도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대두
-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의 전환과 뉴노멀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도시의 핵심 과제로 부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의 유형은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다양한 도시공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도
- 이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사회를 구현

▣ 대외여건 변화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혁신 필요

- 김해는 시 승격(1981년), 시·군통합(1995년) 이후 30~40년 사이에 지방 소도시에서 전국 15대 대도시로 급속히 성장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함께 인구감소, 인구구조 불균형, 전통 제조업의 쇠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도시 미래 불투명

▣ 2024년, 김해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해로 자리매김

- ‘양대 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라는 3대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
 - 경남 기준, 생산유발효과(11,0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5,204억원), 고용유발효과(13,204명)
-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으로 도시와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의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 마련

- 김해시와 인제대 등은 「울시티캠퍼스」를 핵심 목표로 2024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
- 인제대는 김해시와 주축으로 가야대·김해대·상공회의소·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통합거버넌스인 「김해인재양성재단」 출범을 계획
- 행정과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 '아젠다' 필요

■ 스마트도시 대전환 운동을 통한 '스마트 혁신 수도' 조성

- 국내·외 주요 도시 정책 동향인 '도시의 회복력(urban resilience)'과 '지속가능'에 대한 준비 필요
- COVID-19 이후로 어려움을 겪은 도시들의 회복성(urban resilience)을 확보하고 예전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
-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주거환경에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은 도시공간에 융합해 나가면서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공유자전거, 자율주행차,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멀티 모달(Multi-Modal)수단을 통해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 필요

(2) 도시대전환의 비전

■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성장으로

-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혁신과 성장,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기술의 활용과 확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
- 핵심 가치는 '시민 중심 성장 (Citizen-Centered Growth)'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 수립
- 2025년은 김해시 스마트도시 대전환의 원년으로 '대전환의 시작, 글로벌시티 김해'라는 슬로건을 통해 중장기에 걸친 도시대전환 추진
-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의 선도도시로서 포지셔닝 → 똑똑한 도시(Smart City), 대한민국의 요충도시 김해,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도시 김해 실현

2) 세계 각국의 도시대전환

(1) 도시대전환 1.0

- 19세기 도시대전환과 대개조는 산업혁명, 도시화, 인구 증가, 공중 보건의 필요성 등에 대응하며 진행된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 작업을 의미**
 - 프랑스 파리는 과밀화, 비위생적인 환경, 빈민가의 확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스만식 도시 개조를 시행하여 도시 미관과 위생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루었고 다른 유럽 도시의 모델로 자리매김
 -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은 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겪고 있었고 하수도 시스템 개혁을 통해 도시화와 공중위생 문제 등을 해결
 - 독일 함부르크는 19세기 산업화와 해양 무역의 성장으로 인해 항구와 도시 인프라를 근대화할 필요가 있었고, 산업화와 도시 재구조화의 성공적 융합 사례를 통해 유럽 항구 도시 개발의 모델로 자리매김
 - 그 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링슈트라세 프로젝트, 미국 뉴욕의 맨하튼 그리드 플랜 등 다양
 - 도시대전환 1.0의 성공 요인으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장기적인 도시 비전, 하수도 공학과 철도 등의 기술 혁신, 경제적 자원과 투자 등

(2) 도시대전환 2.0

- 20세기는 산업화, 세계대전, 경제 불황, 그리고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도시가 대전환과 대개조를 겪은 시기**
 - 이 시기의 도시 변화는 대규모 재건, 도시 확장, 근대적 교통망 구축, 공공 주택 프로젝트 등이 중심
 -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냉전으로 동서로 분단되었는데, 서베를린은 마셜 플랜 지원으로 현대적 도시와 상업 중심지로 재건되었고 동베를린은 사회주의적 도시 계획을 적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플라텐바우)를 건설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도시 통합과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포츠담 광장은 현대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변모
 - 베를린은 전쟁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도시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마찬가지로 일본 도쿄 역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급격한 경제 성장이 도시 확장을 요구하는 상황
 - 전후 재건 과정에서 현대적 도시 설계와 교통망을 확충하였고, 1964년 올림픽을 계기로 고속도로와 신칸센 같은 첨단 교통 인프라를 구축
 - 또한, 베드타운 개발과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으로 도시 밀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세계 최대 도시권으로 성장했고 지속 가능한 고밀도 도시 모델로 자리매김
 - 일본 도쿄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대전환의 성공적 사례로, 교통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이 돋보이는 사례

(3) 도시대전환 2.5

▣ 전범 국가들과는 별개로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 기술 발전, 교통 체증, 주택 문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지역들이 도시대전환과 대개조를 도모

- 미국 뉴욕은 빈민가 문제, 교통 체증, 주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로버트 모세스의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 프로젝트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 1970년대 이후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임스퀘어 및 다운타운 재개발을 성공하여 1990년대 이후 뉴욕은 재정 안정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부활
- 영국 런던의 항구는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경쟁력을 잃고 도크랜드 지역이 황폐화
 - 1981년 런던 도크랜드 개발공사 설립, 주거지역 재개발과 금융 중심지인 캐너리 워프 등을 건설하고 도시철도와 도심 공항 건설로 접근성을 강화
 - 이러한 노력으로 도크랜드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하였고 런던 경제 회복에 크게 이바지
- 브라질은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내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 건설을 결정
 - 1960년 건설된 브라질리아는 루시우 코스타와 오스카르 니마이어의 설계로 현대적 도시 구조 구축
 - 중앙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도로와 주거 구역을 배치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내륙 개발을 촉진했으며 도시 설계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의 작은 도시였으나 댐 건설과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 발전 가능성 대두
 - 1931년 도박의 합법화 이후 카지노 중심의 관광 산업이 발전하였고 1950~1960년대를 거치면서 테마 호텔 및 대규모 리조트 등을 개발
 - 특정 산업(관광 및 카지노 등)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성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 성장을 이룩

(4) 도시대전환 3.0

▣ 21세기의 도시대전환과 대개조는 급격한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인구 증가와 같은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 현대 도시들은 주로 스마트도시 기술, 환경친화적 개발, 시민 참여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
 - 세계 선도 도시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
- 도시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기술과 가상화 기술이 선도
 - 초연결·초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메타버스의 접목으로 가상공간에서도 도시의 다양한 계획이 실행 가능
-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 간의 융합, 유기적 연동은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초실감 사회를 구현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와 함께 역할이 증대
 - 싱가포르, 헬싱키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인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와 버추얼 헬싱키(Virtual Helsinki)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 등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다양한 현장 업무에 적용
- 서울의 디지털 대전환과 환경 복원,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시티(탄소중립 도시), 중국 상하이의 푸둥 개발과 첨단기술 허브로의 전환, 덴마크 코펜하겐의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핀란드 헬싱키의 데이터 중심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사례

- 이외에도 미국 보스턴의 '도전을 극복하는 도시(2024)',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젠더(gender) 계획(2024)',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2020)',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Superblock) 계획(2016)' 등이 있음

3) 도시대전환의 목표

▣ 시민의 필요를 반영한 '체감형 도시 혁신' 추구

- 김해 맞춤형 전략과 분야별 혁신을 통해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

▣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성장으로 파급

- 5개 부문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지식과 역량이 집단지성으로 활용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혁신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회복탄력 도시 김해를 위한 기반 구축

- 도시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복지, 도시·교통·물류, 환경·안전·녹지, 교육·체육·행정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구축 목표
- 이를 위해 경제적 회복력 강화와 전략산업 분야 고도화,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교육 혁신과 김해형 글로벌·RISE 체계 구축
-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 설계와 대중교통 중심의 모빌리티 대전환, 시민 체감형 정책 패키지를 통해 도시대전환 추진

2 | 김해 시군 통합 30년과 미래 김해 전망

1) 과거, 현재, 미래 분석 및 전망

(1) 시군 통합 30년, 김해시의 과거와 현재⁷⁾

▣ 인구 및 경제 분야의 성장

- 인구의 경우 1995년 26만 명에서 2025년 56만 명으로 확대
- 동일 기간 세대수는 7만 8천 세대에서 23만 4천 세대로 증가
- 지역내총생산(GRDP)이 1998년 3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15조 6천억 원으로 증가
- 기업체 수는 1995년 347개소에서 2025년 1만 86개소로 확대

▣ 문화복지 인프라의 발전

-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2003년 14개소에서 2025년 34개소로 확충, 특히 박물관은 동일 기간 2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
- 공공 체육시설은 2005년 15개소에 2025년 184개소로 큰 폭 증가
- 의료시설은 1995년 134개소에서 2022년 553개소로 3배 이상 증가
- 복지시설 수는 2008년 이후 지속 증가, 보육시설(어린이집) 수는 감소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 주택 보급의 경우 1996년 6만 6천 호에서 2023년 20만 호로 확대
- 전체 주택 중 78.8%를 차지하는 아파트 비율을 통한 도시화 가속
- 상수도 98.6%, 하수도 98.1% 보급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고도화

▣ 행정·재정 여력의 변화

- 행정효율화 등으로 공공부문 인력 증가와 비교해 인구 증가 속도가 빠름
- 지방세 징수는 1996년 1,309억 원에서 2023년 7,779억 원으로 6배 증가
- 경제 성장 및 세입 정책 변화에 따른 세원 확대로 지방재정 확장

7) 김해정책BRIEF 제1호(2024.10)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최신화

(2) 도시환경 변화와 메가트렌드

▣ 디지털 대전환과 도시공간 혁신 지속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 도시 내 초연결 및 초지능화 가속
- 도시기반시설이 스마트화가 촉진되면서, 도시공간은 각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허브로서 혁신기업 및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

▣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 및 노후화

-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30년 1.8%, 2040년 1.2%, 2050년 0.9%로 지속 감소 전망⁸⁾
- 국가 기반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 안전 위협 우려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성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로 지구적 차원의 공조 필요
-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 추구
- 삶의 질·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토이용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예상

▣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가속화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직업사회 및 노동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영역 간 융복합 등으로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움

8) 국회예산정책처(2022.08),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3)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 초저출생 지속과 총인구 규모의 변화

- 1983년부터 시작된 저출생 현상(TFR⁹⁾ 2.1명 이하)이 40년 이상 지속, 초저출생 현상(TFR 1.3명 이하로 진입)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 연평균 약 50만 명씩 증가하던 인구 팽창기에서 현재의 정체기를 거쳐 2040년 이후 연평균 40만 명이 감소하는 수축기에 도달할 전망

▣ 인구 연령구조 변화 가속화와 지역별 인구 격차 심화

- 저출생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인구 급감, 2067년이 되면 정점인 1972년의 23% 수준까지 떨어짐¹⁰⁾
- 기대수명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
- 생산연령인구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직업'으로 인한 수도권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고령화로 지역소멸 우려 및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는 악순환 구조 형성

▣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정책 방향의 전환 불가피

-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치를 기초로 2040년 장래 인구분포 분석 결과 2019년 현재 국토의 거주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81%,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9%로 전망¹¹⁾
-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9)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0) 관계부처합동(2020.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 국토연구원(2019), 2040 장래 인구분포 전망 연구

(4) 공간구조 변화와 전망

▣ 미래 도시공간 변화¹²⁾

- 스마트시티의 주거지역은 근린보다 작은 근린분구, 인보구 단위로 마이크로한 거점위성 업무공간과 교육공간의 혼합구조로 변화
- 15분 도시 개념 등 직주근접과 생활권 최소화
- 주차나 차량 공간을 보도나 테이블을 놓는 공간으로 전용
- 도시내 공기흐름, 온도제어가 가능한 도시구조, 공원배치
- 미래에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근린공원과 선형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계획 수립

▣ 농촌의 미래전망¹³⁾

-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삶의 질 증시에 따른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증가 전망
- 게다가 농촌관광객 증가 등으로 농촌의 생활인구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하는 인구 대부분은 고령층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농촌중심지로의 인구 집중, 농촌중심지의 역할 강화
- 농촌에서는 농업생산 외 가공, 체험관광 확대 등 농촌형 융복합 산업생태계 출현

▣ 주거부문의 미래 이슈¹⁴⁾

- 인구·가구 감소와 지역별 격차 발생으로 주택수요 증가세 둔화
- 노후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요구 증가
- 돌봄, 의료 등의 생활서비스 연계형 주택공급, 주거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 등 다양한 주거형태(유형) 공급 필요 증가
- 주거복지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

12) 건축공간연구원(2021),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14) 국토연구원(2021),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대응전략

(5) 부문별 미래 전망

▣ 경제·산업·일자리부문의 미래상

○ 2025년 이후

- 디지털·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이 제조·서비스업 전반에 확산되고,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중립 부문 투자 확대
- 스마트 팩토리가 중소·중견기업까지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
- 신기술 및 탄소중립 관련 인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제조 공정 자동화에 따른 생산 현장 인력은 상대적으로 축소¹⁵⁾

○ 2030년 이후

- AI·로봇·자율주행 산업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제조 공정과 자율주행 물류가 일반화
- 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이 산업의 표준으로 정착
- 신기술과 친환경 산업 부문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 증가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비대면·플랫폼 노동 증가로 노동시장 재개편 및 유연성 확대¹⁶⁾

○ 2040년 이후

- 초연결·초자동화 시대의 도래로 스마트시티 구축이 본격화되며, 우주·바이오·해양 등 미래산업 부상¹⁷⁾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경제구조가 활성화되고,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감성 기반의 직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분야로 부상

▣ 문화관광복지부문의 미래상¹⁸⁾

○ 2025년 이후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규모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¹⁹⁾
- ICT기술 결합 문화관광 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스마트 기술융합 관광 확대²⁰⁾

15)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World Energy Outlook 2022

16) 한국고용정보원(2024),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7) KDI(2021), 누리호, K우주산업의 신호탄을 쏘다, 산업현황 ISSUE, Vol.373

18) 보건복지부(2024.3).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

19) 문화체육관광부(2024), 제3차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체계 고도화
- 2030년 이후
 - 개인 취향과 건강상태에 맞춘 문화관광복지 프로그램 제공 가능
 - 친환경 및 탄소중립 관광 확대,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강화
 - 노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복지 시스템 강화
- 2040년 이후
 - 데이터 기반 감성 분석을 통해 초개인화된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 자동 추천 제공 가능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우주관광시대 본격화²¹⁾
 -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 실현 및 대상자 중심의 복지에서,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국가기간교통부문의 미래상²²⁾

- 2025년 이후
 -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같아짐
 -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도시에서 상용화
 - 자율주행택시와 셔틀이 지방소도시에 적극 도입
- 2030년 이후
 - 무인항공기로 물류배송 시작
 - 친환경 철도차량으로 수소열차 상용화
 - 자율주행셔틀 수송분담률 10%,
 - 육해공 통합관제가 주요 대도시에서 실시
 - 신차 비중에서 자율주행차 80% 차지
- 2040년 이후
 - 철도를 이용해 남북간·유라시아 대륙간 이동 가능

20)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1) 문화체육관광부(202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2) 한국교통연구원(202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부문별 SWOT 분석

(1) 경제·산업·일자리부문

가) 경제·산업·일자리부문 SWOT 분석

<표 부록4-1> 경제·산업·일자리부문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과 부산을 잇는 산업과 교통의 거점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낮은 고령화 수준 전략산업 집적화 및 신규 고용 확대 도농복합 도시로서 1·2·3차산업 융합 기반 존재 가야역사·문화 자원의 높은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제조업 중심의 낮은 생산성 영세·중소기업의 R&D 투자 역량 부족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고용 및 소비시장 축소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일자리 다양성 부족 산업, 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 및 협업 체계 미흡
Opportunities(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이포트(Tri-port)로 인한 물류·교통 인프라 확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창출 산업 혁신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자원과 연계된 관광 및 서비스업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 심화 인근 도시와의 산업 유치 경쟁 심화 산업전환에 따른 전통 제조업 축소와 고용 불안정성 증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시장 축소

나) 경제·산업·일자리부문 추진 방안

□ 기회활용 전략(S-O)

- 트라이포트(Tri-port)를 활용하여 지역 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
- 가야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및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다각화
- 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및 1, 2, 3차 산업 융합 기반 확장
- 글로벌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김해 특화 산업에 적합한 청년 및 신중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지역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로컬 브랜드 개발로 신규 일자리 및 산업 창출

□ 난관극복 전략(S-T)

- 인적·물적 인프라 및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인근 도시와의 산업 유치 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 환경친화적 개발 및 산업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
- 산업의 집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
- 일자리 연계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소비시장 축소 대응
- 신중년의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체계 구축과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강화

□ 역량보강 전략(W-O)

- 정부 지원 확대와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
- 관광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다각화하고 청년 고용 확대
- 지역의 산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첨단 기술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제조업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개발 및 일자리 다양성 확보
-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청년층의 지역 정착 유도

□ 위협회피 전략(W-T)

-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기술 인력 양성 지원 강화
- 내수시장 축소를 대비하여 김해시만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상품 개발로 경쟁력 강화
- 기후위기 및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도입과 산업 구조 전환 추진
- 네트워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 협력 플랫폼 구축, 기업 간 협업 체계 강화
- 스마트 공정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 방안 마련

(2) 문화·관광·복지부문

가) 문화·관광·복지부문 SWOT 분석

<표 부록4-2> 문화·관광·복지부문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 가야의 수도라는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문화유산 보유 낙동강 하천 계곡, 습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보유 부산, 창원 등 인접 대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 높은 보육예산 비중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관광 브랜드 부재 관광목적지로서의 낮은 인지도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부족 복지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 존재
Opportunities(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목적형 관광수요 증가 및 관광 트렌드 다변화 기후 위기 대응과 연계된 생태관광 및 친환경 개발 수요 증가 첨단 기술(예: 메타버스, AI)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거제, 통영 등 인접 도시와의 관광자원 경쟁 심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 부족 및 글로벌 경쟁 심화 환경 규제 강화 및 자원 보존 필요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복지비용의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정신건강,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증가

나) 문화·관광·복지부문 추진 방안

□ 기회활용 전략(S-O)

- 역사 및 자연 자원과 목적형 관광 트렌드를 연계하는 전략 수립
- 공항 및 대도시 근접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예산을 기반으로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 수립
-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돌봄 시티를 구축하는 전략 수립

□ 난관극복 전략(S-T)

- 문화유산 우수성 및 보전과 및 환경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관광지 간 경쟁 극복을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복지체계 구축 전략 수립
- 고령친화도시, 노인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과도한 증가 예방 전략 수립
- **역량보강 전략(W-O)**
 - 김해시 보유 관광자원 연계성 확보 및 강화 전략 수립
 - 글로벌 관광객 유치 특화 전략 수립
 - 복지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위험회피 전략(W-T)**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로 경쟁 도시와의 차별성 확보 전략 수립
 -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로 세대 간 갈등 완화 전략 수립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전략 수립

(3) 도시·교통·물류부문

가) 도시·교통·물류부문 SWOT 분석

<표 부록4-3> 도시·교통·물류부문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과 혁신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대학과 연계한 산업혁신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간 교류 활성화로 농촌과 도시 간의 상생 구조 강화 외국인 인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성장 및 연계성 부족 도심 내 경제·상업 활동을 위한 핵심 업무 지구 및 거점 공간 미비 도시·농촌·수변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부족
Opportunities(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덕도 신공항 및 부산·진해신항과 연계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발전 가능성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장을 통한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 5대 전략산업 육성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 및 도시성장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 도시와의 인구·산업 유치 경쟁 심화 노후화된 도시공간(산업단지, 원도심, 계획도시)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경관 저해

나) 도시·교통·물류부문 추진 방안

□ 기회활용 전략(S-O)

- 첨단 미래도시: 지식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 인프라 및 혁신적 공간 설계를 통해 첨단 클러스터 기반의 미래도시로 도약
- 글로벌 스마트 물류도시: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을 연계해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첨단 물류 중심지로 성장
- 동남권 네트워크 요충지: 김해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적·물적 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남권 광역 네트워크 허브 구축
- 스마트 농촌공간 혁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스마트화하고, 첨단 농업과 친환경 생태관광이 결합된 혁신적인 농촌-도시 통합 모델 구축

□ 난관극복 전략(S-T)

-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심 전역에 혁신적인 경관 디자인을 점차적으로 적용하여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축
- 국제화 도시공간 구축: 스마트도시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글로벌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공간을 조성하며, 국제적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

- 스마트 그린산업 혁신단지 조성: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기술과 탄소중립 설비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중심지로 전환

▣ 역량보강 전략(W-O)

-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 원도심 재생을 통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회복하고, 신도시와의 교통 및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여 도시 전역에서 균형 잡힌 발전과 협력 시너지 창출
- 글로벌 경제허브 구축: 도심 내 대규모 업무지구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어루어진 경제·상업 중심 도시로 성장
- 청년친화적 도시조성: 청년 맞춤형 주거, 창업 지원, 문화 공간 및 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청년 유입과 도시 활력을 강화

▣ 위협회피 전략(W-T)

- 그린 직주락 클러스터: 농촌·수변 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직주락 복합 지역으로 조성하여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
- 노후화된 도시공간 혁신: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 공간 재생과 공간혁신구역을 설정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조성
- 도심 관리 체계 강화: 농촌 및 도시 공간 재구조화, 건축 및 경관 디자인 라인 등을 수립하여 도시 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이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관리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

(4) 환경·안전·녹지부문

가) 환경·안전·녹지부문 SWOT 분석

<표 부록4-4> 환경·안전·녹지부문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화포천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완충지대 보유 • 국립김해습지센터 건설을 통한 생태인프라 기반 확보 • IoT기반 환경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악취, 수질 등)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풍부 지역(김해평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등 공업지 인근 미세먼지 농도 높음 •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 압력 • 노후화된 하천시설과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수재해 취약 • 집중호우 대비 우수처리시설 부족 • 취약계층 대상 기후적응·대응 대책 미흡
Opportunities(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지원 확대 • 화포천 습지 1ha당 연간 5톤 CO₂ 크레딧 상품화 가능 •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발전으로 신산업 성장 • 업사이클링 등 순환경제 모델 도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시민과 기업의 환경의식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참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기후의 가속화로 폭염·한파일수 증가 • 주요 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농업 피해 확대 • 농작물 재배 적지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 외래종(홍가시파리 등)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부족

나) 환경·안전·녹지부문 추진 방안

□ 기회활용 전략(S-O)

- 화포천 습지의 CO₂ 흡수능력을 활용한 민·관협력 탄소크레딧화 사업 추진
- 스마트기술 접목한 수질·악취 관리 최적화로 친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 유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난관극복 전략(S-T)

- 녹지 축 확대 및 바람길 조성 등 도시 내 그린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도시 열섬효과 완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내열성, 내한성 작물품종 개발 및 스마트 농업시스템 도입
- 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구현

▣ 역량보강 전략(W-O)

-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 시스템 도입 등 그린 리모델링 지원
- 노후 하천시설의 스마트 통합물관리 시스템 전환 및 도입
- 취약계층별 맞춤형 기후변화체험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위협회피 전략(W-T)

- 그린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도시 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
- 농업용수 관리와 연계한 통합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원순환 센터 설치 등 폐기물 제로화 시범지역 조성

(5) 교육·체육·행정부문

가) 교육·체육·행정부문 SWOT 분석

<표 부록4-5> 교육·체육·행정부문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제대 등의 글로벌대학30 선정으로 지역-대학-산업 연계 기반 확보 • 김해인재양성재단 출범 계획으로 지역 인재 육성 거버넌스 구축 •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교육 인프라 보유 • 2024년 양대 체전 성공 개최로 체육 인프라 및 운영 역량 확보 •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선정으로 국제 문화교류 역량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대비 교육 인프라 및 교육여건 격차 존재 • 청년층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인재 확보 어려움 • 생활체육시설의 지역별 편차 및 노후화 •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미흡 • 읍·면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Opportunities(기회)	Threat(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정부의 지역 인재 양성 지원 확대 •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조성 정책 추진 • 생활체육 활성화 및 K-스포츠 성장에 따른 체육산업 확대 •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회 • 지방분권 강화로 자치역량 및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내 학교 통폐합 가능성 • 인접 도시 등과의 교육·체육 인프라 유치 경쟁 심화 • 고령화에 따른 복지·행정 수요 급증 및 재정 부담 가속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 혁신 압력 증가 • 공무원 인력 부족 및 전문성 확보 어려움

나) 교육·체육·행정부문 추진 방안

□ 기회활용 전략(S-O)

- 글로벌대학30 사업과 RISE 정책을 연계하여 ‘올시티캠퍼스’ 기반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중심으로 인제대·가야대·김해대·상공회의소·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산학관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 AI·디지털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및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양대 체전 성공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연계한 비대면·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 및 시민 편의 향상

□ 난관극복 전략(S-T)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시설의 복합화(평생학습·문화·체육 등 기능 융합) 추진
-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한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취·창업 연계 강화
- 지역 내 교육·체육 인프라 차별화 전략으로 인접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
- 고령화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민간 전문가 협업 체계 구축

□ 역량보강 전략(W-O)

- 읍·면 지역 교육·체육 인프라 확충 및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확대
-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스마트 체육시설 전환
-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형 행정 모델 구축
-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 위협회피 전략(W-T)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가족 친화형 정주환경 조성 및 행정 지원 강화
-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협력 기반 교육·체육 서비스 운영 모델 도입
-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장학 제도 확대
- 행정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통합 행정서비스센터 운영
-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행정 혁신에 대한 시민 수용성 제고

부록 5 국내 대도시 비교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비교

- 김해시는 인구 규모 대비 실질GRDP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화성·평택·용인 등 수도권 산업도시 대비 1인당 경제력 격차 큼
 - 화성시(약 7.8배), 평택시(약 1.9배), 용인시(약 2.2배)
- 같은 경남권 창원시(36.2조) 대비 실질GRDP 약 43% 수준에 불과

<표 부록5-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수 및 실질GRDP 비교

구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수(명) (2024년 기준)	실질GRDP 2021년
경기도	수원시	1,258,090	60조
	화성시	1,034,173	224조
	고양시	1,091,888	38조
	용인시	1,115,481	67조
	성남시	942,272	50.3조
	안양시	568,635	18.4조
	부천시	821,534	17.9조
	평택시	644,499	35조
	안산시	720,587	25.7조
	남양주시	744,221	13조
	시흥시	588,596	17조
	파주시	529,866	23.9조
	김포시	518,715	15.4조
충청북도	청주시	881,600	40.9조
충청남도	천안시	697,276	27.8조
전라북도	전주시	647,264	16조
경상북도	포항시	500,199	23.7조
경상남도	김해시	561,806	15.6조
	창원시	1,021,398	36.2조

자료) 통계청 KOSIS, 국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 외국인인구 포함

□ GYM 경쟁력 비교: 인구 및 면적

- GYM은 부울창(BUC) 대비 인구 규모는 작으나, 인구 성장세(+5.74%)는 압도적 우위
- BUC는 모두 인구 감소 중이며, GYM이 동남권 새로운 인구 성장축으로 부상
- 김해시는 GYM의 인구·경제 중심도시로서 생산가능인구비율(72.24%)이 수도권·BUC 전체보다 높음

<표 부록5-2> 수도권 및 부울창(BUC) 대비 GYM 인구·면적 비교

구분	인구 (2015년 기준, 명)	인구 (2024년 기준, 명)	인구증감률(%)	생산가능인구수 (2024년 기준, 명)	생산가능인구비율 (%)	면적(단위:km ²) 2024년 기준	도시면적(단위:km ²) 2024년 기준
수도권							
서울	10,022,181	9,331,828	-6.89	6,682,364	71.61	605.21	605
경기	12,522,606	13,694,685	9.36	9,815,126	71.67	10,201.22	4,284
인천	2,925,815	3,021,010	3.25	2,154,345	71.31	1,069.51	510
소계	25,470,602	26,047,523	2.2	18,651,835	71.61	-	-
김해	528,865	531,676	0.53	384,092	72.24	463.55	158
양산	301,291	359,531	19.33	249,057	69.27	485.70	143
밀양	107,896	100,691	-6.68	58,252	57.85	798.71	144
소계	938,052	991,898	5.74	691,401	69.70	1,747.96	445
BUC							
부산	3,513,777	3,266,598	-7.03	2,168,796	66.39	771.33	717
울산	1,173,534	1,098,049	-6.43	780,073	71.04	1,062.90	646
창원	1,070,064	999,858	-6.56	696,661	69.68	749.24	441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와 면적,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 미포함

□ GYM 경쟁력 비교: GRDP 및 제조업 종사자수

- GYM의 GRDP 규모는 BUC 대비 작으나, GRDP 성장률(+0.70%)은 울산·창원의 역성장 대비 우위
- 제조업 종사자수에서 BUC는 모두 감소세, GYM은 유일하게 플러스(+0.36%) 유지
- 김해시는 GYM 경제의 절반 이상(GRDP 54.4%, 제조업 종사자수 60.3%)을 차지하는 핵심 도시

<표 부록5-3> 수도권 및 부울창(BUC) 대비 GYM GRDP·제조업 종사자수 비교

구분	GRDP 2015년 기준 (백만원)	GRDP 2021년 기준 (백만원)	GRDP 실질금액	GRDP 연평균 성장률 (%)	제조업 성장률	제조업 종사자수(명) (2015년)	제조업 종사자수(명) (2023년)	변화율 (%)
수도권	381,978,306	491,388,714		4.29		293,173	241,919	-17.48
	404,868,209	554,006,378		5.37		1,247,845	1,357,108	8.76
	80,137,506	99,781,575		3.72		245,240	246,065	0.34
GYM								
김해	15,064,592	15,627,489		0.61		94,847	93,275	-1.66
양산	9,807,353	10,174,665		0.61		50,399	50,403	0.01
밀양	2,688,732	2,935,296		1.47		8,777	10,896	24.14
소계	27,560,677	28,737,450		0.70		154,023	154,574	0.36
BUC	82,701,497	100,759,135		3.35		227,632	205,191	-9.86
	72,854,409	72,410,215		-0.10		186,809	171,192	-8.36
창원	36,565,204	36,255,723		-0.14		131,729	126,277	-4.01

자료) 통계청 KOSIS, GRDP와 제조업종사자수

'김해 VISION 2050' 오리진 리포트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997022-3-3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GHRi 김해연구원
Gimhae Research Institute

50969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 055-344-7700



9 791199 702257
ISBN 979-11-997022-5-7